



1	자폐성장애의 이해	1
2	유치원 “감각발달의 이해”	19
	I. 고민을 나누며	24
	II. 장애유아의 감각 특이성	26
	III. 7가지 감각 13가지 사례	30
	IV. 자료를 나누며	63
3	초등학교 “학습과 생활”	65
	I. 학습지도	69
	II. 쉬어가는 코너 - 자폐성장애 평가의 관점	93
	III. 생활지도	97
4	중학교 “사춘기와 성교육”	133
	I. 성교육	137
	II. 학생 지도사례 (21가지)	165
	III. 전문가 코너	193
5	고등학교 “상황이야기(social story)를 활용한 지역사회적응 교육”	197
	I. 상황이야기(social story) 중재란	202
	II. 지역사회 이용하기에 대한 상황이야기 (별첨)	205
	III.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사례	206
6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사례	219
7	연수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51
	참고문헌	269
	부록	273

1 자폐성장애의 이해



CONTENTS

목 차

I . 자폐성장애의 개념	5
II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자폐성장애 이해	10
III . 자폐성장애 학생의 감각적 특성 이해하기	14

I. 자폐성장애의 개념

자폐스펙트럼장애 (ASD, Autism Spectrum Disorders)

기 관	정 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p><u>자폐성장애</u>를 지닌 특수육대상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p>
장애인 복지법 (2008)	<p><u>자폐성장애인</u>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 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장애인 교육법 (IDEA)	<p>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 구어 및 비구어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u>발달장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 반복적인 활동 및 상동적인 움직임, 환경적인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전형적 반응 등 -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원인이 정서장애인 경우에는 해당 안 됨 - 3세 이후에 자폐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도 진단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 (WHO)	<p>이전에는 자폐성장애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폐성장애 아동이 보이는 증후를 아동기에 특별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신병으로 분류하였으나, 1992년 ICD-10에서 <u>전반적 발달장애(PD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u>로 공식적으로 명명</p>
미국정신의학회	<p>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에서는 이전 DSM-IV-TR에서 전반적 발달장애의 범주 내에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의 하위 유형으로 자폐성장애,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아동기붕괴성장애, 비전형 전반적 발달장애로 분류하였던 것을 2013년 발표된 다섯 번째 개정판(DSM-5)에서 하위 유형을 없애고 '<u>자폐스펙트럼장애</u>'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p>

임지원(2015). 특수교육의 맥. 편집인용.

< Tip~ 한마디 >

- 자폐스펙트럼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s)의 사용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PDD(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용어 대신 자폐스펙트럼장애(ASD)라는 용어를 사용
- 자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장애이기 보다는 ‘자폐성 성향’의 연속선으로 이해되기 시작함
- 자폐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하고 폭넓은 증상들로 인하여 일반적인 결함과 자폐만의 독특한 결함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 자폐는 평균적이거나 평균을 능가하는 지적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서부터 중도 지적장애나 구어의 완전한 결손과도 같은 심각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능력을 보이곤 함
- 이 용어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동들을 지칭하며, 자폐의 범주에 해당하는 폭넓은 범위의 하위유형들과 심각한 정도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임지원(2015). 특수교육의 맥.

**< DSM-5에서의 자폐스펙트럼장애
(ASD, Autism Spectrum Disorders) 진단 기준 >**

1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1) 사회 및 정서적 상호성
에서의 결함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비언
어적 의사소통 행동
에서의 질적 결함

(3) 사회적 관계를 만들
고 유지하는 데 결함

-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

-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
소통 행동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

-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하는 데 어려움

- 주고받는 일반적인 대화
실패

- 눈맞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에서의
비정상성

- 상상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 만드는 데 어려움

- 관심, 정서, 애정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

- 몸짓에 대한 이해 및
사용의 결함

- 또래에 대한 관심 없음

- 사회적 상호작용 시작과
반응에 어려움

- 안면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비정상성

2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1)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동작, 사물 또는 말의 사용

- 단순한 상동적 동작

- 장난감 길게 줄 세우기

- 사물 흔들기

- 반향어 사용

- 특이한 어구 사용

(2) 동일성에 대한 고집, 판에 박힌 일과의 집착,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의 의례적 패턴

- 작은 변화에 과도하게 불안해 함

- 전이의 어려움

- 경직된 사고 패턴

- 판에 박힌 인사하기

- 매일 동일한 일과 요구

- 동일한 음식 섭취 요구

(3) 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된 흥미

- 특이한 사물에 대한 집착과 몰두

- 과도하게 제한된 흥미에 몰두

- 과도하게 냄새 맡기

- 과도하게 사물 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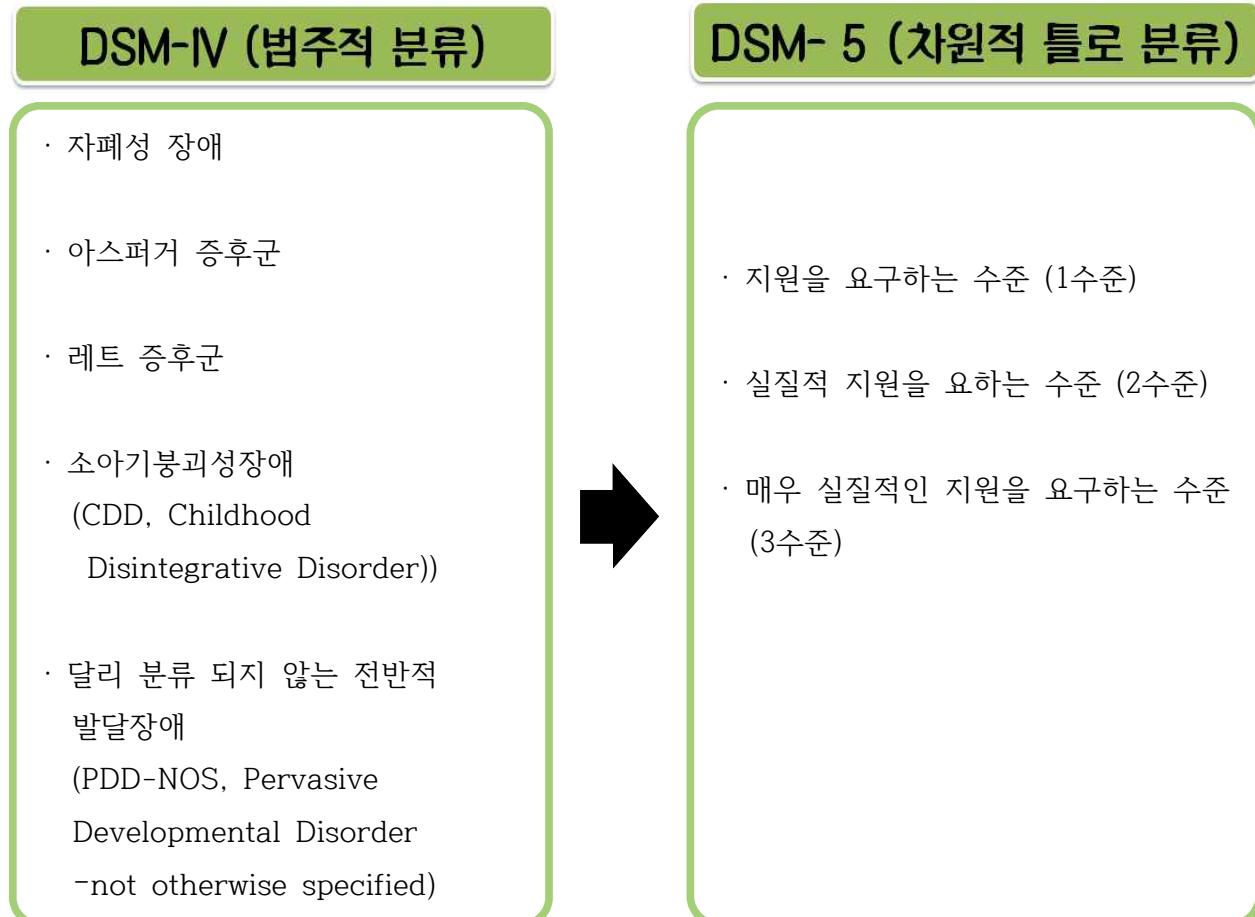
-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으로 강한 흥미

(4) 감각자극에 대한 둔감반응, 민감 반응, 환경의 감각 양상에 대한 특이한 감각적 관심

- 고통 또는 온도에 대한 무감각

- 특정 소리나 감각에 혐오적 반응

**< DSM-5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ASD, Autism Spectrum Disorders)의 분류 >**



< DSM-5 관련 기타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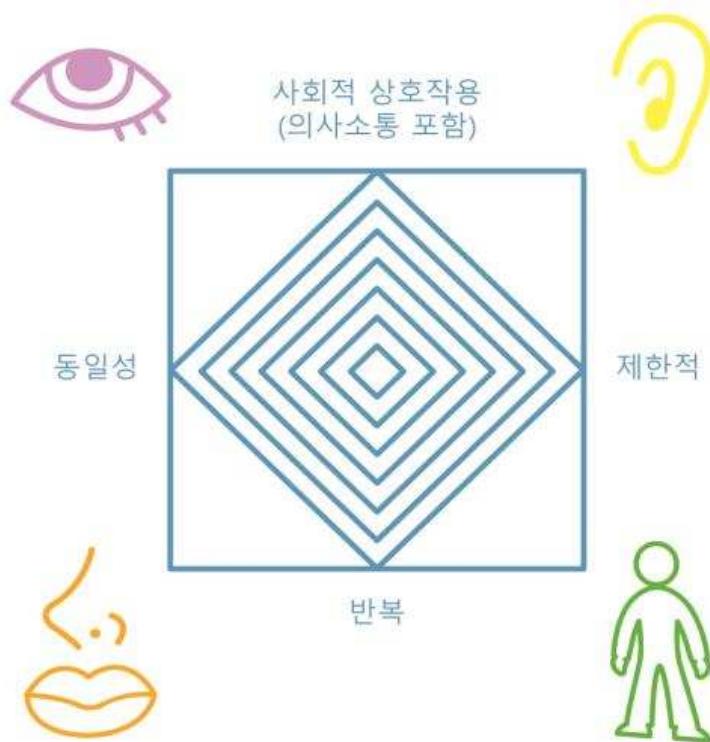
-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현저한 결손이 있더라도 자폐스펙트럼장애 (ASD)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DSM-IV에 있던 하위 장애를 삭제하였음.
- 자폐스펙트럼장애(ASD)라는 명칭을 통합적으로 사용함.

II.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자폐성장애 이해

1. 나의 감각은 무척 예민해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들이 나에게는 엄청 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 흥분해서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건 주변의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울림스페셜 출판.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51) 발췌



인포그래픽 설명	* 큰 정사각형 모서리의 그림: 감각의 특이성을 나타냄 *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체(體)감각(전정감각, 고유수용성감각, 촉각)
----------	---

* 인포그래픽이란 : 인포그래픽의 기본 요소는 비주얼(visual), 내용(content), 지식(knowledge) 등의 세 가지이며, 색깔과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비주얼 요소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통찰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포그래픽 [Infographics] (두산백과)

감각기관에 불이 붙다

작은길 출판사 [템플 그랜든] p13, 14, 18 발췌.

매일 학교에서 템플은 요란스럽게 울려 대는 종소리가 무서웠다. 종소리는 치과의사가 드릴로 신경을 해집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귀를 막았지만 그래도 소리가 들렸다. 피할 방법이 없었다.

템플에게는 평범한 감각이 고문이 될 수 있었다. 늘어나는 털모자를 귀까지 내려오게 쓰면 큰 도구로 머리를 죄는 것 같았다. 새 양말과 속옷을 입으면 사포로 살을 문지르는 기분이었다. 월피스 밑에 뺏뺏한 속치마를 입으면, 바늘이 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마치 감각기관에 불이 붙은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선생님이 독한 향수를 뿐리면 템플은 아무 생각도 못했다. 향수 냄새가 칠판에 적힌 글자의 뜻을 지우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덮어 버렸다. 템플이 아주 어렸을 때는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불가능했다. 어떤 소음은 귀가 찢어질 듯 크게 들리는가 하면, 단어는 하나같이 불분명하게 ‘오 하 어’로 들렸다. 템플이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은 짜증내기밖에 없을 때가 있었다. 불만을 말로 하지 못하고 울부짖거나, 물건을 깨고 손짓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템플 자신은 물론, 누구도 문제가 뭔지 몰랐다.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들처럼 템플은 감각기관 때문에 시달렸다. 눈, 코, 귀는 제대로였지만, 뇌에 전달되는 정보가 왜곡되었다. 소리는 너무 컼고, 냄새는 너무 강했으며,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가끔 환한 빛이나 회전하는 선풍기도 고통을 주었다. 템플은 깃발 흔들기를 좋아했지만, 깃발을 쳐다보는 데 몰두해서 다른 것에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고통스러운 소리, 혼란스러운 말, 압도하는 감각을 피하려고 템플은 빙빙 돌곤 했다. 아이들은 둥글게 빙빙 도는 것을 좋아하지만, 템플은 몇 시간이고 계속 돌았다. 또, 몇 시간이고 동전과 병뚜껑을 또르르 굴리고 그 광경을 구경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면 주변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p18)

자폐성장애란 무엇인가?

작은길 출판사 [템플 그랜든] p38 발췌.

물론 자폐성 장애인은 저마다 다 다르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감각이 쉽게 과민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형광등 불빛을 참지 못한다. 형광등은 1초에 120번 깜빡이고, 이 속도는 너무 빨라서 사람들은 깜빡이는 줄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자폐성 장애인이 형광등의 깜박임을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어떤 자폐성 장애인들은 슈퍼마켓에서 세제 코너 앞을 걷지 못한다. 냄새가 뇌 속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요리했다가 씻은 냄비에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특정한 소리를 못 참는 경우도 많다. 어떤 아이들은 변기 물소리가 너무 커서, 변기에 일을 보고 물을 내리기보다 옷에 소변을 보기로 한다. 빗소리가 총소리 같고, 호루라기 소리와 불꽃놀이 소리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2. 난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죠

“그 일은 식은 죽 먹기야.”

이 말을 들으면 난 죽이 어디 있는지, 왜 죽을 먹으라는 건지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냥 “넌 그 일을 쉽게 해낼 거야.” 라고 얘기해주세요.

속담이나 관용어, 두 가지로 해석되는 말, 함축적인 의미, 은유, 넌지시 하는 말, 비꼬는 말들은 들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요.

한울림스페셜 출판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31, 51 발췌.



1) DSM-5의 자폐성장애 진단 기준

- A.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인포그래픽 설명	* 마름모 모서리: 기질 및 특징 * 사회적 상호작용(의사소통 포함) 결여, 동일성에 대한 고집, 제한적 흥미, 반복
----------	--

인포그래픽(Information Graphic)을 그려 자폐성장애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울림스페셜 출판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자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 중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것만으로 나를 판단하고 규정짓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도 모두 다르죠. 여러분은 안경을 썼나요? 운동을 잘못하나요? 뚱뚱한가요? 어쩌면 나도 여러분을 만날 때 이런 특징들부터 먼저 보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p27, 39)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달라요.

나는 사람들의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알기 쉽게 말해주세요.

“000, 책은 이제 책상에 두고 밥 먹으러 가자. 점심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나는 금방 알아듣고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p30, 73)

이미지! 난 시각에 의존해요.

나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주려면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면 더욱 좋지요. 배우기가 훨씬 쉽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가 있으면 생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p33, 113)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지 않아서 운동장 구석에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놀이에 끼어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언어, 감정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혹시 아이들이 발야구 같은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나도 끼워주라고 얘기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p141)

III. 자폐성장애 학생의 감각적 특성 이해하기

1. 자폐성장애 학생의 감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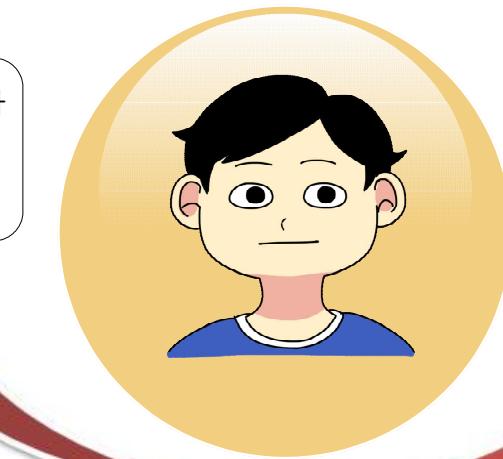
2. 자폐성장애 학생이 자극받는 상황



3. 자폐성장애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 방향

말을 못하거나
잘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에
관심이 적다.



일상생활의
변화를 힘들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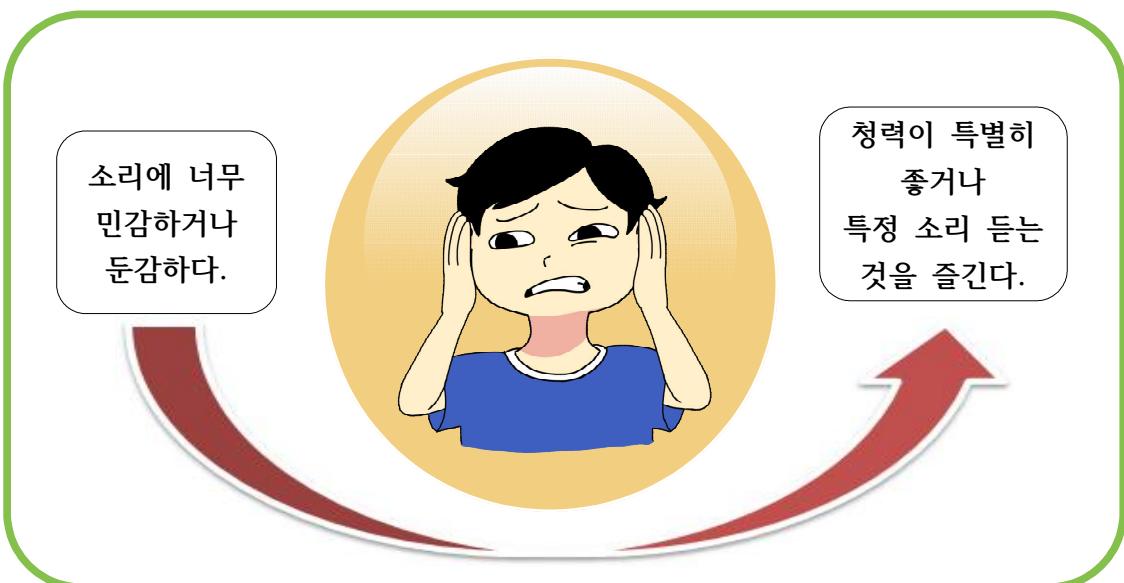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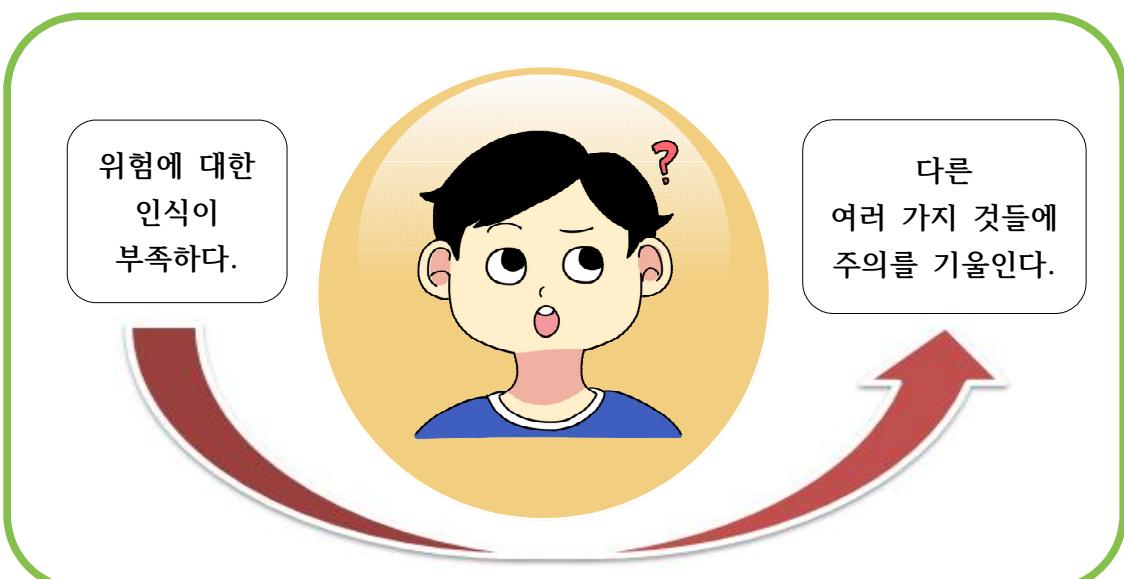
주변 세상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기를
원한다.



사물에 이상한
애착을 보인다.

특정 사물을
특별히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사람보다
다른 부분에
더 관심이 많다.



부적절하게
웃거나 운다.

즐거움이나
슬픔을 느끼는
부분이
남들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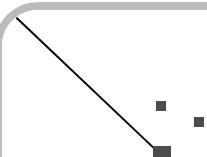


과잉행동적
이거나
수동적이다.

에너지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



2 유치원 “감각발달의 이해”



CONTENTS

목 차

I . 고민을 나누며	24
II . 자폐성장애 유아의 감각 특이성	26
1. 자폐성장애 유아와 감각	26
2. 7가지 감각체계와 행동	26
3. 감각자극의 균형	28
4. 감각요구 지원	29
III . 7가지 감각 13가지 사례	30
사례 1.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싶어요	30
사례 2. 아무거나 먹어요	33
사례 3. 옷 젓는 것이 너무 싫어요	35
사례 4. 입에 물건을 넣고 있거나 손을 빨아요	38
사례 5. 빙글빙글 제자리 돌기는 내가 1등!!	41
사례 6. 움직이는 게 싫고 무서워요	43
사례 7. 흐느적흐느적 걷고, 누워 있는 게 좋아요	45
사례 8. 까치발로 걷거나 뛰어요	48
사례 9. 나는 그림으로 이해해요	51
사례 10. 항상 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이 싫어요	54
사례 11. 선풍기와 에어컨을 껐다, 켰다하는 게 좋아요	56
사례 12. 시끄러운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58
사례 13. 나는 들리는 대로 이해해요	60
IV . 자료를 나누며	63



지금까지 막냈던 자폐아이를 생각하면 비슷하면서도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함께 있는 아이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은 너무 다르기도 해서 특성 파악이 힘들어요. ‘자폐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심경하는 중이지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편식이 너무 심해요. 좋아하는 것 막 먹으려고 하는데 금식은 좋아하는 것만 나오지 않으니 접시시간마다 힘들어해요. 자폐 아이들 대부분이 편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班 아이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요. 특히 행사 때 사용하는 마이크 소리나 현장학습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더욱 심하게 반응하는데 주위의 소리를 모두 차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자극도 자폐아들은 힘들어 하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유치원 일과를 운영해야 해서 자폐아만 배려해 줄 수는 없는데… 말로 설명해주면 이해를 못해서 한 번씩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 냉정하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자폐아의 입장에서 쓴 책이었어요. 읽고 나니 문제행동이 이해가 되며 우리班 자폐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자폐를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면서 자폐아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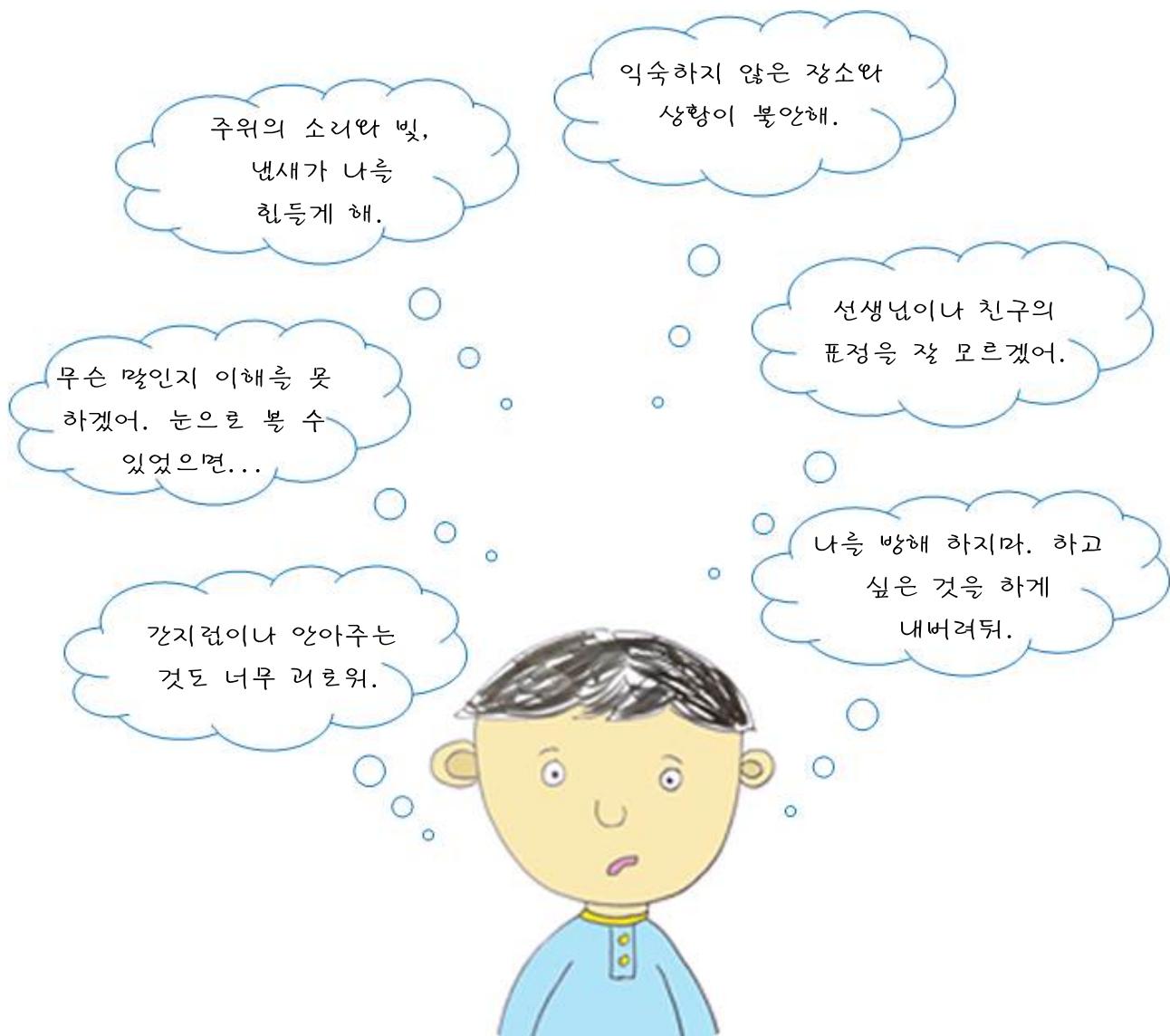


제가 자폐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감각통합으로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힘없이 취침 거리는 경우 한 쪽 방향으로 돌아가 멈추게 하고 손뼉 치기 등을 하면 착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면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I. 고민을 나누며

특수교사로써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유아들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때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부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왔다. 특히 자폐성장애 유아를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안 돼!”, “하지마!”라는 말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있었던 것 같다. 귀를 막고 우는 아이들, 쉴 새 없이 몸을 흔드는 아이들, 하던 놀이만 계속하려고 고집부리는 아이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행동을 고치고 말리는 것이 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자폐성장애에 관한 연수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고, 동료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행동들이 문제행동이 아닌 감각체계의 이상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바꾸니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며 아이들에게 미안해졌다.



자폐성장애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전통적 접근 방식은

- 반응적이고 엄한 대응으로 미래에 생길 문제행동의 발생을 막아줌
- 파괴적 행동을 하는 유아들을 제외시켜 다른 유아들의 피해 방지

등 이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가 문제행동이라 부르는 다양한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교사의 눈을 피해서 또 다시 발생하거나 잠재되어 있다가 재폭발 하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었다.¹⁾

특히 자폐성장애 유아의 감정이나 느낌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감각자극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을 고치고 학습시켜야 할 행동으로 생각했을 뿐, ‘이런 자극으로 인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문제행동이라 생각하는 행동들이 편안함을 주기 위한 또 다른 감각추구 행동은 아닐까?’라고 자폐성장애 유아의 입장을 생각하지는 못 했던 것 같다.

자폐성장애 유아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폐성장애 유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특히 비전형적인 행동의 원인을 감각자극 추구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하며 그에 따른 중재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오세림, 「자폐성장애 학생의 행동지원 방안」,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방안 직무연수, p29, 32.

II. 자폐성장애 유아의 감각 특이성

1. 자폐성장애 유아와 감각

유아기 시기에 주변사람과 사물에 대한 탐색은 유아의 신체상과 타인,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돋고 인지를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이나헬 외, 2009; 박민정, 2012). 유아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자극을 여러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감각정보들을 뇌에서 조직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 인지, 정서, 운동영역의 발달을 이루어 나간다(조은희, 전병진, 2009; 박민정, 2012). 감각처리의 기능과 발달은 유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지만, 자폐성장애 유아들은 감각자극에 대한 비전형적인 행동 특성으로 감각정보에 과민하거나 과소하게 반응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Richard L. simpsom, 2005; 박민정, 2012). 더욱이 이러한 감각 결함이 DSM-5에서는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혹은 민감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 양상에 대한 특이한 감각적 관심”으로 자폐성장애의 진단준거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자폐성장애 유아에게 보이는 제한적 관심이나 몸 흔들기, 눈앞에서 손을 흔드는 상동행동과 같은 감각중심의 행동들이 유아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학습을 수행하는 것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중재되고 감소되어야 할 행동으로 여겨져 왔다(유성종 등, 2008; 박민정, 2012).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연구들은 감각을 추구하는 자폐성장애 유아들에게 감각추구 행동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일상의 일과 안으로 삽입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일과에서 구성된 활동들은 유아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중단하지 않고서도 감각자극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Richard L. simpsom, Brenda Smith Myles, 2008; 박민정, 2012). 그러므로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자폐성장애 유아의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서 유아의 감각을 추구하는 특성이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에 기능적 측면을 병합하여 중재를 계획할 수 있다.(Richard L. simpsom, Brenda Smith Myles, 2008; 박민정, 2012).

2. 7가지 감각체계와 행동²⁾

- 후각
- 미각
- 촉각
- 전정감각
- 고유수용감각
- 시각
- 청각

1) 후각

많은 자폐성장애 유아들이 냄새에 대해 낮은 역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냄새에 대해 매우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다. 일부 자폐성장애 유아들은 주위 냄새에 따라 활동에 참여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의 냄새를 맡고, 미술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물감 냄새를 맡기도 한다. 자폐성장애 유아들은 불쾌한 냄새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피행동을 하기도 한다. 어떤 유아는 나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던지며 거부하기도 한다. 교사는 냄새에 대한 파괴적인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아의 후각적 민감성을 평가해야 한다. 교사는 샤워 코롱이나 로션, 향수 등을 뿌리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 불쾌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냄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유아가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략들을 개발해야 한다.

2) 신현기, 이성봉 외 역,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4, p190~201.

2) 미각

자폐성장애 유아는 맛과 냄새에 대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정한 음식만을 선호하는 반응을 이끌기도 하고, 한정된 종류의 음식을 탐식하고 새로운 음식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약물, 치약 등은 특정한 맛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불쾌한 미각 경험을 했다면 유아는 그것을 피하려는 행동을 할 것이다. 반면에 미각적 경험이 유쾌했다면 이식증(異食症, pica)과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을 강박적으로 먹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3) 촉각

촉각은 가벼운 만짐, 통증, 온도, 압력들에 관한 것이다. 촉각 인식에서 높은 역치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감각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별레가 피부 위로 기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 또는 나무 울타리에 손바닥을 대고 훑어가며 달리는 것과 같은 자극추구행동을 한다. 또한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이를 느끼지 못하고 사물을 조작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만지려고 한다. 반대로 촉각 인식에서 낮은 역치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만지는 것을 싫어해 움츠려들거나, 어떤 촉감을 가진 음식물이나 옷을 피하고, 머리나 얼굴을 씻어주면 싫어하며, 손에 무엇을 묻히려 하지 않고(풀이나, 모래, 찰흙, 손가락으로 바르는 페인트 등) 물건을 다루는데 손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만 만지려 한다. 이러한 촉각방어(접촉이나 촉각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는 다른 사람이 우연히 자신을 만지게 되는 상황자체를 피하게 만든다. 또한 특정한 음식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는 불편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꺼려하게 된다.

4) 전정감각

전정감각은 머리 위치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으로, 내이(內耳)의 세반고리관에서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전정감각은 눈을 감고 있을 때도 머리가 반듯한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를 느끼는 감각이다. 이 기관에 이상이 있으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어떤 유아들은 전정 자극에 너무 민감하여, 일상적인 운동(그네를 타거나, 미끄러지기, 뛰어들기, 몸 기울이기 등)에 대해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한 충계나 경사진 길을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 것이 잘 배워지지 않고, 평평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면 위에서 걷는 것을 걱정스러워 한다. 반면, 전정 자극에 대해 높은 역치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몸을 아주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거나, 빙빙 도는 등 더욱 강한 감각 자극을 찾곤 한다. 이 경우는 전정감각계가 자극에 과소 반응을 함으로서 계속해서 전정감각계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움직이는 사물을 잡거나, 몸의 양쪽을 모두 사용하여 활동하거나, 칠판에 있는 것을 똑같이 쓰는 데에 어려움을 보인다.

5) 고유수용감각

고유수용감각은 근육이나 관절, 건(腱)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정보를 보내, 몸의 자세에 대해 느끼게 하는 감각이다. 촉각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는 데 반해, 고유수용감각은 신체 내부로부터의 정보가 뇌로 전달된다. 이 감각계가 정상으로 작동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상황 하에서 몸의 자세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거나 구부러진 곳을 매끄럽게 돌아 나가는 것 등은 이 고유수용계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또한 연필로 글씨를 쓰거나, 손가락으로 국물을 떠 마신다든지, 옷의 단추를 잠그는 등의 미세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감각이다. 이 감각에 이상이 있으면 어설프고, 잘 떨어지며, 공간상의 몸의 자

세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며,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어렸을 때는 잘 기지 않고, 단추 같은 작은 물건을 잘 다루지 못하며, 음식을 먹을 때 잘 흘리고, 새로운 운동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게 된다. 자발적 동작 또는 운동 계획도 이 감각의 기능이다. 이 능력은 서로 다른 동작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적절히 해내기 위해서는 감각 기관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6) 시각

시각에 대해 낮은 역치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시각적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각 자극의 양을 줄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거나 눈을 감아버린다. 반대로 높은 시각 역치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밝은 빛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면서 자극을 찾기도 한다. 자폐성장애 유아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할 때 시각 체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한다. 멍하니 넋놓고 바라보거나, 사물을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보는 것 같거나, 주변 시야를 사용하고 곁눈질로 물체를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폐성장애 유아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상대방의 입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 또는 방안에 있는 다른 사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7) 청각

자폐성장애 유아는 사람이 내는 소리보다는 다른 소리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말소리를 구분해 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비록 청력검사에서는 정상으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체를 보인다. 낮은 청각 역치를 가지고 있는 유아는 소리에 매우 거부적인 반응을 하고, 불편한 수준의 소리를 듣거나 이 같은 소음이 만들어질 때 쉽게 불안해한다. 이같이 소리에 매우 민감한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소리에도 방해를 받는다. 반대로 높은 청각 역치를 가지고 있는 유아는 소음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소리자극(소음)을 찾으려 하고 심지어는 너무 조용한 공간을 자신에게 적절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스스로 소음을 내기도 한다.

3. 감각자극의 균형³⁾

이상의 7가지 감각체계는 중추신경계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유아가 기능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감각정보의 통합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이끄는 생리적 반응을 만들어 낸다. 특정한 감각 정보는 반응을 일으키고 각성 상태를 이끈다. 최적의 각성 수준은 각성시키고 진정시키는 감각 정보 사이에 균형이 유지될 때 일어난다. 자폐성장애 유아들도 자신의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맞는 최적의 각성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자폐성장애 유아가 최적의 각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동행동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동행동은 자폐성장애의 증후며 제거되어야 하는 증후로 여겨졌다. 그러나 상동행동을 없애려는 시도들은 또 다른 원치 않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요즘은 상동행동과 자기자극 행동, 의식적 행동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행동이 유아가 속한 환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들을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자극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상동행동과 자기자극 행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최적의 각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3) 신현기, 이성봉 외 역,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4, p190~201.

4. 감각요구 지원4)

상동행동, 자기자극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위해 교사는 어떤 특정한 냄새, 광경, 소리, 움직임을 불편해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문제가 유치원 활동에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수정해 줄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의 감각적 요구들이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형태로 행동을 바꿔줘야 한다.

구분	유아가 민감반응을 보이는 경우: 감각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은 경우	유아가 둔감반응을 보이는 경우: 감각자극에 대한 역치가 높은 경우
후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의 사용을 피한다. 교실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다. 교실 내의 냄새를 제거한다. 쓰레기통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유아를 앉힌다. 향이 없는 비누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활용한다. 향이 강한 로션, 공기 정화제, 입술 보호제, 색연필 등을 사용한다. 박하향이나 강한 냄새가 나는 사탕(강화물)을 사용한다.
미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요리를 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의 접시가 아닌 개별 접시에 놓고 유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에 첨가하는 강한 양념을 사용한다.
촉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옷에 붙어 있는 라벨을 제거한다. 갑작스런 접촉을 피한다. 장갑을 끼게 한다. 미지근한 음료를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질감의 직물, 쿠쉬볼(섬모모양 천개의 고무줄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감촉의 공), 진흙, 점토, 고무찰흙, 꽉 쥐는 장난감, 진동이 있는 연필과 장난감, 손가락 페인팅, 찬 음료를 제공한다.
전정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구르거나, 돌거나 흔들기를 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르게 구르거나 돌거나 흔들기, 스쿠터 보드 타기, 앉아서 돌기, 체육 기구 위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방향 바꾸기, 덤프링을 하게 한다.
고유수용 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칭 하기, 압박(누르기)하기, 꽉 끼는 옷 입기, Body sock(몸 전체를 넣는 포대 같은 천) 속에 들어가기, 무게감 있는 조끼나 무릎 묶는 천 사용하기, 근육 이완하기, 무거운 물체 옮기기 등을 천천히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씹는 음식 먹기, 껌 씹기, 강한 압박으로 누르기, 무게감 있는 조끼나 무릎 묶는 천으로 강하게 묶기, 양말 사용하기, 무거운 물체 옮기기, 뛰는 게임 하기, 미니 트램펄린에서 뛰기, 체조를 한다.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장식물 수를 줄인다. 벽과 같은 색의 종이로 선반을 감싼다. 책상 주변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햇빛 가리개와 밝지 않은 불빛을 사용한다. 지나치게 강한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눈을 감는 것을 허락하고 햇빛 차단 모자의 착용을 허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에 시각자극이 많이 있도록 조정한다. 밝은 색, 대비 효과가 큰 색, 칼라 펜, 밝은 불빛, 초점 지점을 가리키는 섬광빔, 컴퓨터게임, 회전 불꽃, 회전등, 태엽으로 움직이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형,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난감 등을 사용한다.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이 많은 곳을 피하거나 소음을 없앤다. 편안한 음악을 사용한다. 식사 때 스테인리스스틸이 아닌 플라스틱 소재의 수저를 사용한다. 귀마개를 사용한다. 형광등을 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을 사용한다. 청각 연습장치 또는 FM 시스템을 활용한다. 소리 내는 또는 소음을 내는 활동을 한다.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게임을 한다. 과장된 음성의 높이와 크기를 활용한다.

4) 신현기, 이성봉 외 역,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4, p198.

III. 7가지 감각 13가지 사례

사례 1

미각/후각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싶어요

1. 행동 특성

원하는 메뉴만 먹는다.

원하는 대로 조리 된 고기 음식만 먹는다.

면을 좋아하고 빵이나 우유 등 간식을 잘 먹는 편이나 유독 밥을 싫어한다.

Case

7살 혜랑이는 간식시간에 나오는 빵, 우유 등 대부분의 간식은 스스로 잘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유독 밥을 먹기 싫어합니다. 급식으로 국수나 우동이 나오는 날이면 굳이 “혜랑아, 밥 먹자.” 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 서툰 젓가락질을 하며 스스로 먹지만 면 외에 밥과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여지없이 울음을 터트리며 먹지 않으려 합니다. 급식을 먹는 날보다 먹지 않는 날이 많아 혜랑이의 건강이 걱정스럽습니다.

2. 추정되는 원인

- 1) 음식의 씹는 소리나 냄새, 맛 등의 감각자극에 대한 거부
- 2) 특정 질감의 음식만 선호
- 3)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음식만 먹도록 허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3. 중재방안

- 1) 좋아하는 메뉴나 재료 조사하여 특정 냄새나 맛 선호도 파악하여 지도하기
 -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하는 자폐성장애 유아들이 많다. 후각이 시각이나 청각보다 주위 환경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특정 냄새나 맛을 선호하는 경우 음식물의 상태를 바꾸어 냄새나 맛을 없애거나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⁵⁾
 - 유아들의 식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유아가 주로 어떤 재료의 음식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음식재료 선호도 조사표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매달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식단표에 유아의 선호도를 표시한 후 도전할 메뉴와 선호하는 메뉴를 선정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였다.

5) 김경미, 지석연, 노종수 공역, 「감각통합 Q & A」, 정담미디어, 2003, p39.



- 유치원에서는 음식을 소재로 한 동화책을 활용하여 연계 지도하거나 요리활동을 통하여 유아에게 음식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조금씩 음식재료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정 질감의 음식만을 선호하는 경우 촉각방어 둔감화 시키기

- 특정 질감만을 선호하는 유아의 경우 촉각방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촉각방어가 있는 유아는 얼굴, 특히 입 주변의 자극에 방어적이다. 이것은 안면에 촉각자극을 느끼는 수용체가 많고,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입 주변이나 구강에 방어가 있다면 음식 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다만 특정한 감촉의 것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촉각방어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전신의 촉각방어반응의 경감이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유치원에서는 입 주변이나 구강에 손가락이나 거즈를 활용하여 구강자극을 통해 구강방어의 둔감화가 필요하다.⁶⁾
- 매일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나서 10분가량 안면 진동마사지기를 사용하여 입 주위를 마사지 해 주거나 거즈, 설압자(舌壓子)를 이용하여 직접 입 안을 마사지 해 주었다.



6) 김경미, 지석연, 노종수 공역, 「감각통합 Q & A」, 정담미디어, 2003, p39.



<안면마사지기로 입 주위를
마사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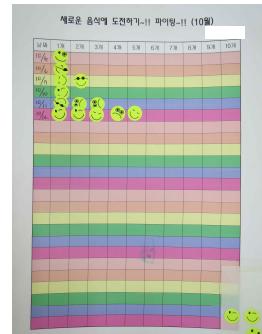
<설압자로 입 안을 마사지하는 모습>

3)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기회 제공하기

- 낯설거나 선호하지 않는 음식의 경우 음식크기를 줄여주어 음식에 대한 거부나 부담감을 줄여준다.
- 또한 매일 새로운 메뉴에 몇 개나 도전했는지 그래프로 만들어 시작적으로 성공률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는 행동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즉각 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뾰로로 도장을 손등에 찍어주어 칭찬하고 점심 식사 후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도전하는 행동을 격려하였다.



<오늘 도전한 음식수대로
그래프에 스티커 붙이는 모습>



<새로운 음식에 도전 그래프>

4. 교육적 효과

점차 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시도가 늘어나고,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할 때 촉각자극을 고려하여 유아가 선호하는 감촉의 음식으로 조리하여 유아가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사례2

미각

아무거나 먹어요

1. 행동 특성

교실에서 색종이나 고체풀, 화장지 등을 입에 넣고 씹는다.

놀이터에서 모래나 굴러다니는 나뭇잎과 가지, 비닐 등을 입에 넣고 씹는다.

Case

현서는 6살로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착석이 어려우며 사물의 움직임이나 변화에 시선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아무거나 주워서 입에 넣는 행동이에요. 학습의 선행기술도 없고, 놀이기술도 없어서 유치원 환경 자체가 유아에게는 따분하고 심심한 곳이겠지요. 유치원에서 일과 중 한차례 간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유아의 무료함을 달래기가 어려운가 봐요. 자기자극활동에 자꾸 빠지는데 그 중 하나가 책상이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나 미술 재료, 고체풀, 화장지 등을 입에 넣는 행동입니다. 특히 놀이터에서 놀 때 심해지는데 놀이터의 모래나 굴러다니는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을 입에 넣고 씹어 삼켜 순간순간이 위험해요.

2. 추정되는 원인

- 1) 구강자극 추구
- 2) 영양부족
- 3) 활동 회피나 무료함

3. 중재방안

1) 구강자극 제공하기

- 입으로 할 수 있는 불기, 뺨기, 씹기 등의 활동을 제공하였다. 매일 간식시간에 초코파이 촛불불기 10회, 뺨대로 우유 뺨기를 반복하였고, 주 3회 이상 비누방울불기와 뺨아먹는 간식(짜먹는 요구르트나 슬러시 아이스크림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씹기와 관련하여 유아가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초코 시리얼)을 일정시간마다 제공하여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는 행동이 감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음식이 아닌 것을 씹다가 뺨을 경우에도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비누방울불기>



<촛불불기>



<뺨대 뺨기>



<시리얼 제공>

2) 영양 정보 제공

- 아연 결핍이 이식증(異食症, pica)의 원인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병원에서 정확한 처방을 받아 아연을 복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였고, 아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였다. 아연은 굴, 달걀노른자, 닭 간, 구운 소고기, 조개류, 통 곡식 등에서 보충할 수 있다.



<아연이 많이 포함된 음식>

3) 수준에 적합한 흥미로운 활동 제공

- 교사의 도움과 관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유아가 좋아하는 플레이콘 놀이와 플래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활동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가 점진적으로 도움을 줄여 나갔다. 또한 자유 선택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로 색 블록, 적목, 자석블록 등을 가지고 함께 놀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양손을 움직이게 하고, 손에 있는 블록이나 적목 등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마다 호명하며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플레이콘 놀이>



<블록 놀이>

4. 교육적 효과

불기, 빨기 등의 기능이 좋아지자 씹기 위해 이물질을 입에 넣는 행동이 줄어들었으며 이물질을 먹으려고 할 때나 먹고 있는 것을 뱉을 때는 초코 시리얼(유아의 선호도가 높은 간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연이 포함된 음식(소고기, 잡곡밥, 삶은 계란 등)을 유치원에서도 시간에 맞추어 꾸준히 섭취한 것도 씹을 거리가 제공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이물질을 입에 넣는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놀이를 계속하여 유아가 이물질을 입에 넣는 행동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었다.

사례3**촉각****옷 젓는 것이 너무 싫어요****1. 행동 특성**

옷이 젓거나 더러워지는 것에 민감하여 조금이라도 젓으면 바로 갈아입는다.

옷뿐 아니라 양말 젓는 것도 싫어하여 조금만 젓어도 벗는다.

집에서는 옷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Case

5살 지훈이는 양말이나 옷이 젓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조금만 젓거나 더러워져도 벗으려 합니다. 집에서는 조금만 젓거나 더러워져도 스스로 벗고 새 양말이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집 안은 늘 여기저기 벗어 놓은 옷으로 난장판이 되며, 옷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수시로 갈아입지 못해 양말은 벗고 옷이 젓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꼭 쥐고 그곳에 신경 쓰느라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2. 추정되는 원인

1) 차가운 감촉에 대한 거부 및 어딘지 모를 차가운 느낌에 대한 불안감

- 인간은 원래 신체 전체를 싸고 있는 피부 구석구석에 자극을 느끼는 감지기(sensor)를 가지고 있는데, 몸에 붙어 있는 속옷이나 스웨터 같은 것은 보통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천이 피부에 꼭 끼는 느낌이 들거나 차게 느껴지면 손으로 만져 무엇인가 확인한다. 새 것이어서 꼭 끼는 느낌이 든다거나 물에 약간 젖었지만 적은 양이라 견디려고 인식함으로써 서서히 개의치 않게 된다. 그러나 어디가 신체에 걸리는지, 어디가 차가운지 알 수 없다면 불안감은 증가한다.
- 한 순간의 차가움을 ‘앗, 차가워, 싫다.’라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와 ‘차가워, 무엇일까? 어디일까?’로 구별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발달상으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구별적인, 이성적인 반응이 생김으로써, 불안감이나 거부감과 같은 정서적 또는 도피적인 반응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발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위화감이 정서적인 반응을 조장해서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⁷⁾

2) 행동패턴의 고착화

- ‘옷이 젖었다. → 갈아입어야 한다.’ 행동패턴이 고착되어 조금만 젖어도 금방 갈아입는 유아가 있다. 자폐성 장애 유아에게도 이런 양상이 유독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어떤 때에, 라고 하는 조건이 이해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보여 진다.

7) 김경미, 지석연, 노종수 공역, 「감각통합 Q & A」, 정담미디어, 2003, p33.

3. 중재방안

- 1)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젖었는지 확인시키고 “괜찮아.”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 유아가 양말이 젖어서 벗으려 할 때 “지훈아, 어디 젖었지?” 하며 같이 젖은 부분을 찾고, “발바닥이 조금 젖었구나.”라고 얼마나 젖었는지 이야기 한 후 “이 정도는 새 양말로 갈아 신지 않아도 되겠다. 괜찮아.”라고 말해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이후 지훈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전이시켜 젖은 양말에서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 2)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촉감각 둔감화 시키기
 - 보통의 많은 유아들이 물, 모래, 점토 등의 감촉에 접촉된 놀이를 하며 닿는 것 자체를 즐긴다. 반죽을 하거나 잡기, 모양을 만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놀이를 통해 촉감각의 경험을 쌓게 되고, 나중에는 손에 쥔 딱딱한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모양이나 재질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발달초기에 여러 촉감각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촉감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갗에 닿는 감촉을 과민하게 느끼거나 신체의 이미지가 불충분해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안한 생각이나 공포감이 앞서기 때문에 방어반응이나 회피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재미있구나!」라는 놀이로 변화하지 않으면 촉감각에 대한 놀이발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스스로 의욕적으로 참가하여 불안감이 호기심으로 변화되고, 그때 거부적으로 느꼈던 자극이 실제로 무해하다는 것을 알고 좀 더 광범위한 놀이나 지적인 놀이로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민한 유아의 경우 유아가 다른 놀이를 즐겁게 하면서 촉각자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⁸⁾
 - 물총놀이, 모래놀이, 밀가루풀 놀이 등 다양한 촉각 활동을 통해 유아의 예민한 감각을 둔감화 시키려 하였으며, 지훈이의 경우 매일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미술영역에서 점토 놀이를 10분씩 꾸준히 놀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매일 점토놀이 하는 모습>



<젖은 모래 놀이>

- 3)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과 친숙해지고 물과 관련된 즐거운 추억 만들어 주기
 - 물과 관련된 동화듣기, 바깥놀이 시간에 물 스프레이 뿌리기, 물에 종이배 띠우기, 마블링

8) 김경미, 지석연, 노종수 공역, 「감각통합 Q & A」, 정담미디어, 2003, p35.

물감 놀이, 얼음 그림, 색물감 만들기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물에 대한 좋은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과 친숙해지기 - 물감놀이>

- 이처럼 유아가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씩 경험하게 도와줌으로써 기분 좋고 즐거운 경험이 쌓여 「앗, 차가워, 싫다」라는 반응보다 「차갑지만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교육적 효과

-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 “괜찮아.” 말을 하며 젖은 부분을 문지르긴 하지만 무조건 벗어 버리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젖은 옷→불쾌감’이 아닌 젖은 옷도 즐거운 기억이 생겨서 그런지 옷이 더러워졌을 때나 젖었을 때 지훈이의 반응도 예전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활동 거부가 눈에 띄게 줄고 즐겁게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사례4

촉각

입에 물건을 넣고 있거나 손을 빨아요

1. 행동 특성

입에 항상 물건을 넣고 있으려고 한다.

물건을 입에 넣지 못하면 손을 빨거나 신발장, 사물함, 책상 등의 물건을 빨려고 해서 위생과 안전이 걱정스럽다.

Case

6세 강준이는 항상 입에 무엇인가를 넣으려고 해요. 장난감 자동차 바퀴, 테이프 조각, 종잇조각, 음식 모형, 색연필이나 사인펜, 풀 등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을 입에 넣지요. 물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손을 빠는 행동을 보이거나 가구, 가전제품 등에 입을 대고 빨아요. 무언가를 항상 입에 넣고 있으려고 해서 작은 조각을 삼키지는 않을까 더러운 물건을 입에 넣는 건 아닐까 물건을 입에 넣은 채 넘어지진 않을까... 항상 강준이의 건강이 걱정스러워요.

2. 추정되는 원인

- 1) 영아기의 구강 탐색과정이 고착되어 있어 입에 물건이 있는 자극을 즐기는 것 같음
- 2)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임

3. 중재방안

- 1) 치아발육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빨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나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장난감을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치아발육기를 제공해 주었다. 처음에는 치아발육기에 관심을 갖고 치아발육기를 주로 빨았으나 점차 다양한 장난감을 빨려고 해서 치아발육기만이 아닌 다양한 장난감을 입에 넣었다. 또한 치발기가 영아용으로 시판되는 것이 많아 유아들의 빠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다.



<여러 종류의 치아발육기>

2) 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촉진

- 심심하거나 피곤하여 무기력할 때 손이나 물건을 빠는 행동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손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사가 함께 손을 이용해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놀이를 하도록 할 때는 손이나 물건을 빨지 못하였으며, 점차 유아 스스로 놀이를 함으로써 물건을 빠는 행동이 감소되었다.

3) 주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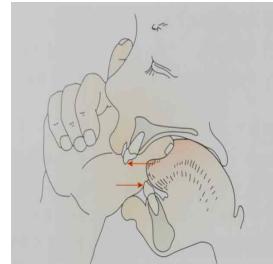
- 손이나 물건을 빠는 행동은 유아가 발달하면서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므로 손이나 물건을 빨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지 말고 주위의 물건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블록 조각, 자동차 바퀴, 고무줄이나 실 등을 빠는 것을 좋아하는 해당 유아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조각으로 된 물건을 치우고, 플라스틱 장난감은 수시로 세척하며, 장난감을 살 때 작은 부품이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으로 고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부모님께도 끈이 달린 옷이나 장식이 과한 옷을 입히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4) 보조기와 약품 사용

- 영아기에 손이나 발, 물건 등을 빠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지만 유아가 되어도 물건을 빨거나 손을 빠는 행동은 위생과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손이나 물건을 지속적으로 빨면 이에 문제가 생겨 부정교합 등 구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에 굳은살이 생겨 손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은 살 있는 손가락>



<손 빨기로 인한 부정교합>

또한 작은 물체를 입에 넣거나 위생상 좋지 않은 물건을 입에 넣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아기의 손 빨기 행동을 소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유아에게 설명하고 강화하며 손 빠는 행동을 스스로 고치도록 하거나 손에 반창고나 밴드를 붙이는 방법, 보조기를 사용하는 방법, 쓴 약을 발라주는 방법 등을 사용해 보라고 권한다.

- 해당 유아에게 손에 밴드를 붙여 주거나 보조기를 끼워주었는데 밴드와 보조기를 입으로 뜯어 씹는 경우가 많아 손 빨기 행동이나 입에 물건을 넣는 행동을 감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중단하였으며, 쓴 약을 손에 발라주는 방법은 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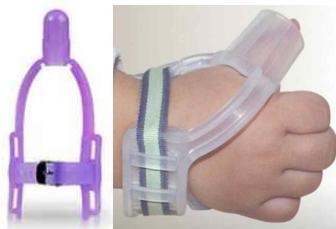
4. 교육적 효과

- 손이나 물건을 빼는 행동이 소거되지 않아서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상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손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며, 블록 놀이, 자동차 놀이 등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제공하여 유아가 심심해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무료할 때 물건 빼는 행동을 감소할 수 있었다.

Tip

손빨기 방지

손 빨기 방지를 위한 교정기와 손 빨기 방지약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손 빨기 교정기>



<손 빨기 방지약>

사례5

전정감각

빙글빙글 제자리 돌기는 내가 1등**1. 행동 특성**

강당이나 놀이터 등 돌 수 있는 공간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빙글빙글 돈다.

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몸을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Case

민성이는 7살로 착석이 어렵고 언제 어디서든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도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착석을 시키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해요. 어지러워하며 주저앉기도 하지만 이런 행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은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너무 세게 움직이는 바람에 의자가 넘어져 다칠 뻔하기도 했고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빙글빙글 돌다가 부딪히기도 했어요. 빙글빙글 도는 행동도 심하지만, 머리를 흔들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동도 심해서 활동에 집중하거나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2. 추정되는 원인

1) 전정감각의 자극 추구

3. 중재방안

1) 트램펄린 놀이

-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를 즐기게 하고 과제에 응해서 뛰어오를 수 있게 하였다. 트램펄린 놀이를 좋아하여 격렬하게 뛰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뛰기를 요구하더라도 탬버린 두드리는 소리에 맞추어서 뛰거나 교사의 리듬에 맞추어 함께 뛰도록 하였다. 유아가 탬버린 소리에 맞추어서 뛰도록 하기 위해 처음에는 유아의 뛰는 속도에 맞추어 탬버린을 쳐주다가 점차적으로 탬버린의 소리를 듣고 뛰도록 인식시켰다. 탬버린 소리가 익숙해지면 천정에 풍선을 매달아 두고 신호에 맞추어 높이 뛰면서 풍선을 치도록 하였다.



<신호 듣고 뛰기 >



<신호 듣고 풍선치기>

2) 평균대와 유니바 놀이

- 한참을 빙글빙글 돌고도 어지러워하지 않고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균형 감각이 우수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유아에게 한발 서기를 하도록 하였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하여 평균대 걷기를 하였는데 단순히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발끝이나 뒤크치로 걷게 하거나 신호에 맞추어 걷게 하였다. 장애물을 두어 건너가게 하기도 하였고, 유니바 위를 맨발로 걸어보게도 하였다.



<평균대 걷기>



<유니바 건너기>

4. 교육적 효과

빙글빙글 도는 행동과 머리를 흔들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느려진 효과는 있었다. 중재 전에는 교사의 중단 신호를 잘 듣지 못하고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재 후에는 특정 신호(탬버린 소리나 호명하는 소리)에도 행동을 금방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회전기구나 그네 등의 놀이도 병행한다면 전정감각자극이 충족되어 행동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6**전정감각****움직이는 게 싫고 무서워요****1. 행동 특성**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직선으로 걷거나 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부딪힌다.
 고르지 못한 길이나 경사가 있는 곳을 갈 때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
 놀이 구조물을 이용하는데 두려움을 보인다.

Case

7살 민주는 보통 여느 아이들과 달라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걸 무척 힘들어해요. 항상 어딘가에 기대거나 축 쳐져서 누워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죠. 뛰는 것도 직선으로 뛰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의 경사가 있는 길에서도 주저앉지요. 평평하지 않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네나 트램펄린 뛰는 것도 어려워해요. 미끄럼틀 구조물에 올라가는 것과 타고 내려오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민주는 능동적으로 놀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요.

2. 추정되는 원인

- 1) 전정 감각의 예민함
- 2) 실행 계획 능력의 어려움

3. 중재방안

- 1) 전정감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제공하기

-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 있는 것을 어려워하고 항상 기대거나 축 쳐져 있는 유아를 위해 트램펄린 활동을 제공하였다. 교사와 함께 누워서 바운드 느끼기-앉은 자세로 교사의 손을 잡고 함께 바운드하기-일어나서 교사의 손을 잡고 트램펄린 걷기-일어선 채로 교사의 손을 잡고 바운드하기-일어선 채로 스스로 바운드하기를 순환하였다.
- 주3회, 매 회 20분간 실시하였고, 트램펄린 위에서 몸이 뒤로 기우는 것에 특별히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서 유아가 준비 될 때까지 이런 움직임은 시도하지 않았으며 트램펄린이 출렁이는 정도의 바운드를 제공하였다. 트램펄린의 바운드 느낌을 너무 두려워할 때는 가위바위보나, 볼풀공 던지기를 하면서 유아의 관심을 돌리기도 하였다.



2) 실행 계획 능력 형성하기

- 유아가 스스로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언어적 촉진을 하였고 처음 몇 번은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어 유아가 놀이 구조물의 공간을 이해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계단 오르내리기, 경사로 이동하기, 고르지 못한 길(잔디밭, 흙길, 모래밭 등)로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의 놀이구조물 이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를 위해 교내의 모래밭에 설치 된 놀이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매일 점심을 먹은 후 20분 동안 모래밭을 지나 놀이 구조물을 통과하는 놀이를 하였다. 계단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기, 해먹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기, 암벽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기 순으로 순환하였다.



4. 교육적 효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착석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몸을 기대거나 드러눕는 행동도 사라졌다. 몸의 균형을 잡고 바른 자세로 이동할 수 있으며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놀이 구조물을 이용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선호하는 놀이 구조물을 스스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정감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운동의 실행과 관련된 순서를 반복하여 준다면 유아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7

고유수용계

흐느적흐느적 걷고, 누워 있는 게 좋아요**1. 행동 특성**

걸을 때 휘청 휘청, 흐느적흐느적 걷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몸을 앞으로 숙인다. 놀이시간에는 바닥에 누워서 놀이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책상에 엎드려 있다.

Case

6살 연서가 유치원에 들어올 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선생님은 연서의 손을 얼른 잡아줍니다. 연서는 휘청휘청 걸어 유치원 현관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고 교실까지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아침 모임 시간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금세 머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몸을 숙이고는 의자 밑으로 엉덩이를 쭉 내려 바닥에 누워 버려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좋아하는 자동차를 갖고 옆으로 누워 자동차를 굴리며 혼자 논답니다.

연서는 왜 흐느적거리며 누워 있는 걸 좋아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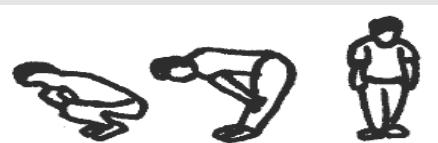
2. 추정되는 원인

- 1) 기운이 없거나 몸에 힘이 없음
- 2) 고유수용계 감각이 부족하여 감각통합의 어려움

3. 중재방안

1) 율동, 춤, 맨손 체조 지도

- 자발적인 균육사용 및 관절 사용의 촉진을 위해 간단한 동작을 익히도록 팔을 잡고 지도 한 뒤 유아가 동작을 따라하도록 하여 스스로 몸을 조절하고, 몸에 힘을 주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 교사와 함께 마주보고 손뼉 치기, 팔짱 끼고 돌기, 무릎치고 손뼉 치기의 동작으로 춤을 추며 몸에 힘을 주도록 지도 하였다.
- 국민체조 중 다리운동과 옆구리운동을 지도하여 아침 모임 전, 이야기 나누기 전, 점심 식사 후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리 운동



옆구리운동

<맨손체조>

2) 스쿠터 보드 활동

- 신체 전체에 있는 각각의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과 위치를 알게 하는 신경을 발달시켜 몸 으로부터 정보를 알게 하기 위해 교사가 스쿠터 보드를 한 방향으로 수 회 돌린 후 유아가 일어나서 교사와 손뼉 치기를 한다.
- 스쿠터 보드에 끈을 달고 벽면에 반대편 끈을 묶어 고정한 후 유아가 스쿠터 보드에 앉아 끈을 당겨 벽까지 이동하는 활동을 하였다.
- 스쿠터 보드를 가정에 대여하여 가정과 유치원에서 동일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감각 통합을 촉진시킨다.



3) 손수레 걷기

- 유아가 옆드린 후 팔을 지면에 닿게 하고 상체를 일으킨 후 교사가 양 다리를 잡아 공중에 띠운다. 유아가 팔로 걸을 수 있도록 교사는 양 다리를 잡고 전진한다.
- 숫자를 1~10까지 세며 2~3세트를 대그룹 이야기 나누기 활동 전에 수행한다.
-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도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손수레 걷기>

4. 교육적 효과

울동, 춤, 맨손 체조 활동은 유아의 자발성이 중요한데, 유아의 컨디션에 따라 활동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맨손체조 활동을 8회씩 3~5세트 정도 수행 후에는 걸을 때 이전에 비해 안정적이었다. 스쿠터 보드와 손수레 걷기 수행 후에는 착석 시 자세유지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졌으며 1시간 정도 자세가 안정적이었다.

사례8**고유수용계****까치발로 걷거나 뛰어요****1. 행동 특성**

걷거나 뛸 때 항상 까치발을 하고 이동한다.

Case

7살 이경이는 까치발로 걷거나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른이나 친구의 손을 잡고 걸을 때나 빨리 달릴 때에도 항상 까치발로 다니지요. 까치발로 걷다보면 신발이나 실내화가 자주 벗겨져 신발을 고쳐 신느라 여러 번 멈춰야 하기도 하고, 쉽게 피로해져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2. 추정되는 원인

1) 바빈스키 반사가 사라지지 않은 경우

- 바빈스키 반사에 의해 발바닥이 예민해져 있으면 까치발로 걸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바빈스키 반사란 발바닥을 간질이면 발가락을 움츠리는 성인과는 달리 발가락을 짹펴는 반사로 대부분 생후 1년 이전에 사라지며 영아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바빈스키 반사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발의 굴곡이 생겨 몸 앞쪽의 근육들을 긴장시키고 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약하게 한다. 결국 몸의 앞쪽 근육과 몸의 뒤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며 자세가 구부정해져서 나빠지고, 걷는 모습이나 뛰는 모습이 어눌하고 이상해진다. 바빈스키 반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운동치료나 감각치료를 해도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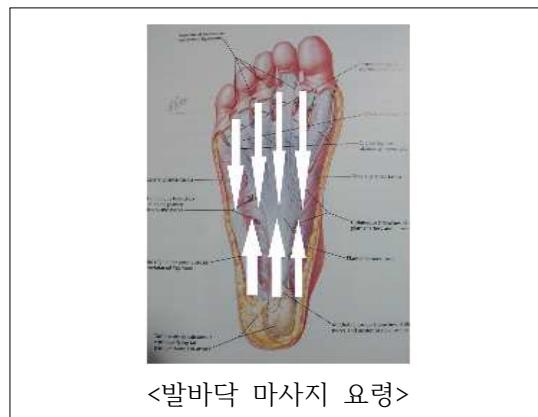
2) 까치발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

- 걷거나 뛸 때 까치발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것이 불편한 것은 아닐지 관찰해보았다. 가끔 까치발을 하지 않고 걷거나 서 있는 경우가 있지만 원하는 장소에 가기 위해 빨리 뛸 때와 교사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대부분 까치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유아라 어느 정도 불편해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것보다 까치발을 선호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능한 까치발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중재방안

1) 발바닥 마사지하기

- 까치발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는 발바닥을 마사지 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발가락과 발뒤꿈치 방향에서 중간방향으로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서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발바닥을 마사지 해 주었다.



- 처음에는 아픈지 발에 힘을 주며 마사지를 받기 싫어하다가 점차 마사지를 즐기게 되어 마주 앉으면 발을 내밀며 마사지를 해 달라는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한다.



2) 까치발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

-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까치발 보다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경우가 더 많아 가능한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실로 이동할 때에 엘리베이터 보다는 가능한 계단을 이용하고 놀이터에서 놀이할 때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고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였다.



-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도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경사로를 올라가고 내려오는 활동을 해 보았다.



<경사로를 올라가는 모습>

- 뒤로 걷기 활동을 하면 유아의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되므로 바깥놀이 시간이나 이동을 할 때 손을 잡아 주며 뒤로 걷도록 지도하였다.

4. 교육적 효과

입학 할 당시 까치발을 하며 걸어 실내화나 운동화가 자주 벗겨져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에도 까치발을 걷기는 하지만 까치발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디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까치발의 높이도 낮아져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가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Tip

까치발 교정을 도와줘요



<까치발 교정 깔창>



<까치발 발목 보조기>

사례9**시각****나는 그림으로 이해해요****1. 행동 특성**

정해진 하루 일과에서 변화가 생기면 정해진 일과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

변화무상한 일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자신의 교실 외에 다른 활동 교실로 이동하기 힘들어한다.

말로 어떤 것을 설명하면 못 들은 체 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Case

유치원에 등원한 7살 하은이는 어제 선생님과 하기로 한 바깥놀이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등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선생님은 바깥놀이를 못하게 된 이유를 하은이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를 만져보게도 하고 이해시키려 애를 쓰지만 소용없습니다. 하은이는 계속 바깥놀이를 나가자며 떼를 쓰고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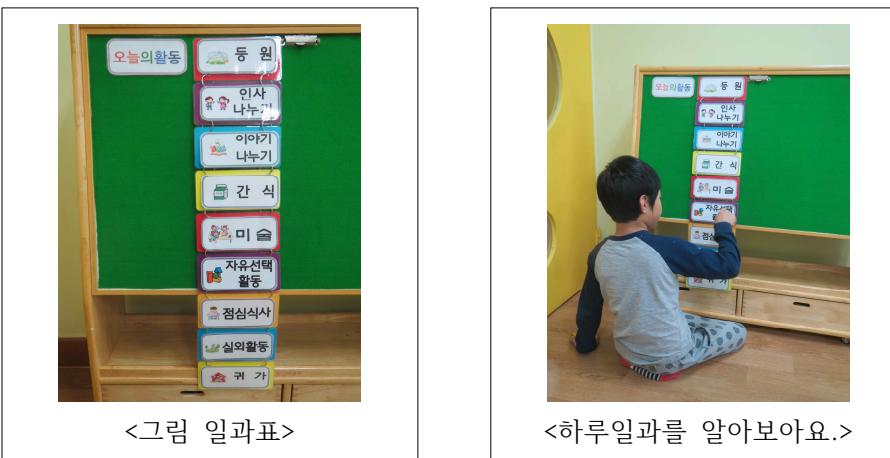
2. 추정되는 원인

- 1) 갑작스러운 일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유아가 이해하기 힘듦
- 2) 예상 못한 갑작스러운 일과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중재방안

- 1) 하루 일과를 시각화하여 그림일과표로 하루 일과를 구조화시키기
 - 그림일과표란 유아의 하루 일과를 구조화하고, 이를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스케줄표로써 유아가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한 카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⁹⁾
 -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자폐유아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림은 매우 훌륭한 의사소통 도구이다. 그림은 단어에 비해 해석이 쉬우며, 설명하고자 하는 활동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동기를 부여하고 유아의 관심을 끌 수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유아를 포함한 자폐스펙트럼에 속하는 모든 유아들에게 적합하다. 그림은 유아가 선택과 조절을 연습하는 데 물리적으로 도움을 준다. 유아는 그림을 보면서 다음 과제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다. 주의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매일 아침 유치원에 등원하면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림일과표를 보며 유치원에서의 오늘 하루 일과를 이야기 해 주었다. 그림일과표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림과 글씨를 함께 사용하여 유아가 그림으로도 어떤 활동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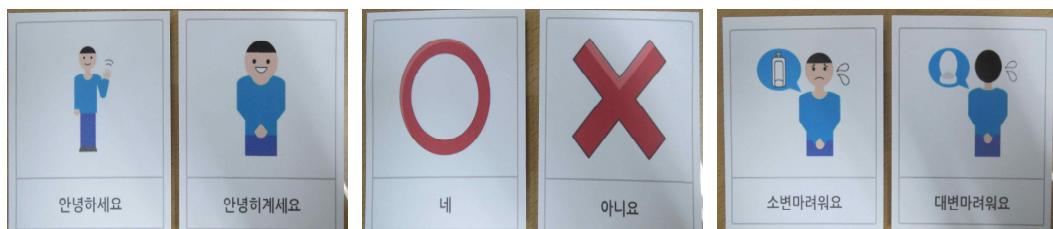
9) Julia Moor,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시그마프레스, 2008.



Tip

그림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

그림일과표와 같이 그림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장애 유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유아들이 「나의 AAC」 앱을 활용하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AAC」 PC 버전을 활용하면 교사도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카드를 출력하여 교실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



2) 하루 변화가 있을 때 기존에 있던 일과를 떼어 ‘안녕봉투’에 버리고 새로운 일과 붙이기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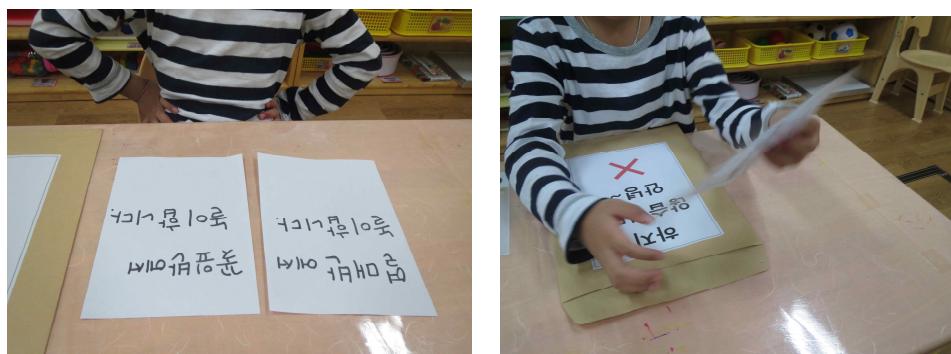
- 아침에 알려준 하루일과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기존에 있던 일과를 떼어내어 일명 ‘안녕봉투’에 넣어 하지 않는 활동임을 알고 새로운 일과를 붙여 봄으로써 시각적으로 하루일과가 변화되었음을 유아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해 주었다.



10) 토베 케이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주)자음과 모음, 2003.

Tip**안녕(good-bye) 봉투를 활용해요**

‘안녕 봉투’는 소지 가능하므로 평소 교사가 가지고 다니며 자폐 유아들과 의사소통할 경우에 적절하게 활용 가능하답니다. 자폐 유아들에게 선택권을 줄 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유아가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활동을 ‘안녕 봉투’에 넣음으로써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지요.



4. 교육적 효과

그림일과표를 활용하여 유아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갑작스러운 일과 변화가 있을 때 기존의 그림일과표의 일과를 떼어내어 일명 ‘안녕 봉투’에 넣고 새로운 일과를 붙여봄으로써 변화된 일과를 말로 설명할 때 보다 투정부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자폐성장애 유아에게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기만 한다면....¹¹⁾

11) 토베 케이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주)자음과 모음, 2003.

사례 10

시각

항상 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이 싫어요

1. 행동 특성

블록만 가지고 논다.

블록을 항상 일렬로 늘어트려 놀며 다른 사람이 블록놀이를 방해하거나 함께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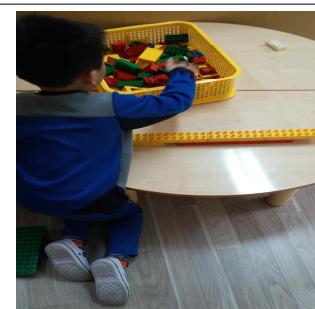
7살 남자아이 상수는 오늘도 블록 놀이에 한창입니다. 교사가 다른 장난감을 줘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블록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블록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놀지 않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합니다. 블록을 2단으로 쌓아 일렬로 길게 늘어뜨리며 놀기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교사나 친구가 블록을 만지려고 하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만지지 못하도록 밀치고 다가올까 눈치를 살피며 경계를 해요.

2. 추정되는 원인

- 1) 자신의 놀이 방법에 대한 고집
- 2)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 3) 익숙한 상황에 집착해서 안정을 찾고자 함

3. 중재방안

- 1) 놀이 활동에 도움주기
- 블록의 개수가 충분치 않게 제공한 후 상수가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블록을 찾을 때 블록을 하나씩 주니 옆에 있어도 밀어 내지 않았다.



<블록놀이모습>

2) 놀이 활동에 참여하기

- 상수가 블록을 쌓는 방법과 동일하게 약간 떨어진 공간에서 교사도 블록을 쌓다가 일부러 떨어트려 블록의 모양이 흐트러지게 했다. 블록이 무너지니 얼른 다가와 블록을 다시 세우고 교사가 세운 블록들 옆에 다시 연결해서 블록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3) 놀이 활동에 변화주기

- 블록 놀이를 하는 중 블록이 흐트러졌을 때 교사가 토끼 손인형을 끼고 ‘어, 상수야 블록이 무너졌구나. 내가 도와줄게.’하며 동물 목소리를 흉내 내며 블록을 쌓아주었다.
- 길게 늘어트려 쌓은 블록의 앞에 사람모형의 블록을 끼우고 ‘칙칙폭폭’ 기차소리를 내며 놀 이를 했더니 상수가 흥미 있어 하는 듯 하여 블록에 작은 모형 과일 등을 하나씩 올려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4. 교육적 효과

처음에는 블록을 쌓는 자신의 공간에 교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어내고 같은 놀이방법만 되풀이하고 다른 사람의 개입을 원치 않더니 의도적으로 놀이 활동에 개입하고 놀이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니 조금씩 놀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놀이 방법에 대한 집착이 감소하였다.

Tip

자폐성장애 유아의 행동중재 전략

자폐성장애 유아들은 특정 사물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사물을 부적절하게 조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아닌 경우에는 이들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예컨대, 공룡인형을 특정형태로 유지하여 일렬로 쌓아 올리는 행위)을 볼 수 있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줄을 잡아당기는 인형놀이)을 볼 수 있습니다(Boucher, 1999; Lewis & Boucher, 1995; Wolfberg, 2003). 이들이 보이는 탐색적 행동은 마치 어린 아동의 전형적 발달과정(Baranek et al., 2005)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이들 행동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 오히려 특이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를 위한 중재는 행동전략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적절한 대상물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효과적입니다(Stahmer, Ingersol, & Carter, 2003). 이들 전략에는 구분시도훈련(discrete trial training),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aining), 적절한 대상물 놀이에 대한 차별적 강화, 그리고 비디오 모델링이 포함됩니다.¹²⁾

12) 신현기, 이성봉 외 역 「자폐증주성장애 장애 아동 교육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9, p345.

사례11

시각

선풍기와 에어컨을 껐다, 켰다하는 게 좋아요

1. 행동 특성

집이나 유치원에서 선풍기를 끄고 켜기를 반복한다.

일정시간동안 수십 회 반복하고 교사나 부모님이 제재하면 잠시 행동을 멈추지만 다시 끄고 켜기를 시작한다.

Case

7세 준성이는 오늘도 교실에 돌아가는 선풍기를 쳐다보다 곧 선풍기를 끕니다. 그리고 천천히 멈추는 선풍기 날개를 보다가 다시 선풍기를 켭니다. 서서히 빨라지는 선풍기를 쳐다보더니 또 선풍기를 끄려고 선풍기 스위치 쪽으로 다가갑니다. 집에서는 에어컨 앞에 서서 에어컨 날개의 움직임을 보려고 에어컨 앞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에어컨을 켜고 끄기를 반복해요. 선풍기와 에어컨을 번갈아 켜고 끈답니다. 엄마와 선생님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약속도 해보지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2. 추정되는 원인

- 1) 선풍기나 에어컨의 스위치 조작의 즐거움
- 2) 선풍기 돌아가는 팬의 움직임 보기

3. 중재방안

- 1) 스위치 교구 제공

- 선풍기 스위치 조작의 즐거움을 대체하는 활동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다양한 교구를 제공하였다.
- 자유선택활동 시간, 점심시간 후에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교구활동을 강화물로 활용 하였다.



<스위치로 조작하는 소리 나는 책과 교구>

2) 에어컨, 선풍기 그림 토큰 & 횟수를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각 판 활용

- 유아에게 에어컨, 선풍기 그림 토큰과 횟수를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각 판을 설명하고 약속을 정한다.
- 하루에 선풣기와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 토큰을 주고, 조작하고 싶은 시간에 토큰을 판에 붙이고 조작하였으며, 강화물로도 토큰을 활용하였다.
- 동일한 에어컨, 선풣기 그림 토큰과 횟수를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각 판을 제작하여 가정과 연계하였다.



<에어컨, 선풣기 그림 토큰 & 횟수를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각 판 >

4. 교육적 효과

스위치 교구를 활용하는 활동은 아동이 흥미를 보이지 않아 대체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에어컨, 선풣기 그림 토큰과 횟수를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각 판을 만들어 교실에서 사용하였다. 유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시간을 정하므로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컸으며, 교사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활동 빈도 조절도 매우 잘 되었다. 에어컨, 선풣기 그림 토큰과 횟수를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각 판을 유아와 함께 만들어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더니 가정에서도 자기만족과 조절능력이 높아지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12

청각

시끄러운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1. 행동 특성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귀를 막으며 짜증을 낸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동요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소리가 나오면 귀를 막고 교사의 손을 끌어 마우스로 가져가 컴퓨터를 끄라고 요구한다.

Case

오늘은 강당에서 애국조회를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되면 어김없이 7살 재호는 ‘강당에 가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울기 시작하지요. 친구들과 손을 잡고 겨우 강당에 들어가서는 계속 귀를 막으며 울음을 그칠 줄 모른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으로 현장학습을 갔어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 광고방송이 나오는 내내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도 귀를 막고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가끔은 화면을 힐끔힐끔 보더니 우는 소리를 그치고 귀를 막았다 떼었다 하며 영화를 집중하여 보더니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유치원에 와서도 영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2. 추정되는 원인

- 1) 큰 마이크 소리
- 2) 자신이 싫어하는 소리
- 3) 사람들 많은 큰 장소

3. 중재방안

- 1) 소음을 줄여주는 헤드셋 또는 귀구멍에 넣는 귀마개 및 모자가 달린 옷 입기
 - 강당에 들어가기 전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하게 한다.
 - 헤드셋을 준비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귀마개나 모자가 달린 옷의 모자를 이용해 큰 소리를 차단 시켜 준다.



<헤드셋>



<귀마개>



<모자가 달린 옷>

2)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주기

- 컴퓨터 애니메이션 노래를 듣고 귀를 막고 있을 때 자신의 원하는 노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교육적 효과

- 헤드셋이나 귀마개는 착용감이 싫어서 인지 강하게 거부하였다. 귀를 막으면 소리 내어 울 때 안아 주며 ‘マイ크 소리가 커서 귀가 아프구나. 좀 있으면 팬찮아질 거야’하면 안기면서 안정을 찾고 우는 모습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모자가 달린 윗옷은 큰 소리를 많이 차단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유아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귀를 막거나 우는 모습일 줄어들었다.
- 컴퓨터 애니메이션 노래를 켜 줄 때 울면 ‘○○가 골라봐. 어떤 거 듣고 싶어?’하면 손으로 원하는 것을 가리키고 원하는 노래를 켜 줄때는 귀를 막지 않고 자신이 하던 놀이에 집중을 하였다.

사례13

청각

나는 들리는 대로 이해해요

1. 행동 특성

원하는 것을 말로 이야기 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잘 이해하는 듯 보이나, 종종 명한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반응한다.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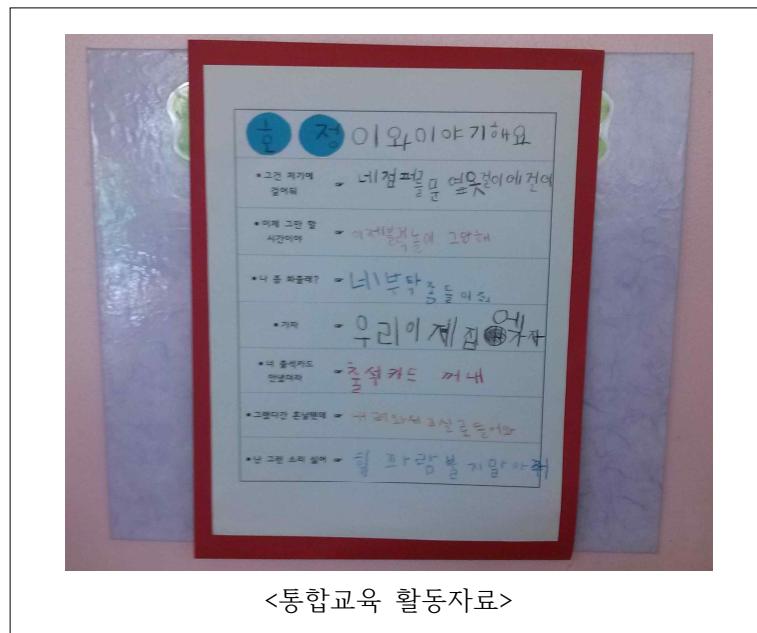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에 새로 입학한 7세 호정이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 호정이 빨간색 사인펜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간식시간이나 급식시간에는 “선생님 호정이 김치 안 먹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호정아. 출석카드 꺼내서 스티커 여기에 붙여.”라고 말하면 잘 이해하고 활동합니다. 하지만 종종 선생님이 “너 출석 카드 안냈더라?”라고 말하거나 친구들이 “그것 좀 줄래?”라고 말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거나 선생님이 말한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호정이가 아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2. 추정되는 원인

- 1) 비선후 활동에 대한 회피
- 2) 상대의 언어가 이해되지 않음

3. 중재방안

- 1) 비선후 활동 제공
 - 과제 회피를 위한 반응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활동을 연속하여 제공하였다. 호정이는 다른 방법으로 짜증내기, “호정이 이거 안 해.”라고 말하기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과제 회피를 위한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 2) 정확하고 구체적인 말로 바꿔 표현하기
 - 호정이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관찰하여 상대방의 말을 표집 하였다.
 - 호정이는 구체적인 언어를 잘 이해했으며 생략이 많이 되었거나, 비유적이거나 반어법을 사용한 언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 통합교육시간에 친구들에게 호정이가 잘 이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로 바꾸기 활동을 하고 친구들이 작성한 표현을 통합학급에 게시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유치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호정이에게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연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4. 교육적 효과

비선호 활동에 대한 표현 방법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새로 입학한 호정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간혹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통합교육활동 시간에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활동과 교사 및 교직원에게 연수 자료를 배부한 활동은 호정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Tip ————— 자폐성장애 유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적절한 표현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 :(이렇게 말해주세요

관용구와 진부한 표현들

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 난 너를 무척 사랑해.

간이 콩알만해졌다. ⇒ 깜짝 놀랐다.

눈앞이 캄캄하구나. ⇒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너무 바쁘다.

구체적이지 못한 지시

교사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자폐성장애 유아들이 그 뜻을 해석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건 저기에 걸어둬. ⇒ 곁옷을 문 옆의 옷걸이에 걸어둬.

이제 그만 할 시간이야. ⇒ 이제 기차놀이를 그만 하거라.

나 좀 봐줄래? ⇒ 내 부탁 좀 들어 줘.

가자. ⇒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함축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도 지시나 부탁이 아닌 사실의 진술로 이해한다. 유아가 추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지, 유아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네 서랍이 엉망이구나. ⇒ 서랍에 색연필 넣어.

너 출석카드 안냈더라. ⇒ 출석카드 꺼내렴.

그랬다간 혼날 텐데... ⇒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하지 말고 교실로 들어와.

난 그런 소리 싫어. ⇒ 휘파람 불지 말아줘.

IV. 자료를 나누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자폐성장애 유아들…
어르고 달래고 혼내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함에 항상 미안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또 다시 어르고 달래고 혼내는 생활이 반복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번 연구를 통해 자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빙빙 돌거나 손을 흔드는 상동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심심함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라며 자폐성장애 유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자폐성장애 유아의 행동을 모두 감각의 특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무조건 허용할 수도 없겠지만, 무작정 문제행동이여서 제지해야한다고 생각했던 예전과는 달리 행동에 대한 원인과 중재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할 것 같다.

아직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더욱 고민하고 연구해야겠지만 자폐성장애 유아의 입장을 헤아리며 좀 더 긍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가 되리라 다짐해 본다.



저도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되면 손톱을 물어뜯는데요. 그런 집중도 잘 되고 안정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상동행동이나 갑작추구적인 행동이 그렇지 않을까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데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행동의 이유를 생각하며 교육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아는 막걸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제 교실 상황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좀 더 예민하게 관찰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입해야겠다고 다짐해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라고 나를 자신했었는데 나의 착각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다가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도록 노력할거예요.



자폐유아의 민감한 갑작과 선호하는 사물이나 느낌의 정도가 하루 종에도 여러 번 바뀌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자극들이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상동행동은 문제행동이다’라는 생각을 깨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나를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동들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각자 개성있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겠어요.



지금까지 해 였던 교육방법이 정답인 듯 고집하진 않았나 반성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3 초등학교 “학습과 생활”

CONTENTS

목 차

I. 학습지도	69
사례 1) 난 무조건 1등!!	70
사례 2)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72
사례 3) 동요로 배워요	74
사례 4) 무조건 “몰라”, “싫어”라고 말해요	76
사례 5) 반향어를 대하는 자세	78
사례 6) 보여 주세요	80
사례 7) 스스로 말하고 행동 해봐요	82
사례 8) 종잇조각을 훔들어요	84
사례 9)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86
사례 10) 한글지도 어려워요	88
사례 11)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90
II. 쉬어가는 코너	93
III. 생활지도	97
사례 1) 싫어하는 소리도 참을 수 있어요	98
사례 2) 올랄레 꿀랄레	100
사례 3) 천둥소리가 정말 싫어요	102
사례 4) 피아노가 좋아요!	104
사례 5) 먹기 싫어요!!	106
사례 6) 안 먹어!	108
사례 7)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요	110
사례 8) 도리도리~	112
사례 9) 등교하는 게 불만이에요!	114
사례 10) 시각 일정표가 소용없어요	116
사례 11) 아무 곳에나 침을 뱉지 않아요	118
사례 12) 아파요! 머리카락 당기면	120
사례 13) 울고 싶어요!	122
사례 14) 차분해지고 싶어요	124
사례 15) 친구를 자꾸 때려요	126
사례 16) 특별실만 가면 친구들을 괴롭혀요	128
사례 17) 한 가지 물건에 집착해요	130

I. 학습지도

- 사례 1) 난 무조건 1등!!
- 사례 2)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 사례 3) 동요로 배워요
- 사례 4) 무조건 “몰라”, “싫어”라고 말해요
- 사례 5) 반향어를 대하는 자세
- 사례 6) 보여 주세요
- 사례 7) 스스로 말하고 행동 해봐요
- 사례 8) 종잇조각을 흔들어요
- 사례 9)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 사례 10) 한글지도 어려워요
- 사례 11) 혼잣말을 증얼거려요

사례 1

난 무조건 1등!!!

< 궁금해요 >

줄도 1등, 발표도 1등, 점수도 100점이 아니면 주먹으로 코를 때려 코피를 내고 울며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ip~ 한마디 >

- 집착(독일어: Fixierung)이란? 시대 착오적인 성적 특성의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지그문트 프로이트 (1905)에 의해 시작된 개념이다. 당시 이 용어는 자아와 객체 관계의 전체 콤플렉스 대신, 특정 시대의 특정 본능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애착을 의미 했지만, 후에 리비도 단계의 이론의 발전과 함께, '집착'은 넓은 의미를 얻게 되었다.
- 집착(執着)이란? 어떤 것에 대해 계속해서 얹매여,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을 말한다.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사전에 다짐도 받고 하였지만 너무 1등, 100점에 집착을 해요. 그렇다고 매번 1등으로 시켜줄 수도 없고, 틀린 것을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2등, 3등 혹은 꼴찌를 하였을 경우 1등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강화 제공하기
- 올바른 참여 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100점 맞도록 하기
- 틀렸을 경우 중요한 문제라고 별표(☆) 표시를 하고 다시 풀게 하기
- 쌓은 블록 무너뜨리기, 물감 번지기 활동, 선 넘겨 색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강박적인 사고 이완시키기

< 에피로그 >

- 꼭 1등, 100점이 아니 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문제행동이 감소 했어요.
- 직접적인 문제행동 중재뿐만 아니라 선행사건 및 후속결과 중재 그리고 인지행동수정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요.

사례 2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 궁금해요 >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걸까요?



< Tip~ 한마디 >

적절치 못한 표현	적절하게 바꾼 표현
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야. 난 지금 한계에 도달했어. 오늘은 이만 하자.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난 너를 무척 사랑해. 난 지금 막 화가 나려고 해. 이제 그만둘 시간이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저기 걸어둬. 거리에서 물러나 있어. 발로 그만 차. 가자.	네 외투를 문의 옷걸이에 걸어둬. 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자전거를 멈춰. 발을 책상 밑에 넣고 있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네 방이 난장판이네. 너 숙제 안 냈더라. 그랬다간 너무 추울 텐데. 난 그런 소음이 싫어.	네 옷들 좀 걸어둬. 네 숙제를 내 책상에 올려놔. 오늘은 짧은 바지 대신 긴 바지 입어. TV소리 좀 줄여.

엘런 노트봄(2008). 자폐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93.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문제인 걸까요? 학생이 문제인 걸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교사의 표현을 주의 깊게 분석해보기
- 학생들이 편안해 하는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 녹음, 녹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대화 모니터링 해보기
- 자폐성장애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관용어 사용 빈도 체크하기

< 에필로그 >

- 교과지도 시 ‘여기, 저기, 그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10쪽, 3번 문제’ 등의 말로 바꾸어 말해주었더니 교사의 지시에 신속히 반응하게 되었어요.

사례 3

동요로 배워요

< 궁금해요 >

책 읽기는 관심 없어요. 받아쓰기는 싫어요. 하지만 동요를 듣고 부르기는 좋아해요. 이런 특성의 학생과 국어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Tip~ 한마디 >

-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를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고쳐야 할 점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격려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아주 많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거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나요?

엘런 노트봄(2008). 자폐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34.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스스로 단어를 쓰지는 못하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자신이 쓴 단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틀린 글자에만 집착해요. 보고 쓰는 활동 외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좋아하는 동요를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고, 노래 부르기
- 동요를 부르며 모르는 낱자 익히기
- 동요의 각 단어를 낱자 카드로 만들기
- 낱자 카드로 동요 완성하기 (보고 하기 → 혼자 하기)
- 짹과 낱자 카드 읽기 게임을 하며 글자 익히기
- 낱자 카드로 단어 만들기 (받아쓰기 대체 활동)
- 낱자 카드로 익힌 단어 받아쓰기
- 낱자 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 만들기 (교사와 함께)

< 에필로그 >

- 학생이 알고 있는 동요를 선택하면 글자를 몰라도 동요를 부르면서 읽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 동요 반복 읽기를 통하여 모르던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낱자 읽기 게임을 할 땐 동요를 되새기며 글자를 읽게 되었어요.
- 카드를 활용하면 눈과 손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니 책상을 친다거나 손을 물어뜯는 문제행동이 줄어들었어요.

사례 4

무조건 “몰라.”, “싫어.”라고 답해요

< 궁금해요 >

자신의 생각이나 주말 지낸 이야기를 물으면 “몰라.”, “싫어.”라고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 Tip~ 한마디 >

- 자아존중감 :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 자아효능감이 특정한 과제 극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학생의 내면화 문제로 위축이 있을 수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편(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p319.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2년 유예를 하고 입학한 학생은 한글도 알고 영어도 제법 합니다. 학생에게 관심이 많은 가정이기에 주말에 많은 것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이는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번 “몰라.”, “싫어.”라고 답합니다. 아이는 정말 몰라서 이렇게 답하는 걸까요? 아님 지금까지 스스로 뭔가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음식에 대해 한 번씩 이야기 해 주기
- 학생도 한번 정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격려해 주기
- 이야기에 대한 정보 수집하여 사전 연관 단어 제시해 주기

< 에필로그 >

- 주말 지낸 이야기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느낌과 욕구를 이야기해요.
- 상황에 맞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사례 5

반향어를 대하는 자세

< 궁금해요 >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반향어는 없어질 수 없나요?



< Tip~ 한마디 >

- 즉각 반향어 :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바로 말을 따라하는 것.
- 지연 반향어 : 이전에 들었던 단어 또는 특정 문장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사한 또는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

< 대학을 다니는 한 자폐성장애 청년의 말 >

저는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향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편(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앨런 노트봄(2008). 자폐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104.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학생이 내 말을 계속 따라 해요. 반향어인 것을 알고 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웃으면서 계속 따라하니까 가끔씩은 ‘얘가 나를 놀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 이렇게 해보요~ >

- 반향어는 언어발달의 한 측면임을 알기
- 반향어를 없애려 노력하지 말고 아이에게 반향어를 극복할 시간 주기
- 반향어 자체에 초점 맞추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필요, 두려움, 욕망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적 의사소통 수단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하여 주기

< 에필로그 >

- 반향어를 못하게 하거나 혼내기보다 반향어를 활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언어반응을 표현하도록 지도했더니 의사소통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어요.

사례 6

보여 주세요

< 공급해요 >

수학시간에 공책에 적은 답이 틀릴까봐 자꾸 썼던 답을 지워요. 그러다 손을 물어뜯기도 하고요. 이제 곱셈을 배워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Tip~ 한마디 >

- 이미지! 난 시각에 의존해요.

나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주려면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면 더욱 좋지요. 배우기가 훨씬 쉽거든요.

엘런 노트봄(2008). 자폐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33.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수학 공책에 덧셈 문제를 내주면 썼다 지웠다하며 “지워?”라는 말을 반복하고 교사의 대답을 기다려요. 교사의 대답이 없으면 짜증을 내며 자신의 손날을 물어뜯어 굳은 살이 생겼어요. 학생에게 계속적으로 언어적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을 봐줄 수가 없어요. “○○야, 틀려도 돼요.”라고 다독여도 소용이 없어요. 틀리고 지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곱셈을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0부터 9까지의 숫자 카드 만들기 (자석 또는 벨크로)
- 곱셈의 과정을 숫자 카드를 붙이며 설명과 함께 보여 주기
(받아올림 수, 받아올린 후 함께 더하기 등의 자세한 과정)
- 교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곱셈 문제 풀기
- 교사의 제한적인 설명과 함께 곱셈 문제 풀기
- 교사의 설명 없이 곱셈 문제 풀기
- 학습지의 곱셈 문제 풀기

< 에필로그 >

- 숫자 카드를 이용한 활동은 곱셈의 풀이 과정을 안내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학생의 주의를 끌 수 있어요.
- 숫자 카드를 사용하니 틀린 것을 고치는 것도 쉽고 학생은 답이 틀려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 숫자 카드로 배운 곱셈의 풀이 방식이 일반화되어 학습지의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례 7

스스로 말하고 행동 해봐요

< 궁금해요 >

화장실에 가야할 때(또는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언어표현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발이가 좋아질까요?



< Tip~ 한마디 >

- * 형태언어 습득의 여러 단계
- 1단계 : 언어 형태를 의사소통에 이용하기
 - 언어 형태를 통째로 배워서 말한다.
- 2단계 : 덩어리로 나누고(a), 다시 결합한다(b)
 - (a) “원해 + 뭘 더?” → (b) “여기서 밖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 3단계 : 개별 낱말과 형태소들을 분리한다. 그리고 원래의 두 낱말짜리 구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 4단계 : 더 복잡한 문장들이 생성된다.

앨런 노트봄(2008). 자폐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109.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한번 정해진 원칙은 늘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매우 불안해하는 자폐성 장애 학생이에요. 언어표현을 하기보다 몸짓으로 요구하고 제지했을 경우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놓을 때가 많아요. 겁이 많아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긴 하지만 언어표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학교생활 중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을 순서대로 정해놓고 하나씩 언어표현 연습하기
- 학생의 언어표현 수준에 따라 단계를 정하고 입모양 따라 하기
- 음절부터 단계를 나누어 따라 하기
- 학생이 언어표현을 거부할 경우 단계를 더 세분하여 실시하기
- 학생이 언어표현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도록 하기

< 에필로그 >

- 매 시간 화장실을 가는 이 학생은 스스로 교사에게 와서 몸짓으로 먼저 표현하고(습관이 되어 있음) 교사가 말로 표현하라 제시 하면 입모양을 보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지속적인 연습으로 어절에서 단 문장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여 지도하고 있어요.

사례 8

종잇조각을 흔들어요

< 궁금해요 >

주어진 과제를 하지 않고 종이 흔들기 등 손장난을 계속하며 낮은 단계의 학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해도 발전이나 학습효과가 미미해요.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 Tip~ 한마디 >

- 아이는 줄잡고 있기, 종이 흔들기처럼 무의미한 활동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 일상적인 읽기 세션 동안 글과 그림을 연결 짓는 연습을 해본다.
- 한 세션에 한 가지만 제시한다.

Julia Moor(2008).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p273. p285.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고 신변처리도 스스로 하며 생활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보이는데 유독 학습에서만은 교사 지시 따르기가 어렵고 방금 설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반복 연습에도 발전이 미미해 답답해요. 뇌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학습방법이 없을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학생이 학교생활하면서 매일 경험하는 급식메뉴를 제재로 활용하기
- 메뉴사진 모아 스크랩북 만들기 - 사진 찾기, 색칠하기, 사진과 낱말 가리키기, 짹짓기 낱말과 낱말 짹짓기, 낱말 붙이기, 낱말 따라 쓰기
- 식판 모양이 그려진 종이에 메뉴 사진 오려붙이기, 낱말 오려붙이기, 색칠하기
- 급식 메뉴 사진을 보고 ‘좋아요./싫어요.’ 이야기하기, 음식 메뉴 사진과 ‘좋아요./싫어요.’ 낱말 짹지어 보기

< 에필로그 >

- 급식 메뉴 사진에 흥미를 보이며 메뉴의 이름을 스스로 읽으려고 시도했어요.
- 메뉴를 먹은 후 좋아하는 음식 맛에 대해 좋고 싫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례 9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 궁금해요 >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면 지쳐 잠들 때까지 울어요.
관심 있는 것을 이용한 수업 디자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Tip~ 한마디 >

- 환경적 지원 조성하기
 - 환경적 지원은 라벨, 경계정하기, 시각적 스케줄, 행동 기반의 의사소통기구, 활동 종료 신호, 선택판, 기다리기 지원 등
 - 이러한 전략은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언어발달을 자극함으로써 학생이 매일 매일의 활동 중에 좀 더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Richard L. Simpson(2010), 자폐아동 및 청소년 교육, p98.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좋아하고 관심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른 교실로 이동할 때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남자 선생님 2명이 학생을 안고 이동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동한 후에는 꿈쩍하지 않고 옆드리거나 바닥에 누워 울다 지쳐 잠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땐 교실에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학교에 왔으니 즐거운 경험을 해야 할 텐데...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이렇게 해보요~ >

- 관심 없는 수업 참여 후 만화,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시간 주기
- 교실 이동 시 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거나 수업을 거부 할 때에는 좋아하는 활동 못하게 하기
- 만화책 읽어주면서 문장, 숫자를 반복적으로 읽기
- 만화책을 읽으면서 문장 익히기
- 만화책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 읽고 쓰기

< 예피로그 >

- 새로운 만화책이 나오면 읽어 달라고 책을 가지고 올 정도로 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 교사가 틀리게 읽어주면 바르게 읽어 달라고 하고 틀린 단어를 짚을 수 있을 정도로 읽기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사례 10

한글 지도 어려워요

< 궁금해요 >

음운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글 지도를 하는데 음 변별을 못해서 한글 공부를 어려워해요. 어떻게 하면 한글을 재미있고 쉽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 Tip~ 한마디 >

- 발음 중심 접근법 : 상향식 모형에 근거, 언어 기호의 표상화 과정은 작은 단위의 언어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큰 언어적 단위인 단어, 구, 절, 문장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마지막으로 전체 의미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처음 글자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모 체계, 자소와 음소의 대응 관계, 철자법, 읽기 과정에서 자모 체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방법이다.
- 의미 중심 접근법에서 총체적 언어 교육 : 하향식 모형에 근거, 읽기 쓰기를 비롯한 모든 언어 기술은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음소나 낱자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닌 덩어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발음 중심 방법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한글은 소리글자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음소 문자로 구성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워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안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고 했는데 학생이 음가 변별을 잘 못해요. 열심히 과잉 반복하고 있는데 학생이 너무 힘들어 해요.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렇게 해봐요~ >

- 이미지가 들어가 그림 문자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하기
예) 푸르미 한글, 웅진 한글 깨치기 등
 - 1단계 - 그림과 단어그림문자 연결하기
 - 2단계 - 단어그림문자와 묵글자 단어 연결하기
 - 3단계 - 묵글자 단어의 낱글자 찾아 완성하기
 - 4단계 - 배운 단어를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기
 - 5단계 - 받침 없는 글자를 가르치기
 - 6단계 - 받침 있는 글자를 가르치기
 - 7단계 - 글자 읽는 방법을 가르치기(받침 없이 먼저 읽고 받침 넣어 읽기)

* 일견(一見)단어(sight word) 교수법 :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주어진 단어의 시각적 형태를 기억하도록 하고 단어의 시각적 형태와 음, 그리고 의미를 서로 연합시키도록 하는 방법

< 예Pic로 그 >

- 이미지 그림 문자를 활용하니 글자에 흥미를 보이고 단어를 금방 통째로 외웠어요.
- 단어를 읽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학습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례 11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 궁금해요 >

공부시간에 도통 흥미가 없어요. 교사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못 들은척하거나 멍하니 있다가 떠오르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려요. 주의를 줘도 소용없어요.
왜 그럴까요?



< Tip~ 한마디 >

- 아이의 모든 에너지는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 무의미한 활동에 집중하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자신들이 집착하는 활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Julia Moor(2008).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p274.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일상적인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나, 패턴에 의한 반복적인 말을 수시로 반복해서 수업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반응하면 더 큰 소리로 하고, 한 번 꽂힌 말은 상황에 상관없이 반복해요. 웃으면서 중얼거릴 때는 일부러 약 올리려는 것 같기도 해요.

< 이렇게 해봐요~ >

- 학생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분야 찾기 -> 브랜드 네임(롯데마트, 대한통운, 스타벅스 르꼬끄 등)
- 잡지에서 브랜드 네임 오려 스크랩북 만들기
- 한글 학습 - 브랜드 네임 찾기, 색칠하기, 브랜드 로고와 이름 짹짓기, 이름과 이름 짹짓기, 이름 붙이기, 이름 따라 쓰기
- 수학 학습 - 브랜드 상품 그림 개수 세기, 브랜드 그림과 숫자 짹짓기, 숫자와 숫자 짹짓기, 숫자 따라 쓰기

< 에필로그 >

- 학습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집중 시간이 길어졌어요.
- 제시한 학습과제의 낱말과 숫자를 스스로 읽고자 시도했어요.
- 중얼거림의 횟수가 줄어들고 스스로 읽는 자신의 모습에 으쓱해하기도 했어요.



III. 쉬어가는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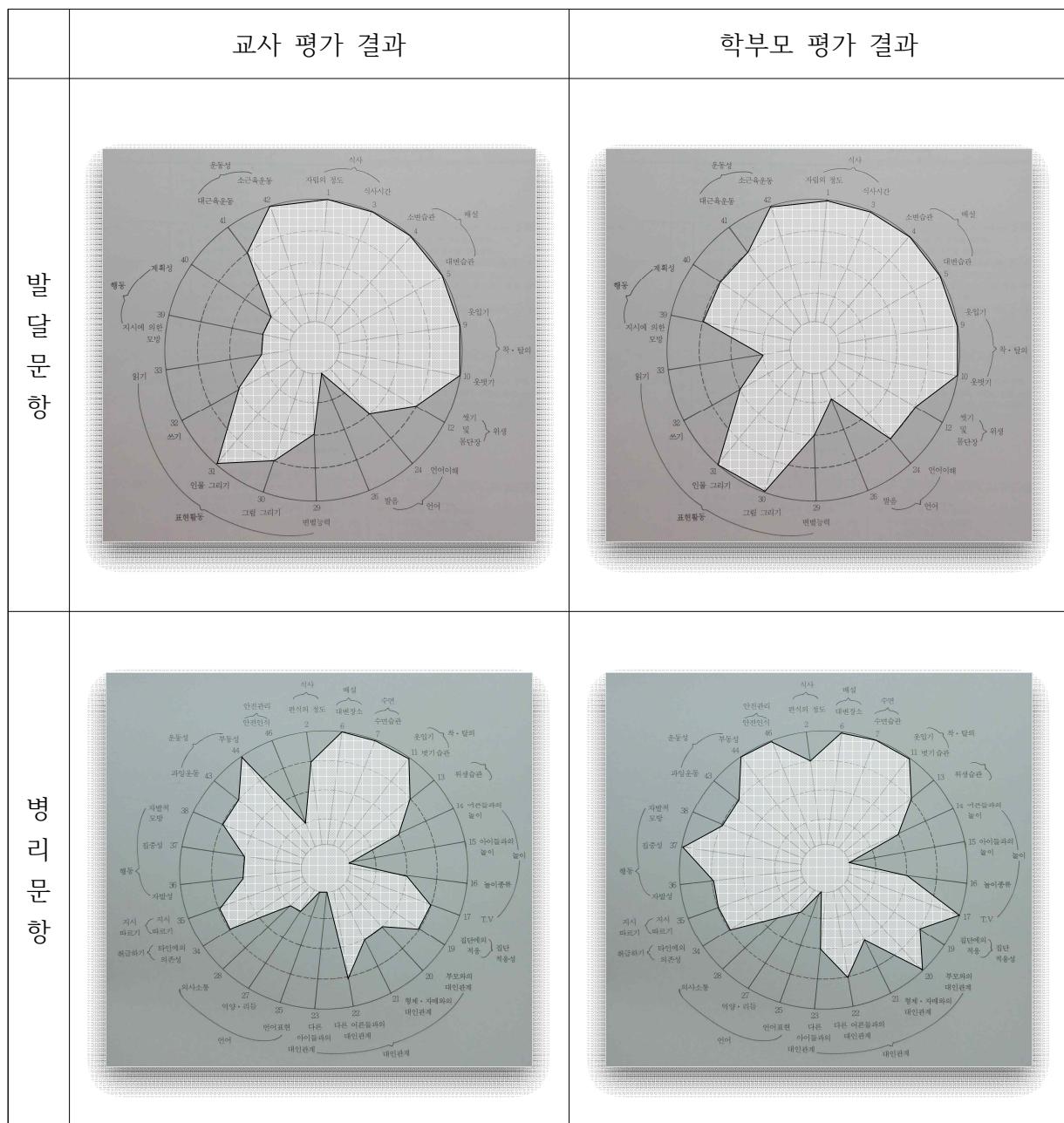
교사와 부모는 다르다???

개별화교육협의를 하다보면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님 간의 관점(?)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이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높은 수준의 교육목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는 수행을 잘 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의 희망 사항을 담아 이야기하시는 건지 받아들이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화-자폐아동 행동발달 평가 도구(E-CLAC)를 사용하여 실제로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행동평가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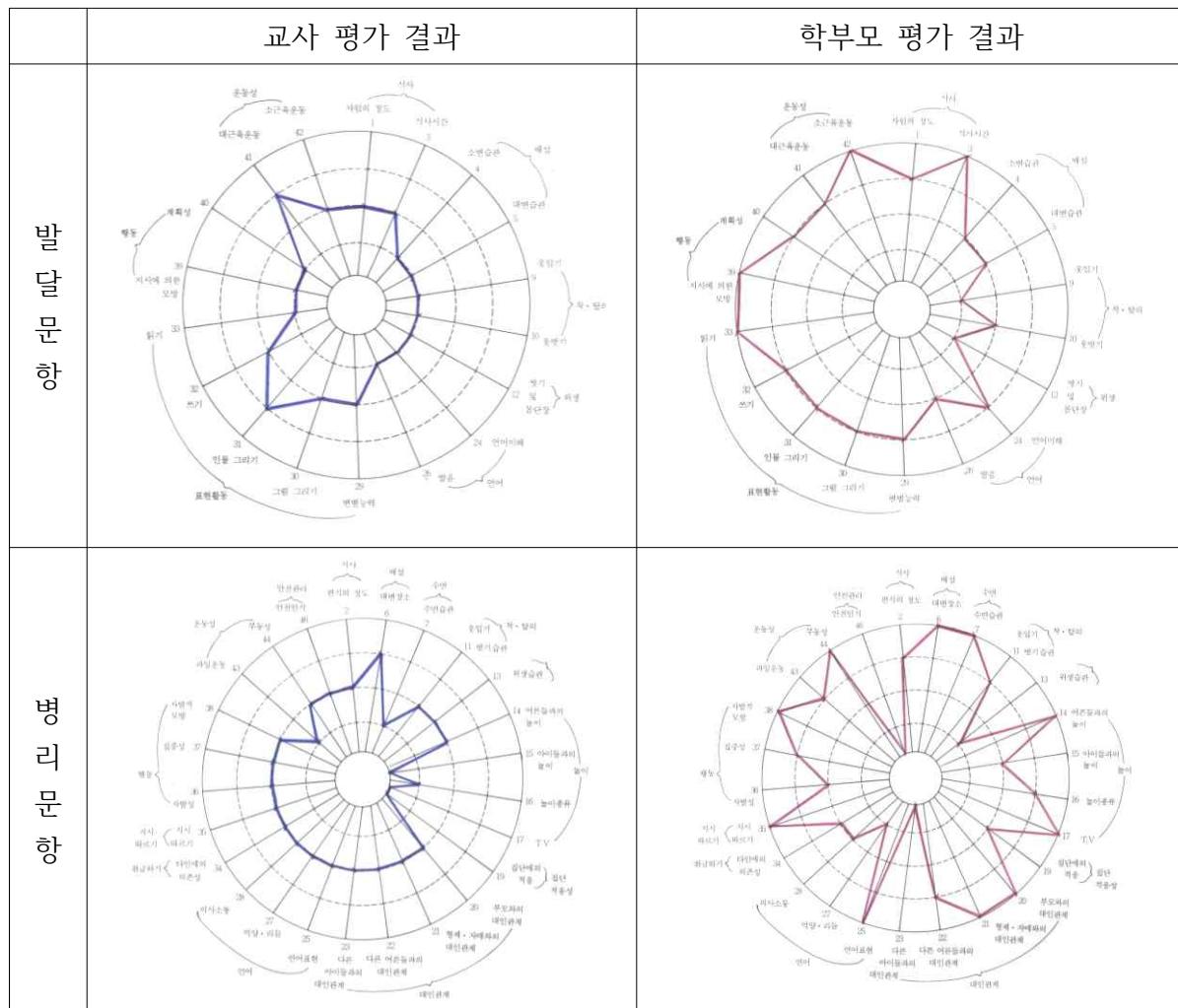
사례1. ★ 학생명 : 김잔디(여)

★ 학년 : 초등학교 2학년



사례2. ★ 학생명 : 강하늘(남)

★ 학년 : 초등학교 3학년



★ 결과에 대한 분석

1. 61점제 생각해요

- 학생의 행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다르다?
- 가정에서 학생의 긍정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 학교에서 학생의 부정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 교사와 학부모 간의 수행 수준에 대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 교사와 학부모 간의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다?
- 학부모의 평가가 너무 관대하다?
- 학부모의 평가가 너무 긍정적이다?
- 교사의 평가가 너무 냉정하다?
- 교사의 평가가 너무 객관적이다?
- 질문 각 항목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



III. 생활지도

사례 1) 싫어하는 소리도 참을 수 있어요

사례 2) 올랄레 꼴랄레

사례 3) 천둥소리가 정말 싫어요

사례 4) 피아노가 좋아요!

사례 5) 먹기 싫어요!!

사례 6) 안 먹어!

사례 7)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요

사례 8) 도리도리 ~

사례 9) 등교하는 게 불만이에요!

사례 10) 시각 일정표가 소용없어요

사례 11) 아무 곳에나 침을 뱉지 않아요

사례 12) 아파요! 머리카락 당기면

사례 13) 옮고 싶어요!

사례 14) 차분해지고 싶어요

사례 15) 친구를 자꾸 때려요

사례 16) 특별실만 가면 친구들을 괴롭혀요

사례 17) 한 가지 물건에 집착해요

사례 1

싫어하는 소리도 참을 수 있어요

< 궁금해요 >

특정한 소리에는 항상 양쪽 검지로 귀를 막고 고개를 숙여 버리는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 Tip~ 한마디 >

- 청각적 자극은 감각통합의 용어로 ‘감각 방어’라고 하며 소리가 들리면 ‘어떤 소리일까’라고 느끼기 이전에 심한 불안감이나 긴장감,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 지도의 요점은 먼저 ‘감각 방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
- 소리에 익숙해지지 않아 청각자극만으로 개선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른 감각 자극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시할 것.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2003). 감각통합 Q&A, p67, 184-185.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특정한 소리에 늘 양쪽 검지로 귀를 막고 고개를 숙여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요. 같은 반에 매일 소리를 지르며 우는 학생이 있는데 일단 이 학생이 울기 시작하는 동시에 귀를 막고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 우는 소리를 내면 바로 귀를 막고 움직이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지요. 어떻게 이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원인이 되는 소리가 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양하기
- 학생이 귀를 막으면 교사가 다가가 교사의 손으로 귀를 막아주고 손을 조금씩 열어주어 작은 소리에 익숙하도록 연습하기
- 소리로 인해 불안감이 있는 학생은 교사가 옆에 있어 주고 평온해 질 수 있도록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가볍게 안아주기

< 에필로그 >

- 처음 귀를 막고 있는 양손을 빼려고 하자 강하게 거부하였으나(귀를 막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음) 교사가 직접 귀를 막아주고 옆에 있어주자 서서히 안심하며 편안해졌어요.
- 처음에는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주고 귀를 막고 있는 양 손을 조금씩 풀어주어 문제가 되었던 소리에 대해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졌으며 교사가 옆에 있으면 편안하게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례 2

올랄레 꼴랄레

< 궁금해요 >

인사 대신 “올랄레 꼴랄레”하며 교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책상을 치는 행동을 어떤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 Tip~ 한마디 >

-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해석해야 한다.
- 행동은 개인의 내적 상태 및 외적 상황에 개인이 반응하는 정보를 전하며 행동들은 신경학적인 근거가 있다.
- 행동의 기능에는 획득, 회피(도피), 감각 자극, 고통 경감의 네 가지 범주가 있다.

L. Juane Heflin, Donna Fiorino(2014).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p247-248.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서로 주거나 받거나 의사소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학생이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학생이 “올랄레 꼴랄레”라고 말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무시해야 하는지 같이 “올랄레 꼴랄레” 해야 하는지 못 들은 척 해도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얼굴을 들이밀며 말을 걸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교실로 들어오며 “올랄레 꼴랄레” 할 땐 “○○야, 안녕?” 하고 인사로 답하기
-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하며 바른 인사말 알려주기
- 교사의 질문으로 학생의 주의 환기시키기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한 안부의 말 또는 균황을 묻는 말)
- 좋아하는 활동으로 주의 돌리기
(동요를 좋아하면 “동요 듣고 싶어?”라는 질문과 함께 “동요 듣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같이 알려 주고, 그 말을 따라하도록 지도하기)
- 수업 시작종이 치면 “종 쳤으니 이제 정리하자.”라는 말로 상황에 따른 바른 행동 알려주기

< 에피로그 >

- 동요를 들을 땐 책상을 치거나 소리를 내는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 동요는 다른 학생들과 다같이 들어도 좋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고 있으나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동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례 3

천둥소리가 정말 싫어요

< 궁금해요 >

특정 소리가 났을 때 같은 낱말을 반복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ip~ 한마디 >

- 청각방어 : 진공청소기, 화재경보, 알람 소리 등 주변 환경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
- 촉각방어 : 불쾌한 촉각 자극과 대면할 경우 발생하는 역 반작용이다. 이러한 역 반작용은 과대한 감정적인 반작용, 과잉행동 또는 기타 행동상의 문제로 나타난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뇌에서 억제 및 방어를 담당하는 방어적 촉각 시스템과 차별적 촉각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방어적 촉각 시스템이 우세할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설명이 있다.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천둥소리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여 천둥소리를 듣고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니, 안 들으면 되는데 왜 그걸 검색까지 해서 듣는지, 수업하기 싫어 반항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이렇게 해보요~ >

- 소리를 듣고 나타내는 반응 중 공격적 행위가 있으면 잠시 진정할 수 있도록 타임아웃 시키기
- 청각 방어가 나타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촉각 방어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촉각을 활용한 놀이도 구성해 보기
-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횟수 및 지속시간 데이터 기록지 사용하여 활용해 보기
-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 제한하기

< 에필로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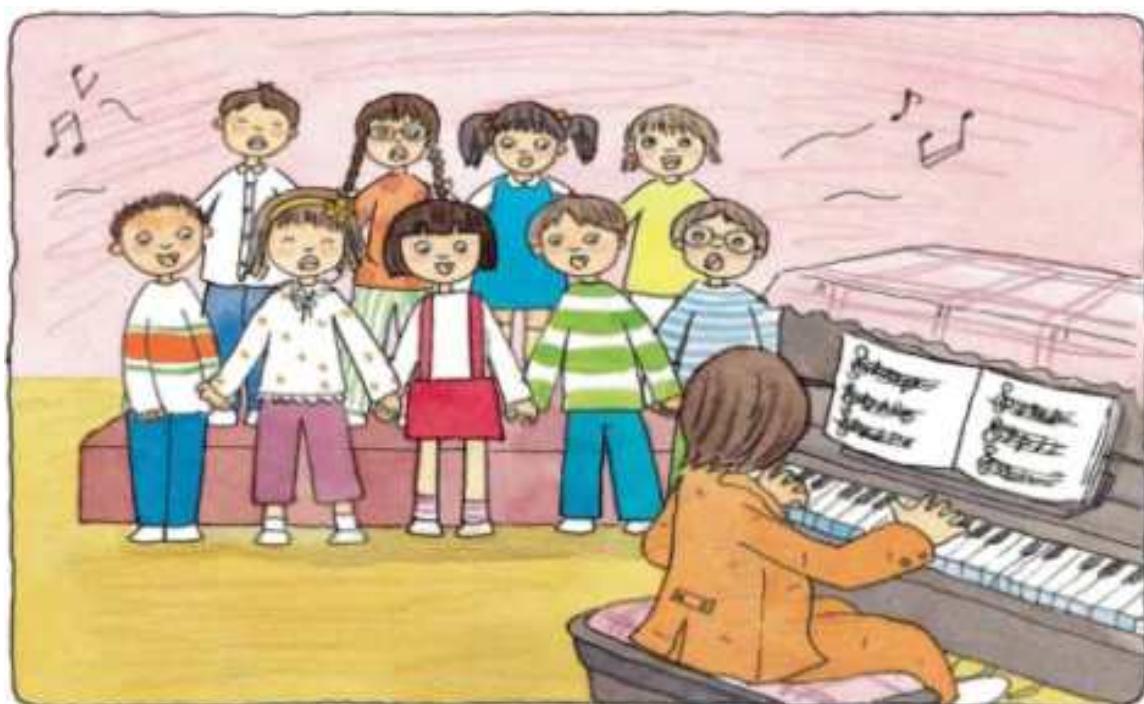
- 가정과 연계하여 클래식이나 오르골 같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음악을 자주 접하도록 해요.
- 다양한 정서적 활동을 통해 문제행동 횟수가 감소했어요.

사례 4

피아노가 좋아요!

< 궁금해요 >

비행기 소리를 너무 싫어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은 너무 좋아해요. 건반이 보이면 피아노를 치려고 달려가기도 하고요. 피아노 소리는 좋아하지만 특정 소리에 민감한 학생을 위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Tip~ 한마디 >

음악치료는

- 치료적인 목적과 함께 내담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 음악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폐성장애를 완치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영역 안에서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랑규, 안동현(2013).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p88.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비행기 소리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면 귀를 막고 ‘엉엉’ 울면서 주저앉거나 구석진 자리로 숨어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날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까지 초비상 상태였어요. 하지만 음악은 너무 좋아하고 특히 피아노 건반 누르기를 좋아해요. 교실에서나 대형마트 체험 시 없어지거나 안 보일 때 찾으러 가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요. 비행기 소리와 피아노 소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학생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거슬리는 소리에 울면서 자리에 주저앉으면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기
- 무슨 소리인지 상황 알려주기 (“괜찮아, 저 멀리 날아가면 소리가 안 날 거야, 풍선 터트리지 않을 거야.” 등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기)
- 피아노 치고 싶을 때는 선생님께 이야기하기
- 동요 들려주고 연주하기
 - 음을 들려주고 맞는 음 찾기
 - 동요 들려주고 연주하기
 - 생소한 노래를 들려주고 음 찾아 연주하기
- 동아리시간 합주반에서 활동하기

< 에필로그 >

- 싫어하는 소리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듣고 아직도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소리가 없어질 때 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 흥에 겨워 피아노를 치다보면 박자가 빨라질 때가 있지만 피아노를 치며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례 5

먹기 싫어요!!!

< 궁금해요 >

편식이 엄청 심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고기, 인스턴트만 골라 먹어요. 먹어보라고 입 가까이에 가져가면 토할 듯이 “우웩, 우웩.” 거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ip~ 한마디 >

- 응용행동분석적 접근이 섭식문제 감소에 효과적
(Ahearn, 2003; Najdowski et al. 2003; Piazza et al., 2002).
- 도피 소거(Escape Extinction) : 편식하는 음식(혐오 자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먹을 때 까지 제시
- 선호/비선호 음식의 동시 제공 또는 순차 제공
- 자극 용암법(stimulus fading) : 질감이나 음식물의 양을 점점 섭취하기 어려운 순서로 제시
- 편식하는 음식의 섭취에 대한 차별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요즘은 편식 지도에 대해 부모님들께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이름하에 편식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식사지도를 하지 않으면 교사는 편하겠지만 편식이 심한 학생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학부모 동의 얻기
 - 식사지도는 자폐학생들의 제한된 관심과 집착, 강박적인 사고를 다양한 음식의 식감과 맛을 경험 해봄으로써 변화나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강조
- 체계적 둔감법 사용하기
 - 입술에 반찬 대여보기 → 혀에 대여보기
 - 아주 작게 잘라 맛본 후 점점 크기를 키워가기
- 잘 먹었을 경우 강화 제공하기

< 에필로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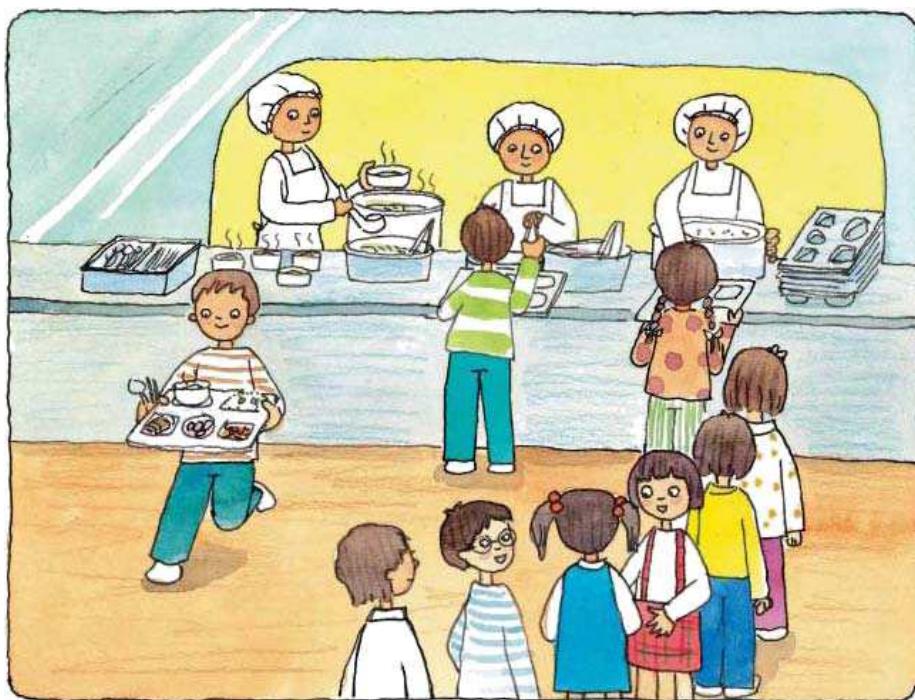
- 초기에는 반찬을 입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 식사시간이 오래 걸려 점심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 나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려고 열른 밥을 먹게 되었어요.
-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의 표현강도는 약해지고 수용은 빨라졌어요.

사례 6

안 먹어!

< 궁금해요 >

싫어하는 반찬이 식판에 담겨져 있는 것을 못 참고 특히 토마토가 들어 있는 과일 디저트를 너무 싫어해요. “안 먹어.”를 반복하면서 급식실로 가다가 혀구역질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 Tip~ 한마디 >

- 선택하기는 적극적인 참여 및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과 연계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할 기회를 거부당할 때 다루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여러 강화제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과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다.
- 학생의 선택 표현 격려하기
- 학생이 선택할 기회 만들기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급식시간이 되면 급식을 받기도 전에 “안 먹어.”, “토마토 안 먹어.”를 연발하며 급식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해요. “토마토는 선생님이 먹어 줄게. 다른 과일은 네가 먹어.”라는 말을 믿고 과일 디저트를 받으면 좋겠는데... “먹기 싫은 것은 안 먹어도 돼.”라는 교사의 말을 왜 못 믿을까?

< 이렇게 해봐요~ >

- “(토마토) 안 먹어.” 하면 “(토마토) 먹지 마세요.” 하고 대답하기
- 학생이 “안 먹어.” 라고 말하는 음식은 “주지 마세요.” 라고 의사표현 하는 모습으로 시범 보이기
- 학생이 먹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음식은 강요하지 않기
- 받아온 급식을 먹으면서 “안 먹어.” 라고 말하면 “먹어 봐, 맛있어. ○○가 좋아하는 음식이야.”라고 격려해주기

< 에필로그 >

- 학생이 “안 먹어.” 하면 주지 않고 받아온 음식은 “먹어 봐, 맛있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야.”라는 의사소통을 3개월 정도 반복하다 보니 급식을 받으며 실랑이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 토마토가 들어 있는 과일 디저트는 교사가 토마토를 제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 급식시간에 “안 먹어.”라는 말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니 급식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례 7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요

< 궁금해요 >

잘못한 일에 대해 쉽고 정확한 말로 짚어주고 몇 번이나 바른 행동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네요. 왜 그럴까요?



< Tip~ 한마디 >

내게 기억이란 선이 아니라 점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기억이나 어제의 기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기억해도, 언제 어떤 실수를 했으며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옳았는지 기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히가시다 나오카(2015).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p23.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정수기만 보면 자꾸 눌러서 교실 바닥이 항상 젖어 있어요. 뜨거운 물은 위험해서 잠가놓았지만, 찬물은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잠그지 않고 있어요.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컵 없이 정수기를 누르지 마라.” 단호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해주는데 컵 없이 정수기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네요. 관찰해보니 물과 관련된 자극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이 어려운 걸까요? 제 말을 무시하는 걸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학생의 행동을 보는 시각 바꾸기
- 교사가 말로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알기
- 시각적 단서(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잘못된 행동과 바른 행동 보여주기

※ 추상적인 개념이나 흘러가 버리는 말을 시각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에피로그 >

- 간결하게 말하고 중요 키워드를 반복하여 이야기해주었어요.
- 문제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X표시를 한 사진(컵 없이 정수기를 누르는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더니 문제행동이 점차 소거되었어요.
- 정수기 근처에 가면 O표시를 한 사진(컵으로 정수기 물을 받는 사진)을 보여주며 “컵 가져오자.”라고 말해주었더니 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어요.

사례 8

도리도리 ~

< 궁금해요 >

소리를 내며 고개를 심하게 돌리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 Tip~ 한마디 >

- 전정계 과소반응을 가진 학생은 몹시 움직이고 싶어 하며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앉아 있는 동안에 몸을 흔들거나 몸을 거꾸로 하는 행동 즐긴다.
- 과제가 없거나 쉬는 시간에 자주 발생한다.
- 체어 볼(chair ball)의 사용은 때로는 과소반응 전정계가 갈망하는 추가적인 움직임 자극을 얻도록 돋는 데 사용된다.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평소 일정한 속도로 고개를 흔드는 학생 노래를 들으면 강도가 좀 심해지고 소리도 내요. 혹시 이 학생이 노래를 부르며 리듬감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감각적인 문제로 고개를 흔드는 걸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특정 과제가 없을 때 학생이 선호하는 다른 장난감이나 활동 제공하기
-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쉬운 과제와 학습량 제공하기
- 학생의 문제행동이 하루에 몇 번, 어느 시간에 행해지는지 확인하고 강화물을 제공하며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며 행동 수정하기

< 에필로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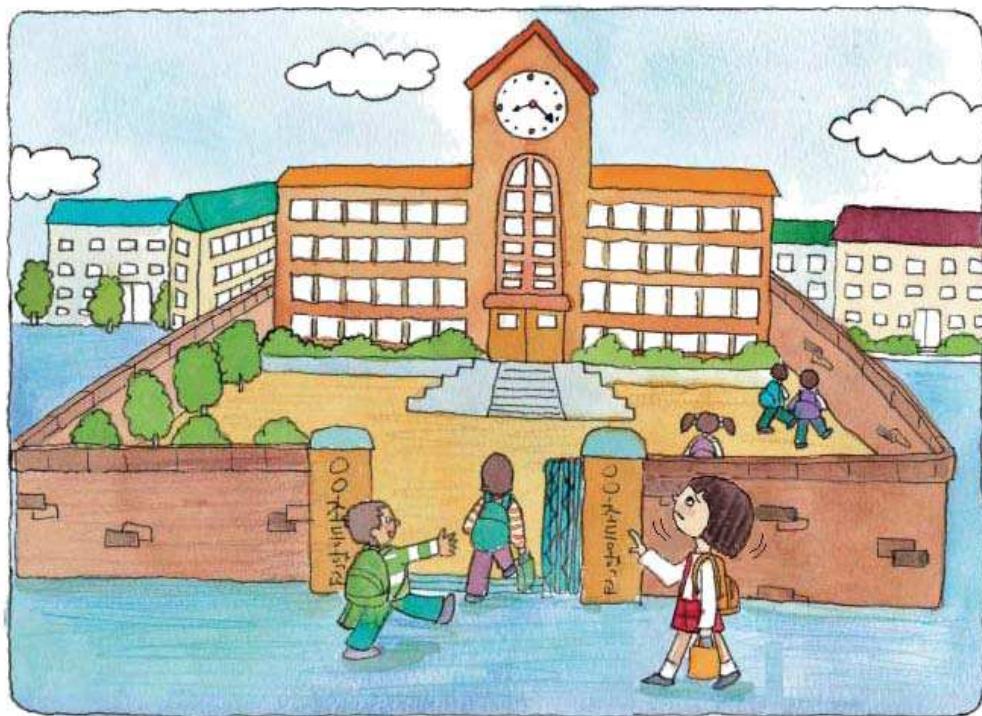
- 과제 수행 시 1대1로 보조를 하고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니 문제행동의 빈도수가 감소되었어요.
-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제시하였을 때 고개를 돌리는 행동은 감소하였으나 손톱으로 물건을 뜯는 행동이 생겼어요. 대체 행동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 9

등교하는 게 불만이에요!

< 공급해요 >

등교하는 것을 싫어해 1교시 시작시간이 다 되어서야 억지로 학교에 오고 교실에 들어와서는 소리 지르기, 책상 두드리기, 발로차기, 꼬집기, 떼쓰기를 반복해요. 즐겁게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Tip~ 한마디 >

- 자폐 증상에 수반되는 여러 신체적 문제와 기이한 행동들의 가장 핵심적이며 또한 일반적인 원인이 바로 감각-처리 문제이다. 자폐성장애에 속하는 많은 아이들은 다양한 수준의 감각-처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신체놀이를 통해 아동은 적절한 감각적 자극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Julia Moor(2008).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p157-180.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감각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등교하기가 싫어 준비시간이 길어 진다고해요. 등교해서도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책상을 쓰러뜨리고 물건을 던지고 꼬집고 발로 차는 분노발작과 같은 큰 액션을 동반한 문제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강하게 훈육하고 싶지만... 학교에서도 엄하게 훈육해 달라는 학부모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등교하는 학생의 수면, 피로감, 식사 상태 체크하기
- 피로감이 있을 때는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확보해주기
- 감각운동 제시하기
 - 고유수용감각 자극 - 입술 눌러주기, 비눗방울 불기, 손수레 걷기
 - 전정감각 자극 - 평균대 걷기, 꼬불꼬불 길 걷기, 밸런스 둘 짖고 걷기, 안전 스쿠터보드 타기

< 에필로그 >

- 가정에서 아침에 학교 안 가겠다고 버티는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 감각운동 후 차분한 모습으로 지시에 따르며 착석 시간이 길어졌어요.
- 통합학급에 가려는지 물어보면 가겠다고 대답하는 때가 많아졌어요.
- 자신의 컨디션과 마음을 살펴주니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사례 10

시각 일정표가 소용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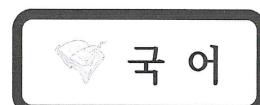
< 궁금해요 >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시각 일정표가 효과적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통 관심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 오늘 시간표 >



< 오늘 시간표 >



< Tip~ 한마디 >

시각 일정표는

- 반드시 연속적이고 순차적이어야 해요.
- 정보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돼요. 두세 가지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세요.
- 정보를 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늘어놓지 않아도 되요. 아이는 위에서 아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엘린 노트봄(2008). 자폐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118-119.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시각 전략이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해서 하루 일정을 그림으로 그려 제시했어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학교생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그려 교실 앞에 붙여주었죠. 그런데 학생은 심리적 안정을 느끼기는커녕 관심이 없네요.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건가요?

< 이렇게 해보요~ >

- 어떤 수단이 학생에게 시각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주의 깊게 관찰하기
- 달력이 그렇듯 시각 일정표도 다 똑같은 형태가 아님을 기억하기
- 간단한 선 그림, 무채색 그림, 색채 그림, 구체적인 이미지,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 일정표 적용해보기
- 제시 자료의 양 줄이기(일주일 일정이 아닌 하루 일정만 제시하기)

< 에필로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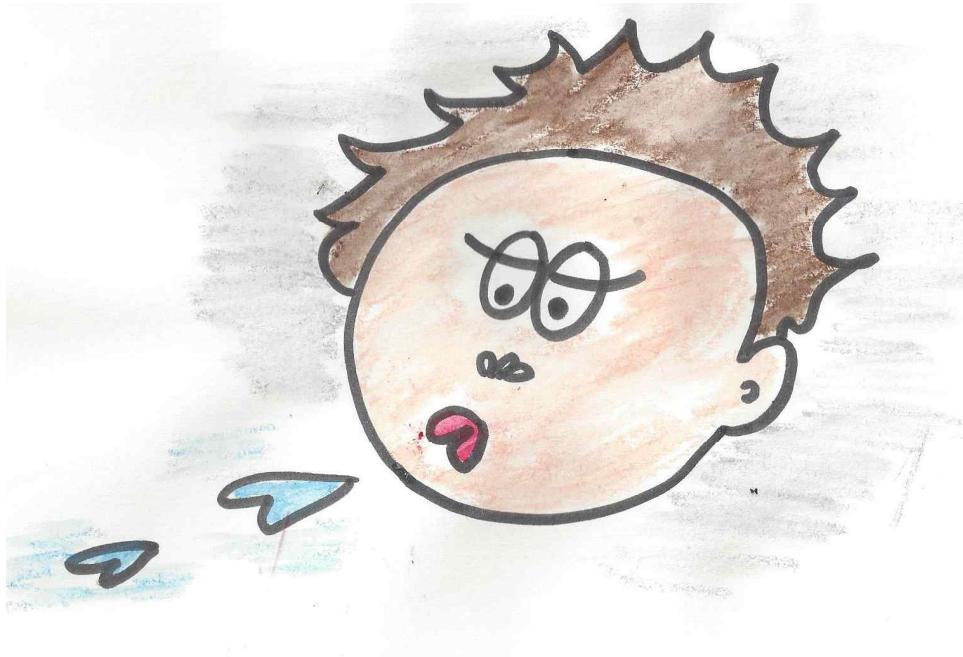
- 다채로운 색이 아닌 검정 사인펜으로 그린 선 그림을 제공해주니 시각 일정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어요.
- 하루의 일정만을 붙여놨더니 순차적으로 각 일정을 수행하였어요.

사례 11

아무 곳에나 침을 뱉지 않아요

< 궁금해요 >

언제부턴가 침을 삼키지 않고 정수기에 뱉는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 Tip~ 한마디 >

- 자폐성장애 이해의 기본 중 하나가 ‘행동이 결코 난데없이 나타나는 법이 없다.’이다.
- 행동에는 항상 기폭제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 이때 명심해야 할 사실은 언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자폐성장애 학생은 무엇이 자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

엘런 노트봄(2008). 자폐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p50-70.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이 학생은 어느 날부터 정수기에 침을 뱉고 다녀서 문제가 되었어요. 입에 침이 고이면 삼키지 못하고 복도에 있는 정수기를 찾아 그 곳에만 침을 뱉었어요. 아마도 물이 있어 그런 건가 싶긴 한데,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네요. 어떻게 문제행동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침을 뱉거나 삼키지 못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 원인을 먼저 찾아보기
- 침을 정해진 장소에 뱉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 침 삼키기 연습을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하기
(학생의 고개를 듈다 → 학생의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다 → 교사가 엄지와 검지로 학생의 턱 밑을 누르며 자극한다 → 입에 고여 있는 침을 삼키게 한다.)

< 에피로그 >

- 학생이 침을 뱉게 된 원인이 수영을 배우면서부터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문제행동이 없었기에 행동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 학생이 입에 침이 고이면 바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침을 정해진 곳에 뱉도록 연습하니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침 삼기는 연습단계를 정하여 교사가 도움을 주고 서서히 스스로 침을 삼킬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연습의 결과 침 삼키기가 가능해졌어요.

사례 12

아파요!! 머리카락 당기면...

< 궁금해요 >

긴 생머리만 보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동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Tip~ 한마디 >

- 상황이야기(social story)

적절한 사회적 반응과 함께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미니북’이다.

원하는 특정 반응을 가르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따라 개별화되며 자폐성장애를 지닌 많은 학생들의 기술 습득을 강화한다.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은행으로 체험학습을 갔던 날 갑자기 학생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긴 생머리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순간 모두가 너무 놀라 얼음이 된 상태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만 계속 반복하였어요. 그 때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잘 마무리를 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사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머리카락 잡아당기면 상대방이 아프고 불쾌하다는 것 말해주기
- 머리카락 당기는 모습과 아파하는 상황모습을 보여주고 생각 말하기
- ‘상황극’으로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해보기
- 머리 긴 사람이 보이면 머리카락을 잡기 전에 표정과 행동으로 알려주기
-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칭찬해주기

< 에피로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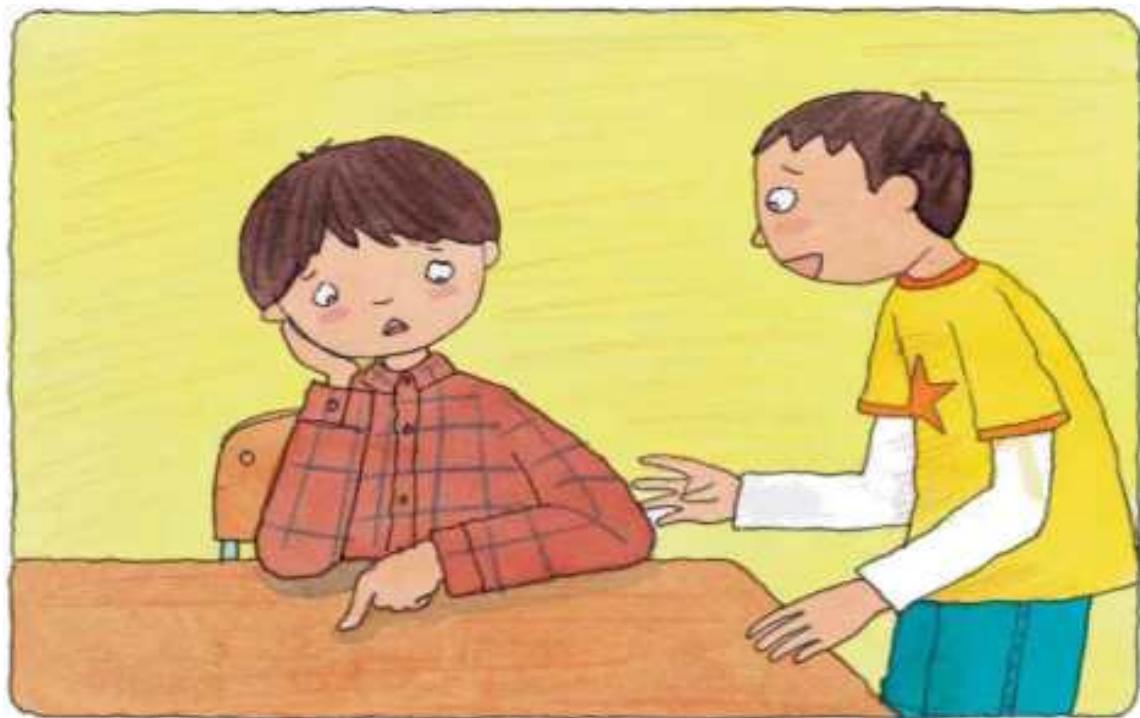
- 이제는 머리 긴 사람을 보면 본인이 먼저 “안 돼.”라고 말을 하고 혹시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잡으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례 13

울고 싶어요!!

< 궁금해요 >

교실에 들어오면 울거나 책상과 의자를 흔드는 행동을 반복해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 Tip~ 한마디 >

-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
-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나 가족, 지역사회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를 통하여 문제행동은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은 더욱 기능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한다.

Brenda K. Scheuermann(2009), 긍정적 행동지원, p5.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교실에 들어와 책상에 앉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주르르 볼을 타고 내려 와요. ‘오늘은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을까? 아님 배가 고플까?’ 이런 저런 추측을 해보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울지 않을 땐 책상과 의자를 흔들어요. 우는 행동도 책상을 흔드는 행동도 문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렇게 해봐요~ >

- 이유 없이 울고 있을 때
 - 상황에 적절한 언어적 지원하기(슬픈 생각 했어? 엄마가 보고 싶어? 등)
 - 함께 우는 시늉하기
 -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기

- 책상, 의자 흔들기
 - 무거운 의자, 책상 사용하여 움직임 줄이기
 - 책상, 의자 바닥에 부직포, 고무조각 붙여 움직임 줄이기
 - 이름을 부르면서 “안 돼요.” 말해주기

< 에피로그 >

- 상황에 적절한 언어적 지원을 해줄 때 교사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그런 행동이 학생의 기분을 전환시켜 울음을 그치게 되었어요.
- 책상을 움직이려고 할 때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면 행동을 멈추게 되었어요.

사례 14

차분해지고 싶어요

< 궁금해요 >

자주 손가락으로 손등을 치거나 복도에서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스스로 멈추기가 무척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을까요?



< Tip~ 한마디 >

- 우리의 몸은 적절한 감각 입력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감각 입력이 차단될 경우 자기 자극을 사용하여 이를 보충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자기자극 행동을 하는 경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각을 즐기고 공유하는 등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흥미, 활동의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2003). 감각통합 Q&A, p17,61,112-114.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자기 자극을 즐기는 이 학생은 한쪽 손가락을 다른 쪽 손등에 치는 행동과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수시로 해요. 교사가 얘기하는 즉시 멈추지만 잠깐 지나면 다시 언제 그랬나는 듯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처음으로 차분하게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하지만 문제행동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 이렇게 해봐요~ >

-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순간 큰 소리보다 낮은 소리로 차분하게 이름 불러주기
- 되풀이하는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경우와 자기 자극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찰하고 방법 찾기
- 학생이 나타내는 집착행동은 스스로에게 있는 인지능력의 문제들 때문이므로 기본적인 인지능력 높여 주기
- 학생의 인지능력에 맞는 과제나 인지하기 쉬운 상황을 제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기

< 에필로그 >

- 행동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반복적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 바로 행동을 잠시 멈출 수 있게 되었어요.
-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원하는 자극의 형태를 바꾸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극을 즐기고 공유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사례 15

친구를 자꾸 때려요

< 궁금해요 >

유난히 약한 친구를 자꾸 때리고 밀치고 꼬집어요. 행동계약서를 작성해서 별도 주고 강화도 주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ip~ 한마디 >

·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의 실행 절차

기능적 행동평가(FBA,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를 실시하여 행동 기능 분석하기

(학생의 교육 및 행동 관련 자료 분석 /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 직접 관찰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분석)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FCT,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하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반응 판별 / 비연속 개별시행 형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적 반응을 지도 / 의사소통적 반응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의사소통적 반응이 문제행동보다 효율적인지 확인 / 목표로 하는 기능수행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적 반응이 문제행동 보다 효과적인지를 확인)

부가적인 기능 중심 행동 지원을 개발

(선행사건 중재를 개발하고 실행 / 부가적인 대체행동을 지도 / 후속사건 중재를 개발하고 실행 / 필요할 경우 위기관리중재에 관해 상세히 기록)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히죽 히죽 웃으며 유난히 자기보다 체구도 작고 마음씨 착한 친구를 때리고 밀치고 꼬집어요. 그 친구가 만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맞은 친구한테 “너도 화를 내며 똑같이 세게 때려줘.”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렇게 해보요~ >

- 문제행동의 기능을 분석하기
 - 면담 및 관찰 실시 : 기능 평가 결과 놀고 싶을 때 혹은 심심할 때, 그 친구를 때리는 것을 알게 됨
-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FCT) 하기
 - “○○야, 놀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도
 - “○○야, 놀자.”라고 말할 경우 ○○는 적극적으로 반응 해주기
- 부가적인 기능 중심으로 행동 지원을 개발
 - 친구들에게 문제행동의 원인을 알려주고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기
 - “○○야, 놀자”라고 할 때 ○○가 힘들어 하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혼자서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잇감 제공하기

< 에필로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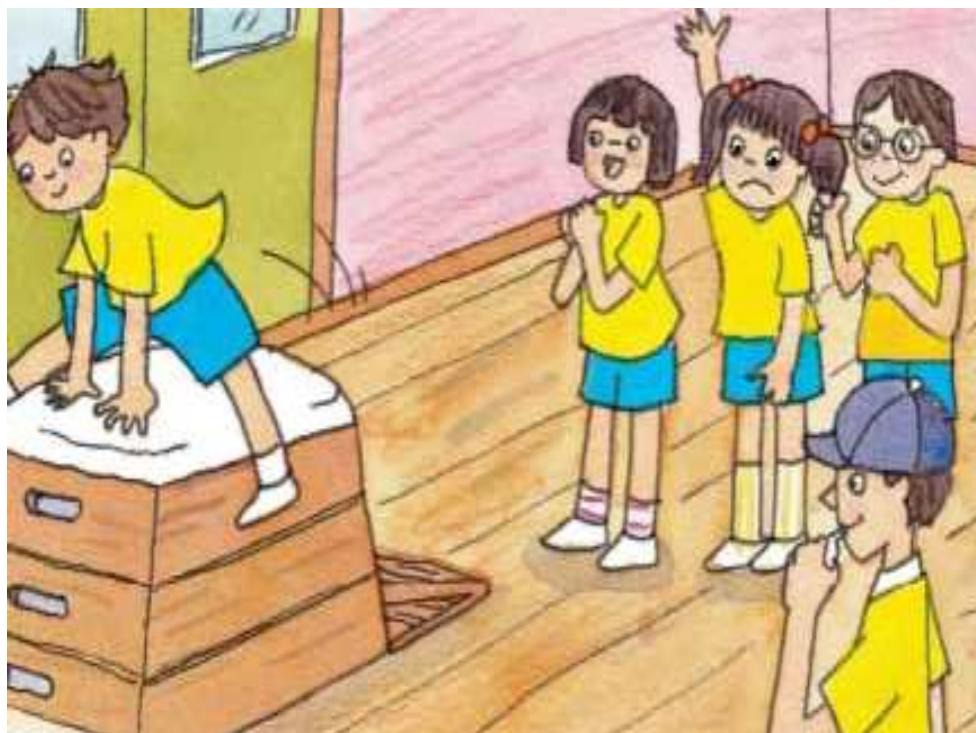
-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결과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없어졌어요.
- 친구들도 문제행동의 원인을 알고 관심을 가지며 도움을 주었고 친구관계가 좋아졌어요.

사례 16

특별실만 가면 친구들을 괴롭혀요

< 궁금해요 >

장소가 바뀌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 Tip~ 한마디 >

- 그림 일과표 : 자폐성장애 학생의 하루 일과를 구조화하고 이를 학생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스케줄표이다.
- 자폐성장애 학생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자폐성장애 학생은 그림을 보면서 다음 과제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고,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Julia Moor(2008).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p37-39. p321-323.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6년 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특별실에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업 시간표에 대해 말해줘도 말로는 “네.” 라고 하지만 막상 가면 친구들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하고 바닥에 눕기도 해요. 가끔씩 교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고 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두 얼굴의 지킬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이렇게 해보요~ >

- 변화를 두려워하는 아동의 특성 인정해주기
- 시각적 학습자이므로 그림일과표를 통해 하루 시간표를 순차적으로 구조화해서 미리 알려주기
- 장소와 적절한 행동 그림카드 짹짓기로 긍정적 행동을 지원하기
그림과 낱말 짹짓기, 낱말과 낱말 짹짓기를 통해 학습으로 확장해 제시해보기
- 적절한 행동에 대해 충분한 긍정적 피드백 주기

< 에필로그 >

- 그림 일과표를 통해 그 날의 시간표에 대해 이해하고 하루 일과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 시간표에 대해 미리 알고 실제로 일어나기 전 그 상황을 이해하여 변화를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준비물을 챙기게 되었어요.

사례 17

한 가지 물건에 집착해요!

< 궁금해요 >

무언가 한 가지 물건에 집착하고 물건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럴까요?



< Tip~ 한마디 >

- 분리불안장애 :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된 정서장애
- 애착 : 출생 직후부터 영아기에 걸쳐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이다. 애착의 질은 초기 양육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애착 실패의 극단적인 결과는 반응성 애착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다.
- 애착장애 : 아동 초기의 부적절한 애착 형성으로 지속적으로 정서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곤란을 겪는 장애이다.

국립특수교육원 편(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p190, p260.

< 혹시 나도 이런 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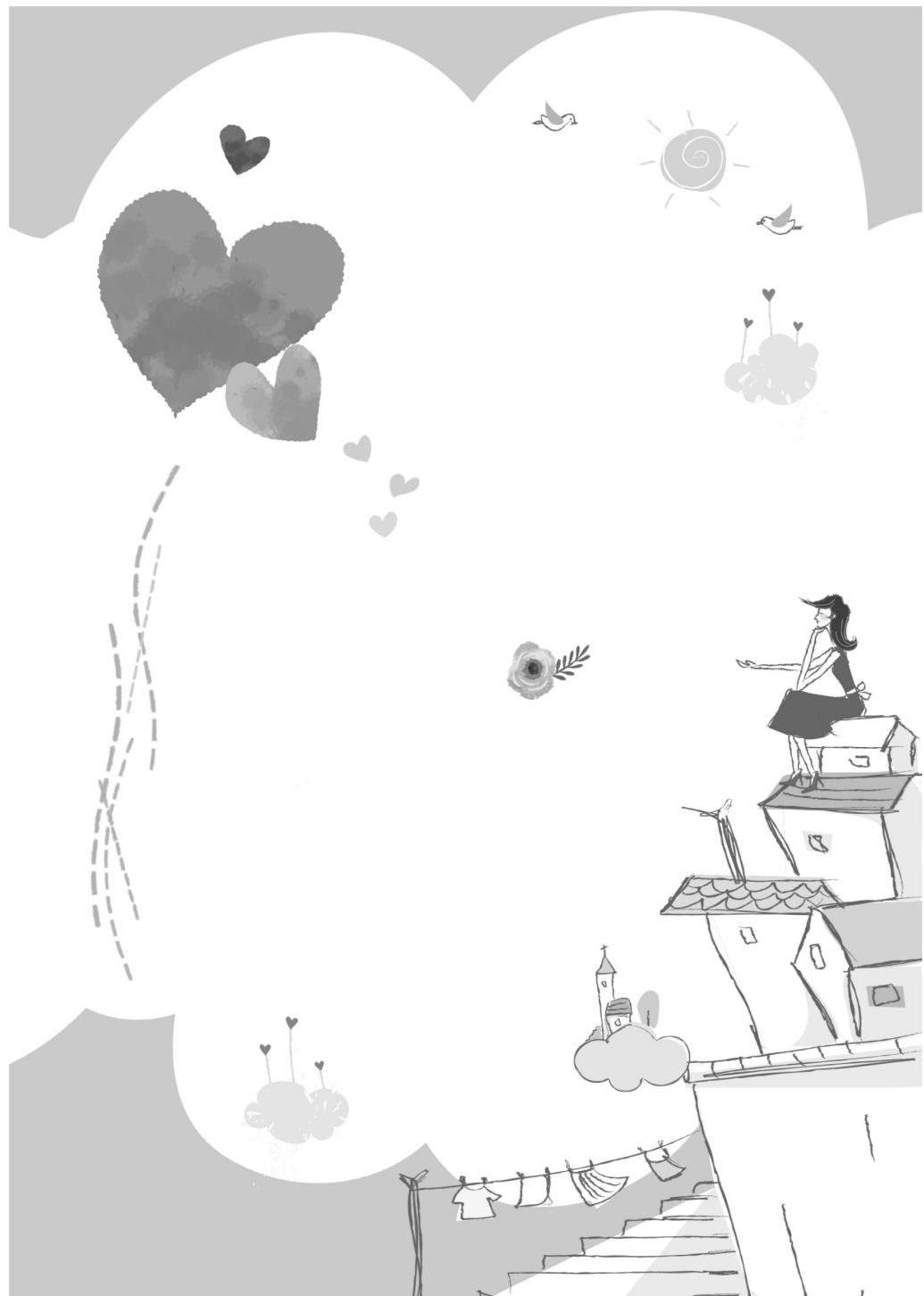
집착하는 물건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였어요. 풀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미술시간이나 풀이 필요한 상황에만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였어요. 그랬더니 더 집착을 보이는 것 같아요. 화도 내고요. 그냥 만지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시간제한을 해야 할까요?

< 이렇게 해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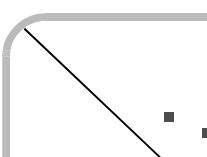
- 집착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부득이하게 물건을 떼어놓아야 할 때에는 충분히 설명 해 주기
- 집착하는 물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확장해 주기
- 단순히 몸에 가지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인형 놀이를 하거나 풀그림을 그리는 등 재미있는 활동 많이 해 주기
- 학생의 집착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
- 집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집착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물건을 통해 안정감과 애착을 얻는다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기

< 에피로그 >

- 혼자만 가지고 놀았던 인형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 친구와 같이 인형놀이를 했더니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인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자기 인형을 친구에게 건네며 함께 놀이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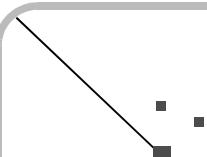
4 중학교 “사춘기와 성교육”



CONTENTS

목 차

I. 사춘기와 성교육	137
Q 1)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138
Q 2) 내 몸이 달라졌어요.	140
Q 3) 소중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142
Q 4) 성적 관심이 쑹터요	144
Q 5) 몸과 마음이 자라요	146
Q 6)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148
Q 7)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해요	150
Q 8) 음란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152
Q 9) 성은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에요	154
Q 10) 남자와 여자 우리는 모두 같아요	156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①	158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②	158
자폐성장애인 성교육 연구문헌 ①	159
자폐성장애인 성교육 연구문헌 ②	161
 II. 지도사례 21가지	163
사례 1) 언제 끝나요, 몇 시예요?	164
사례 2) 난 화가 나면 폭발해요!!!	165
사례 3) 난 친구들보다 창문이 더 좋아요!	166
사례 4) 교실보다 복도가 더 좋아요.	167
사례 5) 나도 안경이 쓰고 싶어요.	168
사례 6) 심심할 때는 손을 만지고 놀아요.	169
사례 7) 하교시간을 꼭 알고 싶어요.	170
사례 8) 지하철이 정말 좋아요	171
사례 9) 음악과 함께 시~작!	172



CONTENTS

목 차

사례 10) 이름 부를 때가 좋아요!	173
사례 11) 내가 먼저	174
사례 12) 손목이나 목을 꺾어요.	175
사례 13) 특정 소리에 예민해요.	176
사례 14) 주의집중이 너무 힘들어요.	177
사례 15)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 느낄 수 있어요	178
사례 16) 언제나 관심 받으면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179
사례 17)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앉아있을래요	180
사례 18) 높이 오르고 싶은 범이	181
사례 19) 성민이는 이런 학생이예요.	183
사례 20) 나는 스타킹이 좋아요	185
사례 21)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187
III. 전문가 코너	189
1) 놀이기술의 발달	190
2) 초등학교 입학 결정	191
3)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	192
4) 자폐성장애 약물치료의 원칙	193
5) 언어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194
6) 미술치료	195

I. 성교육

Q1 활동)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Q2 활동) 내 몸이 달라졌어요

Q3 활동) 소중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Q4 활동) 성적 관심이 썩더요

Q5 활동) 몸과 마음이 자라요

Q6 활동)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Q7 활동)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해요

Q8 활동) 음란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Q9 활동) 성은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에요

Q10 활동) 남자와 여자 우리는 모두 같아요!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①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②

자폐성장애인 성교육 연구문헌 ①

자폐성장애인 성교육 연구문헌 ②



Q1

어느 날, 호기심 가득한 영준이가 눈을 뜯그랗게 뜨며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아니, 어디서 생겨요?”

“우리 영준이가 태어난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구나~” ^_^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탄생의 신비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질이 만나게 돼요. 이때 남자의 음경에서는 정액이 나오는데, 정액 안에는 정자가 들어 있어요.

정자는 질을 통해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 자궁, 나팔관을 따라서 이동해요. 그리고 정자가 여자의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와 만나면 수정이 되어 수정란이 만들어지지요.

음경에서 나온 정액에는 3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정자 중 난자까지 이동하는 정자는 불과 200마리 정도예요. 난자는 200마리의 정자 중 한 개의 정자만을 끌어당겨 수정을 하게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수정란은 여러 날 동안 자궁으로 이동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자궁내벽에 붙게 되는데, 이를 '착상'이라고 하지요.

임신이 되면 엄마의 몸속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태반이 만들어져요. 또 자궁 안에 있는 양수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 주어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태아는 착상이 된 후 약 9개월간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요.

출처 -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
(2015)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활동 목표

탄생의 신비함을 통해 나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활동 내용

○ 활동1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 멋있고 잘생긴 남자와 예쁘고 상냥한 여자가 만남
-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즐겁게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매력에 빠져 결혼 약속을 하게 됨
-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 아기 탄생 계획을 가짐

○ 활동2

아기의 탄생 과정 알기

- 수많은 정자들이 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경쟁을 하여 하나의 난자를 만나 수정을 하여 임신을 함
- 정자 : 남자의 정액, 난자 : 여자의 자국 옆에 있는 난소

○ 활동3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소중함 알기

- ‘착상’ 개념 알기
- 태아는 착상이 된 후 약 9개월 동안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여 태어나게 됨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 시중에 나와 있는 생명과 관련 된 동화책을 읽어주며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하세요!
- 말하기 어렵고 쑥스러운 단어도 학생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자신이 귀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 장애인 성폭력 예방 기관에서도 다양한 성교육 및 자료가 있으니 활용하세요!



Q2

중학년 2학년 여학생 ○○이 어머님의 상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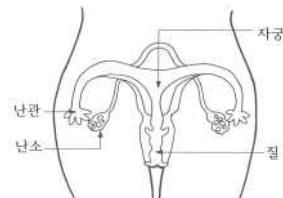
“선생님, ○○이가 어제 드디어 저녁 첫 생리를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생리가 늦어서 걱정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되네요. 생리대 지도도 해야 하고 알려줄 것도 많은데.. 잘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성장에 따른 몸의 생리적 변화... 어떻게 지도할까??

몸의 각 기관 명칭과 역할



- 음경 : 긴 풍선처럼 생겼고 커지고 딱딱해지기도 함
- 고환 :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알처럼 동글동글 만져짐
- 정자 : 남자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기 씨앗
- 요도 : 음경 안에 있고 정자가 들어있는 물이나 소변이 이곳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감
- 자궁 : 뱃속 아기의 집과 같은 곳
- 난자 : 여자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기의 씨앗
- 질 : 남자 음경 밖으로 나온 정자가 난자를 만나려 들어가는 길이며 뱃속 아기가 태어날 때 나오는 길
- 난소 : 여자 몸에서 아기의 씨앗을 만들어 내는 곳



발기, 사정, 몽정 알아보기

- 발기 : 음경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으로 월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발기가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기
- 사정 : 보통 발기 후에 일어나며 크고 딱딱해진 음경 안에 정자가 들어있는 물이 가득 차서 음경 밖으로 나오는 것
- 몽정 : 자고 일어났는데 팬티나 이불이 젖어 있다면 자는 동안 사정한 것으로 이렇게 자면서 하는 사정을 몽정이라고 함
- 몽정 후 대처법 : 비누를 사용하여 음경과 생식기 주변을 깨끗이 닦고 팬티 갈아입기 팬티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숨기지 않기

여자 생식기 관리하기

- 미지근한 물로 비누를 사용하여 하루 한 번 샤워하기
- 질을 씻을 때는 되도록 맹물로, 항문은 꼭 비누로 닦기
-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꼭 붙는 팬티보다 면으로 된 팬티 입기

심화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2005\)"](#), 김한경·박용숙, 사회복지 전문출판 나눔의 집



내 몸이 달라졌어요

♀♂활동 목표

사춘기 남녀의 생리적 변화를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활동 내용

○ 활동1 아빠 준비 신호 알아보기

- 남자 생식기의 이름과 하는 일 알아보기
- 발기·사정 알아보기
- 몽정 후 대처법 알아보기

○ 활동2 엄마 준비 신호 알아보기

- 여자 생식기의 이름과 하는 일 알아보기
- 유방발달의 의미와 브래지어 착용 방법 알아보기
- 월경현상 알아보기

○ 활동3 소중한 몸 깨끗하게 관리하기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위생 교육은 이렇게~

-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를 자신의 느낌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자폐성장애 학생 특성상 복잡한 이론 교육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느낌을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수나 양치질을 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목욕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익히고 또 자신의 기분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일반화시켜주는 것이다.
- 위생 교육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함은 물론 타인에 대한 예절 교육이다. 깨끗한 몸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나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 기분이 좋다거나 만족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험이 쌓이도록 해야 한다.
- 학령기에 접어들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닦도록 하는 지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남학생의 경우 아빠가, 여학생의 경우 엄마가 목욕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학생 특성 상 이런 지도가 가능하지 않은 정도의 인지 수준을 보인다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닦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학교 중학교 3학년 교실, 수업 도중 손을 쉬지 않고 흔들어대던 한 남학생이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뺏다를 반복한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

사춘기 남녀의 청결 지도의 필요성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호르몬 분비와 왕성한 활동으로 자칫 불쾌한 냄새가 나기 쉬운 만큼 올바르게 습관화된 개인위생 지도는 중요하다. 특히 청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장애학생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춘기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청결 교육은?



손씻기

자위행위와 관련된 위생 교육

- 손 씻기 : 손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고, 세균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위행위 전·후에 손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좋음.
- 목욕하기 :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 및 대인관계, 이성 교제와 관련하여서는 평소 목욕하는 습관이 필요함.



목욕하기

- 몽정·월경의 올바른 처리 : 사춘기의 생리적 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자위행위 후 나오는 분비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및 월경 시에 생리대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태도는 중요함.



출처 -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2015)



소중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활동 목표

개인위생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활동 내용

○ 활동1

손 깨끗하게 씻기

손을 씻는 이유 알기

올바른 손 씻는 방법 익히기

○ 활동2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기

목욕하는 이유 말하기

목욕하는 순서와 방법 익히기

○ 활동3

생식기 깨끗이 하기

생식기의 소중함 알기

생식기 위생의 필요성 및 청결 관리 방법 알기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 자폐성장애 학생 중에는 이물질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종종 있다. 평소 청결에 대한 의식과 습관화로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자폐성장애 학생 중에는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평소 공·사적인 장소에 대한 인식 및 구별을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 자폐성장애 학생 중에는 충동적인 성적 행동에 집착하여 습관화된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성교육 시간을 통하여 생식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식기 위생의 바른 방법을 강조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Q4

출근길에 가끔 한 학생을 만나곤 한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혼잣말을 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등교하는.
그러던 어느 날,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더니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대로변에서 ~~
순간, ‘이걸, 우째~ 달려가, 그만!!’ 해야 하나?... >;<

성적 행동의 발달은?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 못지않게 신체발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성에 대한 관심과 충동에 대해 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표현 행동을 익히지 못해서 사회적 관습들을 무의식적으로 어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성적인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행동에 대해 처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더 부적절한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성적 행동에 필요한 교육은?



장애학생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공개적인 자위행위와 노출증, 지나친 신체접촉 행동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학생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러한 행동이 사적인 행동이며, 사적인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행동을 구분하여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 *장애아이를 위한 사춘기와 성 이야기(2015)*



성적 관심이 싹터요

♀♂ 활동 목표

성적 충동이 일어날 때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구분하여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 활동 내용

○ 활동1

마음 열기

- 성적인 감정의 의미 및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 충동적 성적 상황 사례 알아보기

○ 활동2

성적 충동에 대한 대처 및 절제 방법 알아보기

-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인 충동에 바르게 대처하기
- 성적 충동 절제 방법 알아보기

○ 활동3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구별하여 행동하기

-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구별하기
- 자위행위와 연관 지어 장소 구별하기
- 좋아하는 상대와 스킨십을 할 때 장소 구별하기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 자폐성장애 학생은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감정만큼 타인의 감정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됨을 인식시킨다.
- 부적절한 성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인식시킨다.
-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구별시킨다.
- 성에 관한 이야기나 연행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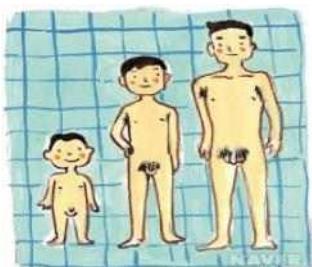


중학교 2학년 교실. 수업 시간.

모두들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한다. “선생님, 고추가 커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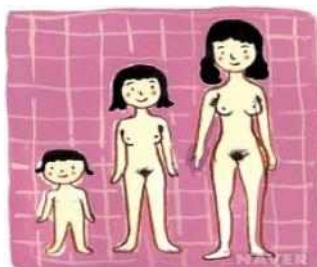
아이고~ 그건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사춘기 남녀의 신체적 변화



<사춘기 남녀의 신체변화>

- 어깨가 넓어진다.
- 목소리가 굵어진다.
-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위에 털이 생긴다.
- 키가 커진다.
- 체중이 늘어난다.
- 가슴이 커진다.
- 엉덩이가 커진다.



왜 자꾸 짜증이 날까?

- 호르몬의 영향으로 몸과 마음에서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됨
-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져 어른들의 이야기를 간섭하는 것처럼 느낌
- 현재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감정에 따른 행동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함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는 선언합니다!



-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 나는 다른 사람의 몸도 내 몸처럼 소중히 하겠습니다.
-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내 몸의 변화를 사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 나는 나의 감정을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나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2015)



몸과 마음이 자라요

♀♂활동 목표

사춘기 남녀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알 수 있다.

♀♂활동 내용

○ 활동1

사춘기의 의미 이해하기

아이와 어른의 모습 비교하기

사춘기의 의미 알기

- 아이에서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몸과 마음이 변하는 때

○ 활동2

사춘기 남녀의 변화 알아보기

사춘기 남녀의 신체적 변화 알아보기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알아보기

○ 활동3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따른 나의 다짐하기

♀♂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사춘기 성교육 시 고려할 점

- 성교육은 생활연령에 알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비장애인과 같고 이러한 변화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교육태도가 필요하다.
-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교육과 이를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폐성장애 학생이 성문제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성희롱, 성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충동 또는 호기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한 좋거나 불쾌한 느낌을 구분하고 타인의 기분을 이해하도록 ‘자신의 느낌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 자폐성장애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라 글씨, 그림, 영상 등의 다양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 가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스킨십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모 혹은 가족, 친척들과의 스스럼 없는 스킨십을 자폐성장애 학생은 ‘친근감의 표현’이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친근감의 표현’이 어느 순간 강한 성적 느낌으로 변화되어 표현되는 것에 가족이나 교사 또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



Q6

중학교 2학년 남학생.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 수업 시간에는 그 여학생만을 쳐다보고 쉬는 시간에는 옆에 가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반 친구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여학생은 난감한데~ -.-;;

사랑이 시작되는 청소년기

자꾸 눈이 가고, 어쩌다 몸이 스치면 심장이 뛰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있나요? 전에 느껴 본 적이 없던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땐 두렵고 떨리겠지만 좋아하는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고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고, 직접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음을 고백한다면 상대방이 당황하겠죠? 만약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참 예쁘고 소중한 것이랍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감정표현

지켜주세요!

- 신체접촉 피하기(몸 비비기, 끌어안기 등)
- 일방적인 표현 하지 않기
(하트 날리기, 공개된 장소에서 쳐다보기, 교실 찾아가기, 큰소리로 사랑 고백하기 등)
- 이성 친구 몸 쳐다보지 않기



이성교제는 서로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손잡기 등의 스킨십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교제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이죠. 스킨십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스킨십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양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기분을 분명히 말해야 하고, 상대가 싫어하면 스킨십은 바로 그만 두어야 해요.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에 대해 약속하면 좋겠죠.

출처 -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2015)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활동 목표

이성 친구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절을 지키며 교제할 수 있다.

♀♂활동 내용

○ 활동1

이성 친구 알기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 구분하기

 내가 바라는 이성친구의 모습 찾기

 - 성격, 취미, 운동, 외모 등

○ 활동2

건전한 이성교제

 이성 친구에게 좋아하는 감정 표현하기

 데이트 가능한 장소(놀이공원, 영화관, 공원, 마트, 백화점) 찾기

 바람직한 데이트 방법 : 함께 취미생활(자전거, 산책, 관람 등)

○ 활동3

이성교제와 예절

 이성교제 시 지켜야 할 예절

 - 시간약속, 옷차림, 언어사용, 데이트비용, 행동

 이성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동

 - 교제를 거절당하였을 때 무조건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지 않기

 - 이성 친구의 스킨십이 싫을 때 싫다고 분명히 말하기

 - 이성과 싸웠을 때, 대화하며 싸운 이유 알아보고 잘못한 점 먼저 사과하기

 이성교제 시 상황에 따라 상대방 존중하는 표현 연습하기

 - 데이트 장소 및 활동 선택할 때, 헤어질 때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건강한 이성교제를 지도할 때

- 이성교제는 인정하고 존중받는 것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성친구와 동성친구와의 차이, 친구 간의 예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스킨십을 약수로 대체하도록 가르치며 이성교제 시 포옹, 손잡기 등 허용 가능한 스킨십에 대하여 지도한다.
- 이성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 교사의 개입이 어렵다. 자폐성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성교제를 인정한다는 표현을 하여 교제하는 이성을 학생이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Q7

아침에 등교하면서 평소 밝고 쑥스러움이 많은 한 여학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슈퍼에 갔는데요, 아저씨가 자꾸 제 몸을 만져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일렸어요. 선생님이 아저씨 좀 혼내주세요~”

장애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은?

1)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 알기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가르칠 때는 접촉을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즉 ‘좋은 접촉, 좋은 느낌’, ‘나쁜 접촉, 나쁜 느낌’을 구분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2) 좋은 비밀(surprise)과 나쁜 비밀(secret) 구분하기

비밀이 드러났을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비밀이며, 부모 등 가족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고 말하지 말라고 강요를 받은 비밀은 나쁜 비밀이라 할 수 있다. 나쁜 비밀은 반드시 꼭 부모, 교사 등 학생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3) 하루 동안 경험한 일을 부모(교사 등)에게 이야기하기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기표현을 잘하는 것이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편안하게 말하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말이라도 해도 팬fbe음을 알려준다. 자녀가 학교나 복지관 등을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도록 한다. 지적장애 자녀가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즉 하루 동안 경험한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보면 가해자의 길들이기 과정(grooming)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도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예방이나 조기발견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심화 - 이경희(2013).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해요

♀♂활동 목표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내용

○ 활동1

좋은 접촉 알아보기

- 부모가 칭찬하며 머리 쓰다듬는 행동
- 친한 친구와 악수하거나 손잡는 행동
- 어른이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

○ 활동2

나쁜 접촉 알아보기

- 일방적으로 가슴이나 생식기 등 신체를 만지는 행동
- 스커트를 들추거나 바지를 내리는 행동
- 갑자기 껴안거나 뾰뽀하는 행동

○ 활동3

나쁜 접촉이 성폭력임을 알기

-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
- 자신은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범죄 행위
- 나쁜 접촉이 일어나면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기



자폐성장애 학생 성교육 목표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성교육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2012).

첫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욕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표현하기

둘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행동을 익히기

셋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히고 의도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Q8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수업시간에 명하니 있다가, 이상한 신음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한다. 학생이 무엇을 봤는지 상상이 될 정도여서 민망하다.

음란물을 보면 안 되나요?

음란물을 보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에요. 간혹 성관련 범죄자들 중에 음란물을 많이 봤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음란물을 본다고 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음란물을 보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음란물의 내용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음란물속의 남자와 여자는 자극과 흥분을 위한 과장되고 일방적인 성관계를 해요. 하지만 성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또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지게 되기도 하지요.

음란물을 보고 난 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성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 처벌 사항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에게 알선 행위를 한 경우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경우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자 중 동종 전과자가 다시 제작·배포를 한 경우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없이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 가학적인 성범죄 음란물을 다량으로 유포한 경우
-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을 경우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을 경우



음란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활동 목표

음란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바르게 인식하고 음란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실천방법을 안다.

♀♂활동 내용

○ 활동1

음란물은 무엇이며, 음란물을 보는 이유 알아보기

음란물이란?

-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음란물을 보는 이유

- 사춘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 스트레스 해소 및 습관적으로

○ 활동2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음란물의 내용을 통해 왜곡된 생각으로 성폭력 가능성 및 학업 또는 생활에 지장이 생김

음란물의 내용은 일방적, 과장, 폭력적, 자극적이다

○ 활동3

음란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실천방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5년 이하 징역, 천만원 벌금)

건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음란물을 보지 않기 위한 다짐과 극복방법 발표하기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자폐성장애는 시각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 자폐성장애 학생은 특히 시각적 정보에 따라 음란물에 대해 오래도록 머릿속에 기억되어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 음란물의 경위를 차단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 처벌 사항>과 관련하여 상황을 이미지화 시켜서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며, 음란물을 보지 않도록 다짐을 하도록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방과 후 집에서 친한 친구와 즐겁게 인터넷 채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서 ‘조건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대화창이 뜬다. “조건 만남?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성매매가 뭐예요?

성매매란 돈이나 대가를 제공하고 성관계 또는 성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성관계, 또는 성행동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이지요.

성매매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어요.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여성의 사진이 담긴 광고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배너들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지요. 또 청소년들이 채팅을 하는 대화창이나 인터넷 카페에서도 ‘조건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해요.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에서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무감각해진 것이지요.

성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매매는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 채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하지요. 또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배와 폭력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을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허용도가 높은 편이에요. ‘남자들은 한번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기도 해요. 성매매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청소년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가난, 폭력, 가출 등의 원인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돼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약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듯 다가가 그들을 이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보통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청소년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깨닫지 못해요.

성은 결코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동이랍니다.



상화 - 예림당, 초등과학학습만화 Why? 사춘기와 성(2008), 115p



성은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에요

♀♂활동 목표

성매매의 개념 및 위험성, 대처방법을 알 수 있다.

♀♂활동 내용

○ 활동1

성매매의 개념 알아보기

- 성매매란?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성을 마치 물건처럼 돈으로 팔고 사는 행위
- 성매매를 하는 이유? ‘용돈을 벌기 위해서’, ‘비싼 옷이나 가방 등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등등
- 성매매 경로?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남

○ 활동2

성매매의 위험성 알아보기

- 단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성매매를 한다면 이것은 지극이 잘못된 생각임
-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① 건전한 정신을 파괴하는 것 ② 성병에 감염되거나 임신 등 큰 책임이 뒤따르는 일 ③ 성폭력의 위험도 따름

○ 활동3

이럴 땐 이렇게! (성매매 대처방법 알아보기)

- 성매매방지 온라인 홍보관(stop.or.kr/info)에서 성매매방지 홍보 교육자료 감상
-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Youth Keeper) 설치
- 학교 및 상담기관(청소년전화 1388)에 도움 요청하기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하면 좋습니다

자폐성장애 학생이 겪는 성에 대한 문제들은 사춘기 신체적 성숙과 성 충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따라서 성매매에 관련된 의미와 지식을 자폐성장애 학생 개개인의 지체정도와 상태에 맞게 글씨,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제공하여 성매매에 대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함.



출처 -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2015)



Q10

수업 종이 올리고 한 남자 아이와 한 여자 아이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나는 여자니까 환하고 밝은 노란색으로 칠할래!

남자아이: 야, 나도 노란색 좋아해! 노란색이 여자 아이만 칠하라는 법이 라도 있나?

여자아이: 넌 남자아이니깐 노란색 보다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맞아!

우리 모두 존중해요

위의 글 중 색깔뿐만 아니더라도 직업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가지는 직업은 예를 들어 경찰관, 소방관, 자동차 정비사로 나누어지고, 여자가 가지는 직업은 간호사, 네일 아티스트 등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똑. 같. 은 생명으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남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남녀 역할을 나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남자도 간호사, 네일 아티스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여자도 경찰관, 소방관, 자동차 정비사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여자가 버스 기사를 한다고?!

일부 버스회사가 배우자 없는 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사로 채용하지 않아 남녀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버스회사 중 상당수가 여성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업계는 여성에게 운전은 힘든 일이어서 체력적으로 약하여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잦으므로 남성을 우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버스기사 1만 1651명 중 여성은 335명 (약 2%)에 불과하다.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 - 한국경제(2014.09.17.), "싱글맘이 무슨 버스 운전..." 시내버스 차별 논란



남자와 여자 우리는 모두 같아요!

♀♂활동 목표

남녀의 성 평등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활동 내용

○ 활동1

‘차별’의 개념 알기

‘남자’여서 차별 당했던 경험 이야기 나누기

‘여자’여서 차별 당했던 경험 이야기 나누기

남자와 여자 서로 차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기

○ 활동2

‘성 평등’의 개념 알기

직업, 색깔, 놀이 활동 등에 있어 평등함 알기

‘성 평등’에 있어 행복한 점 이야기 나누기

○ 활동3

성 평등 약속하기

자신만의 ‘성 평등’ 약속 슬로건 만들기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나누지 않도록 약속하기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 친구 혹은 가족에게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가사를 맡을 수 있으므로 서로서로 돋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선택, 체육 활동 수업, 업무 선정 및 분담 시 성을 구별하여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생명의 존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남자와 여자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① !

*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 자폐성장애 학생 지도 Tip ② !

* 아이의 자위행위 또는 이상행동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점

아이가 갑자기 사타구니(잠자 포함)만지면 엄마가 우선해야 할 것은 소아과에 데려가서 소변검사 하여 요도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함. 요도감염은 항생제 처방으로 쉽게 치료됨. 또는 곰팡이 감염일 수도 있음. 이런 기본적인 의학적 감사 후에도 계속되면 자위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음……. <출처 : <http://cafe.naver.com/asperger/51793>>

* 자폐성장애와 성(性)

자위행위는 가르칠 필요가 있는 기능적 기술이며 성적인 긴장감을 안전하게 풀어주는 능력은 많은 자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캐서린 팩스턴.아이린A.이스테이. 시그마플레스).

어떤 자폐성장애의 남성들은 성이나 성적 매력에 관해서 매우 독특한 관심사를 가질 수도 있는데, 여성의 속옷이나 여성의 신체 일부분에 집착하며, 상대가 보내는 불쾌감이나 거부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 내지 못하는 경구가 많기 때문에 스토퍼로 받아들여져서 학교에서 성추행 범으로 몰리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성교육(?)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주로 잘못된 정보일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적절한 사회적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성적인 충동만 자라게 내버려 두면 당혹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성장애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로 싶은 열망은 크지만 다른 사람의 불온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육체적 학대를 입을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심화 - 이현숙(2013). 자폐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폐성장애 학생 성교육 연구문헌 ① !

* ‘자폐인들의 성적행동특성과 그 지원 교육 탐색’(정진옥, 신현기 교수. 2006) 연구논문 中

1) 성지식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폐인들의 성지식은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비장애인들은 물론 타 장애인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심화 - 이현례(2013). 자작장애인 성폭력
여부교육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성적행동

Ruble 과 Dalrymple(1993)의 연구에서는 9~38 세 사이의 자폐인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자폐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성적행동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자폐인들은 그 부모들이 평상시에 부적절하다고 말한 성적행동들을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대상의 65%가 공적장소에서 자기 신체의 사적인 부위를 만졌으며, 23%가 공적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18%가 이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고, 그리고 14%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자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략) Hingsburger, Griffiths, 그리고 Quinsey(1991)의 연구는 일탈적인 성적행동과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구별하는데 통찰을 제공하였다. 이들이 자폐인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성적표현은 이들에게 적절한 성지식과 대인관계를 지원해 주는 환경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성적관심

Ousley와 Mesibov(1991)은 고기능 자폐성인들이 정신지체인들 보다 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자폐 남성들이 보여준 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서 다양함을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성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표현 하였으며 성적경험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보여준 자폐 여성들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일화를 제공해 주는데, 어떤 남성 자폐인의 경우 플레이보이지로 방을 온통 도배하고, 여성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상당한 정도 가지고 있었고 한 여성과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 관련한 사회성 기술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회적 접촉도 실제로 없었다. 20대 후반의 한 남성 자폐인은 한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데이트를 해 본 경험은 없었다고 하였다.

(중략) Burgondien, Reichle, 그리고 Palmer(1997)의 연구는 89명의 자폐인들 중에서 약 25%가 사람들을 쳐다봄으로써 성적으로 각성된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성적 관심은 안면이 있는 편안한 사람들, 직원들, 동료 거주인들 또는 그룹 홈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자폐인도 아이들에게 끌리거나 각성된다고 하지는 않았다.

4) 자폐인들의 성적발달을 도모하는 성교육

Mesibov(1985)는 주장하기를 모든 수준의 자폐인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성적인 욕구와 행동, 또는 느낌을 경험하기에 이에 대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도움의 양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단순한 지도를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도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Mesibov의 주장처럼 비록 모든 자폐인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여길지라도, 우리가 자폐인들의 성교육에 뛰어들어 관심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으며 어떤 성적 행동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강도 있는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자폐인들에게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자폐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모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아니다. 자폐인들은 개인마다 욕구와 기술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 개인의 준비도, 능력 그리고 관심은 이들이 성적인 인식과 표현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해 준다.


자폐성장애 학생 성교육 연구문헌 ② !

* ‘사춘기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들을 위한 올바른 성 교육 방안에 관한 고찰’(진권장, 손영수, 2007) 연구논문 中

1)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의 특성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도 성적 충동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과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성적 행동과 느낌을 경험한다. 비록 같은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이라도 각기 그 정애양상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도움의 양상은 같은 발달 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움의 양과 질에 따라, 특히 “지역사회의 자폐성장애인의 성 관련 우려나 개인의 성적 권리를 지원하는 외부인”(Schopler 와 Mesibov, 1993)에 따라,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의 성적인 관심은 달라진다.

2) 필요성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교육과 그들의 입장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의식과 성적 행위에 관련되는 책임감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책임감 있는 성 의식을 통하여, 잘못된 성 행위에서 벗어나며, 성적 학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합리적인 성 교육을 통하여 위에 열거한 소속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적 행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스스로도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3) 부당한 성적 학대와 성폭력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이 잠깐 동안의 타인의 마음읽기 어려움에서 오는 방심과 실수, 성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선택을 경고한다. 그의 지적처럼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은 항상 성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성 교육이 필요하다. 상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아니!”라고 표명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인지치료 등을 통하여 평소의 분별력을 길러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꾸준히 교육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성 폭력이 일어날 만한 장소나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다.

4) 판별학습

이러한 조정능력과 판별력의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여 스스로와 타인을 당혹스럽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폐성장애 학생이 배워야 할 가장 기초적인 성 교육은 단순한 판별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별력으로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고, 사람에 접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여러 행동에 간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러한 판별력이 흐려졌을 때에, 제한된 흥미와 성적 집념, 과도한 분별력을 잃은 자위행위, 성 폭행과 성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으며, 거꾸로 성 학대나 성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교육용 그림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 관련 신체구조를 설명한다. 성 욕구를 책임감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부족으로 인한 소외감에 대하여 지도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라커룸에서 성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음을 명심하고, 그것들의 진위와 과정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한다.

5) 성교육 프로그램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사회적 탐색에 결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도한다. 많은 경우 특히 부모들은 사춘기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성이란 피할 수 있기를 원하는 주제가 된다. 그러나 그들이 자위를 한다든지, 신체적인 성적 호기심을 보인다든지, 침대 밑에 야한 그림이나 사진을 숨긴다든지 하면, 이는 곧 성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을 드러내는 징표로 보아야 한다. 이때가 되면, 부모나 교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성이란 타기할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설명해야 하며 곧 적절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Q1~10까지의 성교육 주제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1회기 : 성이란?

2회기 : 다양한 몸과 마음의 변화

3회기 : 성 예절-청결

4회기 : 성 예절-장소

5회기 : 사춘기

6회기 : 이성교제

7회기 : 성폭력 예방

8회기 : 음란물 예방

9회기 : 성매매 예방

10회기 : 성 평등

[제공]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II. 지도사례 21가지

사례 1) 언제 끝나요, 몇 시예요?

사례 2) 난 화가 나면 폭발해요!!!

사례 3) 난 친구들보다 창문이 더 좋아요!

사례 4) 교실보다 복도가 더 좋아요

사례 5) 나도 안경이 쓰고 싶어요

사례 6) 심심할 때는 손을 만지고 놀아요

사례 7) 하교시간을 꼭 알고 싶어요

사례 8) 지하철이 정말 좋아요

사례 9) 음악과 함께 시~작!

사례 10) 이름 부를 때가 좋아요!

사례 11) 내가 먼저

사례 12) 손목이나 목을 꺾어요.

사례 13) 특정 소리에 예민해요.

사례 14) 주의집중이 너무 힘들어요.

사례 15)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 느낄 수 있어요

사례 16) 언제나 관심 받으며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사례 17)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앉아있을래요

사례 18) 높이 오르고 싶은 범이

사례 19) 성민이는 이런 학생이예요

사례 20) 나는 스타킹이 좋아요

사례 21)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지도사례 1

언제 끝나요, 몇 시예요?

양교사 고민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자폐성 장애 2급입니다. 시간표가 바뀌는 것에 민감하며 시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시계, 낙서하기, 시계 그리기, 간식 먹기이고 싫어하는 것은 수업시간표가 바뀌는 것이다. 수업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자신이 인지하고 있지만 교사에게 매번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사회 정서적 특성으로는 스스로 즐겁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며 가수 EXO를 매우 좋아합니다.

유교사 의견

활동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학생에게는 가능하다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미리 순서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오늘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거나 시작시간과 끝마치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면 시간이 바뀌는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시간을 보기 힘든 이 여학생에게는 전자시계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임교사 의견

우리 학생들 중에는 자폐성장애 학생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묻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맥 원리’를 써보는 건 어떤가요? 초기 일정표에는 좋아하지 않는 과제들을 넣어두고 그 후에 좋아하는 활동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에 참여시켜서 일정에 대하여 완벽하게 소화도 하고 시간의 변화에 대해 민감성을 없애는 방법이지요.

전문가 조언

임 선생님, 윤 선생님 의견 모두 감사드립니다.^^ 임 선생님 말씀처럼 유성펜과 응판을 활용하여 시작과 끝을 알려주어 일정을 체크하고 “○○ 수업 시간이에요”라고 말해주고 활동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시각을 물으면 싫어하는 것은 자신이 시계를 보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임 선생님 말씀처럼 ‘전환’을 활용하여 이전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옮겨 가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에게 전환에 대해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여 학생이 좋아하는 EXO 사진을 보여주는 건 어떤가요?

- 자폐스펙트럼 학생 교육의 실제(시그마프레스) - P.169, 293

지도사례 2

난 화가 나면 폭발해요!!!

유교사 고민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자폐성 장애 1급입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면 폭발하여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려요. 좋아하는 것은 친구들과 선생님 도와주기, 사탕, 새우깡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아하여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며 학교에 등교를 하면 선생님들께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 학생입니다.

인기가 많은 친구임.

이교사 의견

저는 학생의 특성을 보고 ADHD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성에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기술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결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이 학생 고민에 대해서 저 또한 저희 학급에 위와 같은 학생이 있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교사 의견

학생이 화를 내기 전에 나타내는 행동이 있지 않을까요? 화가 나기 전에 행동, 화가 왜 났는가, 행동 또는 화가 난 후의 행동 등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화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학생을 마음이론으로 연관하여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헤아려 가며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조언

이 선생님, 최 선생님 의견 모두 감사드립니다.^_^ 저도 교직시절에 화가 나면 폭발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이 학생처럼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행동도 올바른 학생인데 화가 나면 제어를 못하는 친구는 또 처음이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 선생님처럼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하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화가 나기 전에 마음을 헤아려주고 학생이 체육활동을 좋아한다고 하니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에 뛰뛰기를 하게 하여 화가 누그러지도록 기다림을 주세요.

- 정서 및 행동장애 (학지사) - P.374-375

지도사례 3

난 친구들보다 창문이 더 좋아요!

권교사 고민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자폐성 장애 1급입니다.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아주 좋으며 잘생긴 외모로 친구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지요. 좋아하는 것은 자신만의 사색 즐기기, 창문 바라보기이며 초코과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학습활동을 싫어한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 활동 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는 활동을 좋아하며 창문을 바라보고 사색을 즐기거나 웃기도 하지만 가끔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여 안쓰럽네요.

황교사 의견

위 학생 같은 경우는 자폐의 특징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보다는 사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며 아동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자폐의 완벽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학생이 좋아하는 초코 과자로 친구들과 함께 놀이 활동을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교사 의견

저도 황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의 완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의 남자 학생에게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거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식사지도 시간이 어떨까요?

전문가 조언

김 선생님, 황 선생님 의견 모두 감사드립니다.^_^ 자폐성장애 학생을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접해본 저도 선생님들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더 생각해본 것이 있다면 학생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을 하였다면 그 표현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의사소통이 힘든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반향어(反響語,echolalia)를 보이기도 하는데 반향어의 표현 방법을 이해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자폐스펙트럼 학생 교육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 P.169, 293

지도사례 4

교실보다 복도가 더 좋아요

행동 특성

교실에서 친구들과 활동하는 것보다 복도 및 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여 수업 참여 시간을 좀 더 늘리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본 차시 관련 학습자료 준비 및 개별 과제물을 넉넉히 제시함.
- 약속된 시간 집중 시 쉬는 시간 및 교사와 협의한 시간에는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약속을 어기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갈 때는 담임교사 트레이닝 바지와 아끼는 12색 네임펜 세트를 눈앞에 보여주며 협상을 시도함.

지원 방법

지원 결과

행동 분석 결과 혼자 배회하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교실 활동에 흥미가 없을 때 더 나가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흥미를 끌만한 학습 자료와 과제물을 넉넉히 제공하고 쉬는 시간과 협의된 시간을 충분히 지원하자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비율도 높아지고 학습태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끔 자리를 박차고 튕겨나갈 때는 좋아하는 물품으로 하는 협상(또는 협박)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죠.

강화제의 사용법과 소거 : 강화물

강화물을 사용하는 기술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일단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강화물 자료를 조사한다. 강화물의 유형을 미리 분리해 두는 것이 좋다. 음식물 중에서의 선호물, 물질 중에서의 선호물, 좋아하는 행동에서의 선호, 좋아하는 감각에서의 선호, 사회적 행동에서의 선호를 알아내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 김형준, <자폐학생과 잘~지내기>, 한장연, 2011, P.286

전문가 조언

지도사례 5

나도 안경이 쓰고 싶어요

행동특성

안경에 집착해서 친구나 조금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교사를 만나면 쓰고 있는 안경을 빼았았어요. 그리고는 주변의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거나 혼을 내려고 하면 혼자 신이 나서 과도하게 웃으며 안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기분이 Up! Up! 되었죠.

1차지원

- 행동지원 : 안경을 빼앗는 즉시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기. 상대방에게 안경이 중요한 물건이고 잘못하여 다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직접 사과하고 돌려주도록 지도함.
- 지원결과 : 안경에 손을 대는 빈도가 살짝 줄기는 했지만 담임교사의 눈을 피해 계속 되었고, 행동 후 제지하면 혼자 웃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은 변함이 없었어요.

2차지원

- 행동지원 : 안경을 빼앗아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쁘게 다시 써워 줘”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기.
- 지원결과 : 안경을 빼앗은 후 혼자 웃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안경을 바르게 써워주기 시작했어요. 간혹 안경을 써보고 싶어 할 경우 한 번 써본 후 거울을 보도록 하면 얼굴 확인 후 바로 돌려주었고, 타인의 안경을 만지는 행동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구조화 패턴의 이해: 부적응행동의 풀세트는??

‘선행자극(A)-부적응행동(B)-후속행동(C)’에 이어 ‘습관화된 혼내기 반응(D)’이 있을 수 있다. 자폐성장애 학생의 구조화를 깨는 것이 곧 부적응행동 지도의 키! 거기에서 그 구조화를 깨기 위해서 풀세트의 마지막 한 가지를 빼는 방법이 도출된다.

- 김형준, <자폐학생과 잘~지내기>, 한장연, 2011, P.271

전문가조언

지도사례 6

심심할 때는 손을 만지고 놀아요

행동특성

학부모 상담 중 어머니께서 손을 뜯어 상처를 내는 행동이 계속되어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학생의 손등엔 역시나 손톱으로 뜯어 이미 딱지가 앓았거나 속살이 벌겋게 드러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1차지원

- 행동지원 : 수시로 손을 점검하여 상처를 확인하고 손을 뜯는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상기시킴. 손을 뜯는 장면 목격 시 바로 중지시키고 함께 상처를 확인 후 하지 않도록 지도.
- 결과 : 처음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조용히 책상 밑에서 지속되고 있었어요. 계속 관찰해보니 주로 심심하거나 기다릴 때, 또는 불안함을 느낄 때 손을 뜯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차지원

- 행동지원 :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 또는 작업 활동 도구들을 교실에 다양하게 준비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수시로 교실 내 또는 익숙한 장소로 이동하는 간단한 심부름을 제공함. 지속적으로 손의 상처를 확인하고 상처가 줄었거나 없을 때 많이 칭찬함.
- 결과 : 여전히 심심하거나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용히 손을 뜯으려고 시도하기는 해요. 하지만 좋은 습관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노력해서 손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 몸이 장난감; 심심해서 빈틈에 하는 행동

대안행동을 제시한다. 장난감을 주거나, 놀이를 시킨다든가 하는 재미 있는 활동을 하게 하면 새로운 활동에 주의집중을 하면서 이전의 행동들이 줄어든다. 그러나 다른 활동 중에서 습관적으로 이전의 행동이 나오면 즉시 불쾌한 자극을 주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넣어주어야 한다.

- 김형준, <자폐학생과 잘~지내기>, 한장연, 2011, P.185, 251

전문가조언

지도사례 7

하교시간을 꼭 알고 싶어요

행동특성

매일 아침 등교하면 항상 “O교시 끝나고 집에 가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교사가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생각한 답이 아닐 경우에는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1차지원

- 행동지원 : 단어와 함께 제시되는 그림을 사용해서 시각적 일정표를 제공. 시각적 일정표를 개인사물함에 붙여주며 직접 하교시간을 확인하도록 지도.
- 지원결과 : 다음 날과 이튿날은 질문을 하지 않는가 싶더니 주말이 지나고 등교하면서 다시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2차지원

- 행동지원 : 학생이 질문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오늘 하교시간은 시간표에서 확인해보렴.”이라는 언어적 촉구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확인하도록 지도.
- 지원결과 : 질문은 계속 하지만 교사가 답을 하지 않아도 질문을 반복하지 않고 스스로 시간표에서 하교시간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질문 자체를 소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지도할 생각입니다.

반복적 일상과 의례적 행동&일정표

반복적 일상과 의례적 행동에 대한 요구는 자폐성장애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환경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 일상과 의례적 행동은 일일 일정표에 반영되어야 하고 매일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일정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전환을 촉진시킨다.

- Beth Fouse 외, <자폐아동을 위한 행동중재전략>, 학지사, 2006, P.101

전문가조언

지도사례 8

지하철이 정말 좋아요

행동특성

지하철을 좋아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자유시간이 생기면 항상 지하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똑같은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립니다.

1차지원

- 행동지원 : 수업시간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함. 대신 더 다양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
- 지원결과 : 수업시간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해 주면 주제에 맞게 그림을 곧잘 그립니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지하철 방송을 흉내 내는 등 반향어가 나타났어요.

2차지원

- 행동지원 : 수업시간에 지하철 방송을 흉내 내는 것은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행동이므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언어적 촉구를 하고, 수업과 연계된 학습지를 제공.
- 지원결과 : 학습지를 쓰는 동안은 지하철 방송을 흉내 내지 않는 등 행동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반향어&선행사건 통제

‘즉각 반향어(immediate echolalia)’는 어떤 사람이 방금 말했던 문장이나 문구의 마지막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연 반향어(delayed echolalia)’는 어제, 혹은 2주 전, 심지어는 여러 달 전에 들었던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사건 통제는 다양한 행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에서의 단서나 조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수용적인 반응을 형성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Beth Fouse 외, <자폐아동을 위한 행동중재전략>, 학지사, 2006, P.28,112

전문가조언

지도사례 9

음악과 함께 시~작!

행동 특성

사물함에서 시간표를 확인하고 교사가 함께 수업자료를 찾아주면서 자리에 앉도록 지도할 때는 바로 착석한다. 반면 스스로 준비하도록 지켜보면 수업시종을 들어도 사물함 앞에서 시간표를 확인하고 한참 후에 수업자료를 가져와 책상에 놓고 복도로 나가 제자리에서 뛰거나 교실을 돌아다닌다. 피아노 연주곡을 선호하여 피아노곡이 들리면 행동을 멈추고 음악에 집중한다.

지원 방법

수업 준비를 하고 자리에 착석하면 좋아하는 피아노곡을 들은 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1주일은 시종에 맞추어 수업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수업준비를 하고 자리에 착석하면 좋아하는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1주일 후에는 수업 준비종에 맞추어 수업 준비를 했을 때만 곡을 듣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수업시작 2분전 안내방송을 듣고 학생이 수업준비를 한 후 자리에 착석하면 선호하는 연주곡을 들려준다.

지원 결과

수업 준비종을 듣고 스스로 사물함에서 수업 자료를 가져오는 행동이 증가하였다. 자료를 책상에 놓은 뒤 착석하지 않고 교사에게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학생이 수업 준비를 하여 자리로 이동할 때 교사가 학생의 책상 가까이에 서있어 바로 착석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스스로 수업준비를 해 자리에 착석하면서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수업시간 수업에 집중하면서 착석할 경우 수업종료 5분 전에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주어 수업시간 중 자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수업시간 중 학습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전문가 조언

Applebaum의 연구에 의하면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음악은 효과적인 동기유발제로, 음악 외적인 것을 배우고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한다. 음악은 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감각 강화 제로 사용가능하다.

- 가족사랑음악치료 클리닉. 음악치료사례|자폐와 음악치료(3)
<http://www.music4family.org/> 공개 게시물

지도사례 10**이름 부를 때가 좋아요!****행동특성**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좋아하는 친구나 선생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점점 이름 부르는 소리가 커진다. 특히, 특수학급 수업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불려 진 학생이 싫어해서 교사에게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짜증을 내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지원방법

혼잣말로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 학생에게 이름 부르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나 기분을 물어보니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다는 표현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기능이라고 파악된다. 학생에게 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준다. 또한, 학생에게 질문카드를 주고 그 중에서 질문을 선택해 이름 부른 학생에게 질문을 하며 대화를 하도록 지도하였다. 타인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좋은 질문을 했을 경우 칭찬을 해주었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이름을 부를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 학생의 이름 부르기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지원결과

이름 부르는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아니나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교사와 눈이 마주치면 호명한 친구에게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통합 학급에서의 이름 부르기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 매 수업시간, 이름 부르는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더니 목소리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행동이 사라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긍정적인 수업참여행동을 보일 때 즉각 칭찬을 해주면서 학생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

- 기능평가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긍정적 행동지원을 계획하고 적용.
-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여 문제행동 발생과 미발생의 환경적인 요인을 판별한 후, 학생에게 적합한 선행사건과 후속결과에 대한 중재를 동시에 제공하면, 수업에 부정적인 행동의 감소 가능함.
- 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학생의 수업시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2003). 고동희, 이소현

전문가 조언

지도사례 11

내가 먼저

행동 특성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해도 본인이 먼저 대답한다. 또한 발표나 활동 순서를 정할 때도 무조건 자신이 먼저 하겠다며 “oo이가 발표해”, “oo이가 먼저.”라며 자기 이름을 넣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다른 학생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타인의 발표나 활동을 보지 않고 비딱한 자세로 앉아 다른 생각을 한다.

지원 방법

학생이 멀티기기에 관심이 있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위해 태블릿을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를 적용해보았다.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활동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기다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규칙에 따라 차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행동을 정의하고 이야기 주제를 선정하였다. 사전에 상황극을 제작하여 학생과 함께 시청한 뒤, 학생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상황에서 학생 자신과 친구들의 표정, 기분을 물어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고 변화된 행동으로 상황극을 함께 제작 한 후 영상을 확인하였다.

지원 결과

상황이야기를 제작하고 2주 동안은 수업시작 전에 태블릿으로 학생이 제작한 상황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발표를 할 때 지속적으로 “OO가 먼저 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 점차 감소하며 친구가 먼저 하는 것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황이야기에 따라 수업장면에서 착석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가 증가하였다.

전문가 조언

상황이야기

- 자폐성장애 학생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적합한 이야기를 만들어 적용.
-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반응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시각적 지침.
 - 태블릿 PC를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2016). 장은진, 김향자

지도사례 12**손목이나 목을 꺾어요.****행동특성**

중학교 3학년 자폐성장애 학생으로 몸무게가 114kg이 나가며 키도 커서 외관적으로도 위협적으로 보이는 학생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불안한 경우 상대방의 손가락, 손목, 목을 힘으로 꺾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원방법

A학생의 자폐특성상 스스로 기분을 풀 때까지 계속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특수학급에 있는 실내 자전거를 타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결과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화를 내거나 싫어하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전거를 웃으면서 탈 수 있었고, 기분도 많이 풀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김성운(2006)은 30분정도의 운동이 긍정적 정서변화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중간강도의 운동에서 긍정적이 기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 김성운(2006). 운동지속시간에 따른 정서와 EEG 대뇌반구 비대칭 변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2), 105-125.

지도사례 13

특정 소리에 예민해요.

행동 특성

특정한 소리에 예민한 학생이 있습니다. 평소 성격이나 행동이 예민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둔감한 편에 속할 정도로 느리고, 반응도 천천히 오고하는데 특정소리(자신이 싫어하는)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입니다.

지원 방법

아침마다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으로 학생의 정각신경을 정렬해 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가요, 국악 등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가요를 들을 때는 아주 즐거워합니다.

지원 결과

다른 학생들과 음악이 있는 통합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모든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 여러 가지 소리 들려주기 :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와 같이 우리 주변의 자연에는 많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플루트, 건반등과 같은 소리들도 들려주세요.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들려줄 때 더 잠들기 편하기도 합니다.
- 청각놀이 하기 : 자녀와 함께 조용한 곳에 앉아서 들리는 소리들을 판별하도록 한다. 찻길에서 나는 찻소리, 냉장고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등 주변에서 흔히 나는 소리를 듣도록 한다. 또, 이 소리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도 함께 해보도록 한다.

- <http://cafe.daum.net/happyautism>

지도사례 14**주의집중이 너무 힘들어요.****행동특성**

자폐성장애 학생인데, 주의집중이 너무 안 됩니다. 상동행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 학습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로 손으로 무엇인가를 뜯거나 만지거나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방법

처음에는 12색 색연필부터 시작해서, 만다라 칠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색연필의 색깔을 다양하게 해주었더니 다양한 색깔을 고르는 것도 재미있어 하여서 24색, 36색, 48색으로 늘려 주다가 이번에 72색 색연필을 사주었습니다.

지원결과

만다라 색칠하기가 주의집중력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색칠을 하는 동안은 상동행동도 없어지고 주의 집중하여 색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하는 상동행동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문가조언

만다라는 작업 활동을 통해 불안감이 사라지며, 긴장이 완화되고 이러한 무의식의 경험은 숨겨진 자신을 통합하고 갈등과 정서적인 안정, 주의집중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이정화, 2015).

- 이정화(2015). 만다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정서안정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도사례 15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 느낄 수 있어요

**대
상
학
생**

나이 : 18 성별 : ♂ IQ : 45 장애: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좋아하는 것 : 낙서하기, 음악듣기, 동요듣기
 잘하는 것 : 피아노 치기, 퍼즐, 글씨 쓰기
 싫어하는 것 : 운동하기, 밥 먹기

* 사회-정서적 특성

- 시간표, 일정에 집착, 매일 동일한 일과 요구(동일성에 대한 집착).
- 제한적이고 한정된 흥미, 음악활동 특히 특정 부분의 가사에서 즐거워함(즐거움을 나누지 않음).
- 구구단 외우기, 구구단송에 집착함.

* 행동적 특성

- 까치발로 걸어 다님
- 근육의 이완
- 양말을 잘 벗지 않음.
- 옷에 달린 택(tag)을 떼어버림 (명찰, 라벨, 장식 등을 싫어함).
- 발이 안 됨.
- 밥에 대한 거부감 (구토, 편식).

* 교육적 지원

- 시각적 스케줄을 제공하여 학생이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줌. 좋아하는 활동과 좋아하지 않는 활동이 다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비교적 인내하며 활동 모두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스스로 활동을 준비할 수도 있음.
(실제 : 하루 일과나 시간표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부득이한 변경 시 사전에 시간을 갖고 설득함.)
- 평소 꺼려하는 학습과 식사하기 등의 활동을 완료하면 보상을 제공함. 이 때 보상의 종류를 늘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양문봉 · 신석호, 2011).
(실제 : 보상으로 컴퓨터 사용과 피아노 치기,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과 2. 꾸준히 걷기나 산책활동을 통해서 전신 근육 특히 다리와 발, 발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에 도움을 줌.
- 발을 씻거나 양말을 갈아 신도록 지도하면서 양말 신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줄여나감.
- 택이나 장식 등에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른 활동이나 좋아하는 활동으로 관심을 돌림(Tip.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선행 사건이나 배경사건을 수정하거나 제거함).
- 언어치료 교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으나 발어가 잘 되지 않아 노트나 수첩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음.(Tip. 그림이나 글 중심의 플래시 카드, 혹은 음성 녹음 등과 같은 서비스 및 장비를 사용하여 개인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킴. L.Juane Heflin 외, 2007).
- 밥을 먹어야 다음의 일과나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함으로 밥을 먹게 함(협상하기).

지도사례 16

언제나 관심 받으며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대
상
학
생**

나이 : 18 성별 : ♀ IQ : 46 장애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좋아하는 것 : 도레미 송 듣기, 색종이 만들기, 단 음식

잘하는 것 : 친구 돋기, 시간표 외워 말하기, 과거의 일 말하기

싫어하는 것 : 소란스러움, 짜증과 화내는 친구, 따분한 분위기

* 사회-정서적 특성

1. 쉽게 흥분하고 화내기, 비판이나 꾸중에 분노함.
2. 과거 사건과 특정 낱말에 집착함.
3. 도레미 송 반복듣기를 즐겨함.
4. 타임아웃에 대한 강한 거부감.

* 교육적 지원

1. 선행사건의 수정을 고려하여 부적응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L.Juane Heflin 외, 2007).
(실제 : 비판이나 꾸중을 하지 않으며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말과 표정으로 대함. 활동 중에 자신이 주목받고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주 인식시켜 줌. 과도한 학습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의논하면서 진행함.)
2. 과거의 특정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힘들어하고 분노를 나타내므로 긍정적인 태도나 칭찬으로 기분을 전환시킴.
3. 도레미 송을 보상 차원에서 듣게 하는 것은 즐거운 기분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방법임.
4. 부적응행동에 대하여 후속자극으로 별을 주었을 때 실제로 행동의 빈도수가 줄게 되었다면 이는 별 효과를 발생시킨 것임(양문봉 · 신석호, 2011).
(실제 :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전조 등상이 나타나면 타임아웃에 대해 언급하여 부적응 행동을 스스로 참도록 지도함.)

* 행동적 특성

1. 동작이 둔함(특히 소근육 운동), 옷 고쳐 입는 것이 어려움.
2. 폭력성, 떼쓰기
3. 신체적으로 누르거나 압박하는 것 같은 강한 자극을 좋아함,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혹은 민감한 반응.

1.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전신근육의 근력과 유연성, 가동성 등을 향상시킴(등산 활동, 정글짐놀이, 트램펄린, 자전거타기 등)
2. 선행사건의 수정을 고려하여 부적응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L.Juane Heflin 외, 2007).
(실제 : 관심받기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이름 불러주기와 토닥거려주기, 손잡아 주기 등으로 부적응행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3. 구조화되게 자극을 제공하거나 선호자극을 제공하며 과제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음.
(실제 : 신체적 압박감, 가벼운 통증 · 힘쓰기 등에 즐거워하며 상호 교감하고 기분이 좋아짐.)

지도사례 17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앉아있을래요

대
상
학
생

나이 : 20 성별 : ♀ IQ : 45 장애 : 자폐성장애
좋아하는 것 : 단 음식, 동요 듣기, 가만히 앉아 혼자 놀기
잘하는 것 : 따라 그리기, 따라 쓰기, 퍼즐 맞추기, 트램펄린 타기
싫어하는 것 : 비교적 큰소리, 소란스러운 분위기나 시끄러운 소리

* 사회-정서적 특성

- 시간표나 일과의 변화에 폭력성 나타남 (과도하게 불안해 함).
- 환경의 변화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동일성 고집.
- 학습을 거부함, 종종 학습지를 순식간에 처리함.

* 교육적 지원

- 일과를 예고하고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부득이한 일과의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함.
(실제 : 일과의 변경 시 사전에 시간을 갖고 설득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행동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교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줌.)
- 교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격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을 천천히 설명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행동에 대비함.
- 과제의 난이도를 줄이거나 흥미롭게 제공하기
(실제 : 대부분의 과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책상과 가까운 장소에 과제를 제시하고 기다리며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도록 지도함. 강 압적으로 과제를 시키면 공격성을 나타냄.)

* 행동적 특성

- 자해행동, 기물파손
- 움직임이 적고 하루의 대부분을 상동행동이나 자기 자극을 하며 앉아있음.

- 원하지 않는 과제 수행을 요구받은 학생들은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행동이나 기물파손을 할 수 있음. 또한 자신의 의사 를 표현하기 위한 소통의 수단이기도 함(L.Juane Heflin 외, 2007).
(실제 : '회피'의 표현으로 자해행동을 하므로 잠시 과제나 일과 를 쉬게 하고 스스로 통제가 되도록 기다려줌.)
- 상동행동은 집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나 각성 상태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긴장감을 방출하기 위한 시도, 스스로 제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양문봉 · 신석호, 2011).
(실제: 스스로 그만 둘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줌.)

지도사례 18

높이 오르고 싶은 범이

“**나, 내려와, 위험해**”

Prologue

범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이다. 특수아동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시절,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두고 우리를 찾아왔다. 아니, 끌려왔다. 등원 첫날부터 낯선 환경을 거부하며 올부짖는 아이를 강제로 끌다시피 입실시켰다. 이후 얼마간은 매일 전쟁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한동안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만의 놀이세계에 빠져 있었다. 교육 도중에 갑자기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가 교실과 교실을 넘나들며 -교실과 교실이 간이 벽으로 이루어짐- 즐기는 행동을 보였다.

교육적 중재**의사소통 향상시키기**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지닌 범이가 어느 날 그림이 있는 단어카드를 들고 와 ‘초콜릿’을 가리키며 요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을 시 입모양으로 나타내거나 그림이나 문자를 그려서 표현하도록 유도했다.

규칙 인식시키기

1~100까지의 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며 노는 모습을 보고 나름 수 개념이 생겼음을 감지해 시간과 그림으로 된 일과표를 만들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

높은 곳에 오르는 행동 감소시키기

농구, 트램펄린, 줄넘기 등 뛰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높은 곳에 오르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했다.





Epilogue

중증 자폐증 아동들 중에는 한참 동안 빙글빙글 돌고도 어지럼을 전혀 안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 이는 전정기관에서 회전상태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중추신경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팔짝팔짝뛰는 아이들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상태로 추정된다. 아주 강하게 점핑을 해야 전정신경핵과 망상체가 작동하여 쾌감을 느끼는 상태인 것이다.

복잡한 설명은 다 접어두자. 중요한 결론은 팔짝팔짝 뛸 때 아이들은 행복해한다는 것이다. 즉,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출처 - 「자폐증아동은 왜 팔짝팔짝 뛸까? - 김문주 의학칼럼 종」



지도사례 19

성민이는 이런 학생이예요

성민's STORY



prologue..

- 1 통통한 얼굴에 훈칠한 키와 덩치를 소유한 자
- 2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고, 올해 전공과에 입학한 새내기
- 3 평소 정리정돈 및 습관화된 일상에서 벗어나면 참지 못하는 자
- 4 하지만, 집에서 설거지도, 바느질도 수리도 척척해내는 그
- 5 학교에서는 학업도 의욕적으로 작업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믿음직한 성민

Episode 1

작년 고3 졸업을 앞두고 성민이에게 말했다.

“성민아, 전공과에 진학하더라도 선생님 보면 바르게 인사해야 해!!”

“응”

그 이후 성민이는 매일 식사하는 내 옆을 지날 때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Episode 2

직업수업 쉬는 시간

어떤 아이들은 놀고, 어떤 아이들은 쉬고,

그런데!!!

성민이는 쉬지도 놀지도 않고

땀 뺄낄 흘리며

불량품 고르는 작업을 계속한다.

“그만, 쉬어~ 성민아”

그래도 성민이는 계속한다.

불량품을 찾기 위해!!



Episode 3

현장학습을 가는 날 아침.

쇼핑백 속 도시락과 함께 들어있는 캔 커피에 자꾸만 눈길을 보낸다.

“이것은 선생님 것이니까 안 돼” 하고 말했다.

출발 시간이 다되어 교실을 나서며 성민이에게 쇼핑백을 들고 가라고 건넸다.

잠시 후 차량에 오른 후 살피니 도시락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 하는 마음에 교실에 가보니 교사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도시락.

“이놈, 커피 안준다고 선생님 점심 짚길 생각이었니...”라며 애정 어린 투정을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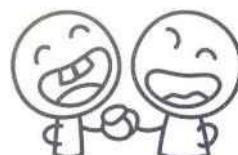
그러자, 억울한 표정으로 자꾸 무엇인가 말하는 듯했다.

그때서야 “아하!!”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선생님 것이니까 만지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성민아, 선생님 것이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

말없이 끄덕이는 성민이~~



epilogue..

성년이 다 된 나이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야기꺼리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 있겠지만 최소한 특수학생을 가르치는 교
사나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작은 행동 하나를
보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이런 이야기에도 뭉클함을 느낀
다.

지도사례 20

나는 스타킹이 좋아요

‘어찌해야하나?’

‘요놈들에게 양말 대신 스타킹을 신겨야 하나?’

사건 하나.

사건 둘.

엘리베이터 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다.
중학생 남자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낯선 여자.
아이의 시선이 낯선 여자의 다리에 머물렀다.
순간, 아이의 손이 낯선 여자의 다리에 쓱~
당황한 아버지가 아이의 뺨을 철썩~!!

특수학교 등굣길 운동장.
중학교 남학생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여자선생님을 향해 달린다.
그리고 발을 잡고 들어 올리며 만지려한다.
“성준이, 동작 그만!!!”



사건 속의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자폐증을 지닌 아이라는 점.
그리고 스타킹에 집착하는 성향을 지녔다는 점..

 전문가의 조언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는 자기자극, 상동행동, 감각관련 문제(맛보기, 냄새맡기) 등이 있으며 (생략)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 Q&A 중에서

스타킹의 감촉을 좋아해서 스타킹을 신고 있는 아무 여성에게나 다가가서 다리를 만진다.

발달장애 아동의 마음읽기 중에서

Epilogue..

자폐증 아이들 중에는 특정 사물에 관심을 두거나 유별난 행동을 보이는 성향을 지닌 아이들이 있다. 엄마의 머리가락을 만지면서 코로 냄새를 맡거나 여성용 스타킹을 신은 여자 다리를 만지는 행동 등 특성한 촉감을 선호하기도 한다.



지도사례 21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prologue... 하늘을 향해 날뛰는 자폐증 아이들을 보며 항상 “??”에 머물다가 연수 받는 도중 소개된 한 권의 책을 만나면서 하늘을 향해 날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

THE REASON I JUMP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저 자 나오키씨는 자폐증을 가진 소년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글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3살 때 이 책을 썼다.



▲ 주인공(남)이 팔짝팔짝 뛰는 모습

팔 짹짤짜 뛸 때 저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저를 꿀꺽 삼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심장이 떨릴 정도죠. 제 몸은 위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새가 되어 아주 멀리 날아가고 싶은 마음에 몸이 위로 끌려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 나오기의 책을 자폐증 아들을 가진 작가 데
이비드 미첼이 번역·발간하면서 서로 인연이 되
어 미첼이 도쿄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 책의 주인공은 대화를 글을 이용하여 한다.



뉴욕의 거리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저도 자유의 여신상처럼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 나오기가 뉴욕을 방문해 자폐아 부모들과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강의하는 모습



▲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습

“(중략) 제가 행복할 때는 저희 가족이 일상의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볼 때입니다.”

출처-「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히가시다 나오기」
「EBS 다큐멘터리-자폐증 소년의 희망편지」

III. 전문가 코너

- 1) 놀이기술의 발달**
- 2) 초등학교 입학 결정**
- 3)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
- 4) 자폐성장애 약물치료의 원칙**
- 5) 언어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 6) 미술치료**



전문가코너

놀이기술의 발달

소근육 발달부터 충동적인 행동 억제까지 놀이에 필요한 기술은 자폐아동에게 모두 부족한 기능이다. 놀이치료를 통해 아이는 상징체계를 배워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놀이의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다

출처 -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부록 전문가 코너

자폐성장애를 이겨낸 소년의
1000°의 희망의 기록을 담은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란 책을 접하면서
내용도 마음에 다가왔지만
그 안에 수록된 21가지의 전문가 코너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주변에 자폐증상을 보이는 아이와
인연의 끈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 번쯤 필요한 내용인 듯 싶어
그 중 몇 가지를 읽기로 보려한다.



전문가코너

초등학교 입학 결정

자폐성장애 학생을 키우면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입학인데, 취학유예를 선택할 경우에는 입학년도 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재지 주민센터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초등학교에 진단서와 보호자 소견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교육지원청에 유예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취학유예를 신청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

출처 -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부록 전문가 코너



전문가코너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에서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자폐성장애는 정도에 따라서 1~3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치는데, 종종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등급이 조정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에 한하지만,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

장애를 부정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출처 -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부록 전문가 코너



전문가코너

자폐성장애 학생을 치료하기 위한 원칙

아직 자폐성장애 학생을 치료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없다. 따라서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할 때는 전반적인 적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환경적, 사회적인 접근과 함께 약물치료를 이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약물치료에 심리사회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약물 투여에 대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되는 생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병합되는 질병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약물 효과를 모니터하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약물 투여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이를 알린 후 교육시켜야 한다.

부모가 짚어진 선택의 무게

출처 -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부록 전문가 코너



언어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언어치료는 단순히 치료기관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치료사와 보호자가 상담을 통해 언어치료 목표를 공유하고 일상생활에서 함께 훈련해야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자폐성장애 학생의 말문을 열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첫째, 주의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기 전에 눈을 맞추거나 가벼운 접촉으로 아이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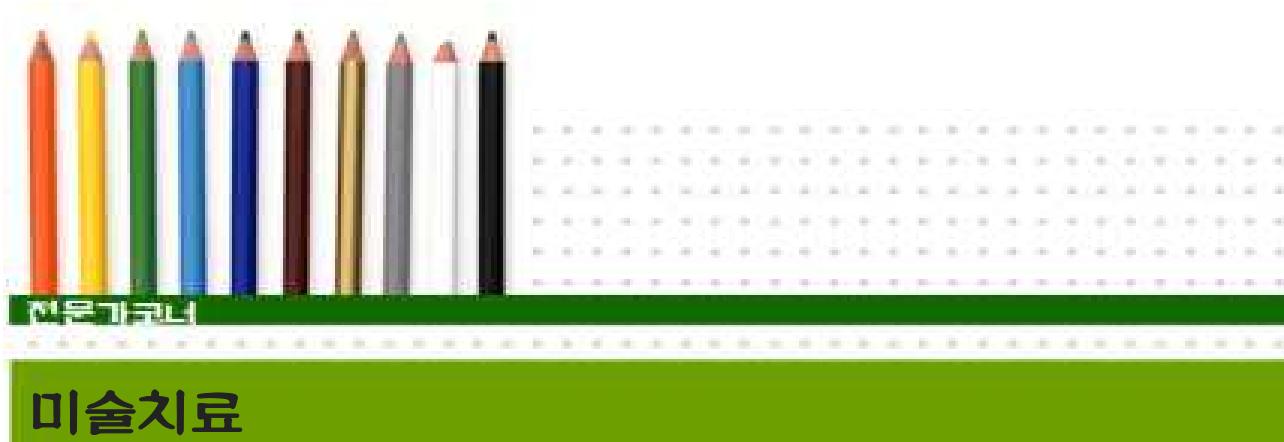
둘째, 몸짓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동과 말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낱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아이가 이해하고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치료는 어떤 치료보다 인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

참고 기다리는 만큼 아이는 자란다

출처 -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부록 전문가 코너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미술은 단순히 미적 표현을 넘어 정신적 투사이자 개인의 조화로운 인성 발달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자폐성 장애 학생의 경우 비언어적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미술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즉, 자기 표현적 기능을 통해 외부 세계와 의사소통함으로써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 및 사회성이 촉진된다.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다

출처 -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부록 전문가 코너



5 고등학교 “상황이야기(social story)를 활용한 지역사회적응 교육”



CONTENTS

목 차

I . 상황이야기(Social Story) 중재란?	202
II . 나의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 (※부록)	205
1. 공공기관 이용하기	
■ 은행에서 –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현금인출기를 사용합니다.	274
■ 주민센터에서 –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276
■ 주민센터에서 – 주민등록증을 만듭니다.	278
■ 주민자치센터에서 –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80
2. 의료기관 이용하기	282
■ 병원에서 –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284
■ 병원에서 –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습니다.	286
■ 약국에서 – 약을 받습니다.	
3. 편의시설 이용하기	
■ 대형마트에서 –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288
■ 대형마트에서 – 계산대에서 차례를 지켜 물건값을 계산합니다.	290
■ 영화관에서 –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예매합니다.	292
■ 영화관에서 – 관람에티켓을 지키며 영화를 관람합니다.	294
■ 음식점에서 –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합니다.	296
■ 음식점에서 – 식사 예절을 지켜 음식을 먹습니다.	298
■ 패스트푸드점에서 –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합니다.	300
■ 패스트푸드점에서 – 예절을 지켜 음식을 먹고 뒷정리를 합니다.	302
4. 대중교통 이용하기	
■ 교통카드 충전하기 –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304
■ 버스 이용하기 – 차례를 지켜 안전하게 버스에 승차합니다.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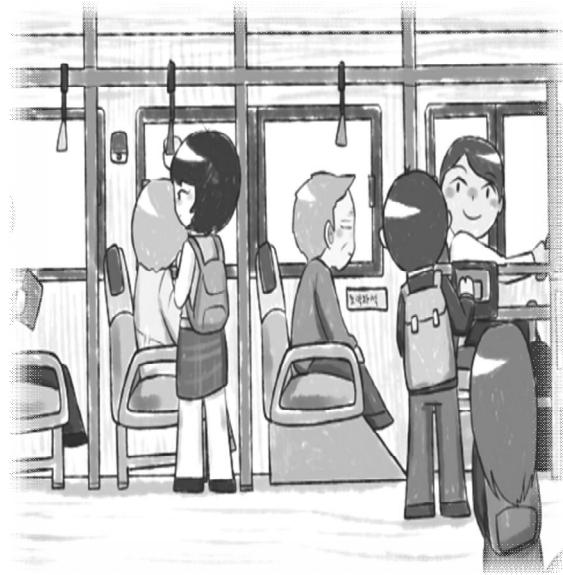


CONTENTS

목 차

■ 버스 이용하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합니다.	308
■ 지하철 이용하기 – 안전하게 지하철에 승차합니다.	310
■ 지하철 이용하기 – 에티켓을 지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312
■ 택시 이용하기 – 안전하게 택시에 승차합니다.	314
■ 택시 이용하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전하게 택시에서 하차합니다.	316
III.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206
사례 1.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 받기 지도	206
사례 2. 처방전으로 약 처방 받기 지도	208
사례 3. 영화표 예매하기 지도	210
사례 4. 식사 예절 지도	212
사례 5. 교통카드 충전하기 지도	214
사례 6. 지하철 이용하기 지도	216

- 나의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 -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는 능력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작용하는 여러 정보의 조각들을 이해하고 의미 있게 연결하는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또래 및 성인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거부당함의 원인이 되어왔다.

성인기를 앞둔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사회에서 보내게 된다. 성인기 지역사회의 생활은 학령기 학교생활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거부당함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사회적 통합과 독립적 삶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또래 및 성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상황의 이해는 보다 근본적인 인지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요한다. 이에 사회적 인지를 적용한 중재 방법들 중 자폐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소개된 상황이야기 중재를 우리의 학생들에게 활용해 보고자 한다.

나의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는 **상황이야기**를 알아봄, 보다 독립적인 지역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선정함, 나의 지역사회 적응이야기(상황이야기) 구성하기, 나의 지역사회 적응이야기 실천하기로 전개된다.



I . 상황이야기(Social Story) 중재란?

1. 상황이야기의 특성

상황이야기는 자폐성장애인의 사회화 증진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이다.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결되지 못한 정보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실제적이고 명확한 사회적 정보로 변환시켜준다. 즉,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분명한 사회적 단서와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설명해줌으로써 사회적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된 인지적 중재방법이다.

상황이야기는 적절한 사회적 반응과 함께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미니북이다. 상황이야기는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과 같은 문제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학생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개는 교사나 부모와 같이 대상학생을 잘 이해하고 대상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작성한다. 목표 상황과 학생이 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쉽게 이해하고 목표 행동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상징 등 시각적 자료들을 함께 제공한다.

상황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의 문장들로 이루어진다. (Gray, 2004; Gray & Garand, 1993)

- 장소·대상·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
- 목표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 반응을 설명하는 지시문
- 목표 상황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설명하는 조망문
- 다른 대상의 유사한 행동과 반응을 사용하여 목표 행동과 반응을 설명하는 통제문

2. 상황이야기 구성 및 중재 방법

Swaggart 등(1995)이 제시한 상황이야기 만드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목표 행동 또는 문제 상황을 정한다.

-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거나 학습기회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행동을 선정한다. 학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생과의 대화나 부모나 양육자들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평가에 근거 한다. 선정된 행동은 학생의 강점을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작은 단계로 과제분석을 한다.

2단계 자료를 수집할 목표 행동을 정의한다.

- 목표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목표 행동을 정의한다.

3단계 목표 행동에 대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한다.

-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3~5일간 목표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목표 행동의 발생 빈도 등을 수집하여 중재 전후 비교에 활용한다.

4단계 상황이야기를 수집한다.

- 상황이야기의 6가지 문장유형을 참조하여 1인칭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상황을 설명한다. 학생이 주의를 집중하고 상황이야기의 각 요소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구성한다. 누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느낌과 행동들이 학생의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어휘와 글자 크기는 각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학생이 현재 사용하는 어휘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5단계 사진, 손으로 그린 그림, 상징 등을 사용한다.

- 목표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상황이야기에 사진, 그림, 상징을 사용한다. 그런데 삽화의 내용이 사회적 상황을 너무 좁게 표현한 경우 기술의 일반화를 제한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6단계 학생에게 상황이야기를 읽어 주고 목표로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 목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황이야기를 읽어주고 목표 행동의 시범을 보여준다.

7단계 중재 자료를 수집한다.

- 중재 과정 전반에 걸쳐 목표 행동 수행 정도를 기록한다. 상황이야기가 학생의 목표 행동 습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 자료를 기초선 자료와 비교한다.

8단계 결과와 관련된 상황이야기 절차를 검토한다.

- 상황이야기 중재의 효과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 2주간 실시한다.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 가지 변인만 수정한다.

9단계 유지 및 일반화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 상황이야기의 내용을 다양한 사람, 환경,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3. 상황이야기의 효과

상황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재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경도의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후속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 학생의 특성에 적합하게 간단하고 쉬운 용어로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시각적 보조자료를 사용하여 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상황이야기 중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효과적이다.

-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교사나 부모 혹은 또래들이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참조 틀’을 제공한다.
-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장점인 시각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각적 자료이다.
-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여러 다양한 상황 내에서 교사와 부모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적 단서 및 관련 반응들을 자연스럽게 묘사함으로써 일상적인 일과나 일과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관련된 기술들을 실제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학생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교사나 부모에 의하여 교수되며 따라서 일반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 공격성이나 강박적 행동 및 공포감 등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행동들을 지원할 수 있다.
- 상황이야기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실행이 간편하며, 이야기 작성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 중재 후 행동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

참 고 문 헌

- Richard L. Simpson 외(이소연 옮김)(2007). **자폐 범주성 장애 : 중재와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L Juane Heflin 외(신연기 외 옮김)(2007).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 교육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Richard L. Simpson 외(이소연 옮김)(2010). **자폐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II. 나의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

“나의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는

자료집의 <부록>에 수록되었습니다.

III.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1



학생 정보

- 고등학교 3학년(자폐성장애 1급) 학생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지시 따르기가 가능함.
- 의사소통에 있어 자발적인 발화에 어려움이 있고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 나타남.
- 손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상동행동을 보이나 주의를 주면 멈출 수 있음.

상황이야기 중재의 적용

교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모의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자 함 • 주민센터에서 지켜야할 공공질서와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함 • 상동행동과 반향어를 줄여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기르고자 함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이야기를 그와 관련한 그림 자료를 단계적으로 이야기와 함께 제시하여 학생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킴 •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예측하여 상황이야기에 문제 상황과 대처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함
실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회에 걸쳐 사전교육, 1회에 걸쳐 현장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이야기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읽으면서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발급받는 절차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게 함 • 그림을 보여주며 순서대로 지도하면서 상대방이나 주변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공감능력을 키움 • 주민센터 발급 절차를 3가지 그림카드로 만들어서 지도하였으며 그림카드에 대화 내용도 말풍선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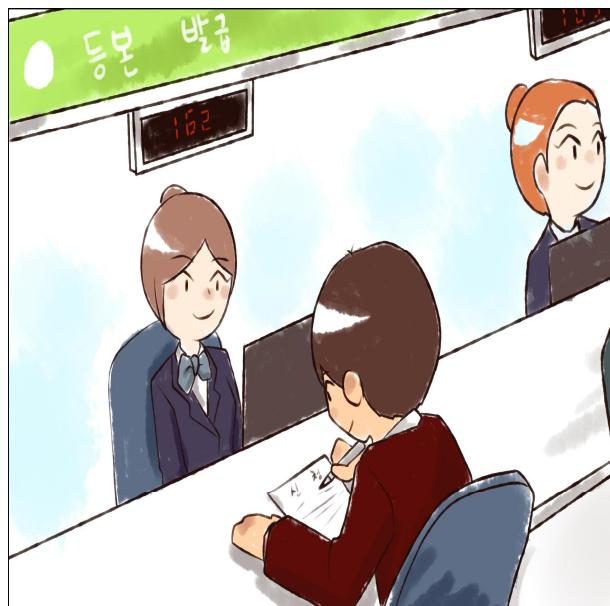
❶ 결과 및 제언

- 총 6회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현장교육 시 상동행동과 차례 기다리기에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 행동을 보여 주의를 줌.
- 현장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❷ 교수 자료

주민센터에서 -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갑니다.
주민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큰소리를 내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전광판에 내 번호가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번호가 켜지면 창구로 갑니다.
직원에게 ‘등본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잘 모르는 것은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물어봅니다.
신분증과 수수료도 냅니다.
직원이 등본을 발급할 때까지 창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립니다.
등본과 신분증을 돌려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 상황이야기 -

- 십화 -

참 고 문 헌

- 박계신 · 이상복(2000). 사회이야기를 통한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재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59~87.
- 박현옥(2005). **나의 학교이야기.**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제드 베이커(이정미 옮김)(2008).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성 이야기 그림책.** 서울: 시그마프레스.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2



학생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자폐성장애 2급.
- 자주 사용하는 일상생활관련 단어의 읽고 쓰기가 가능함.
-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친밀감을 보이며 종이 찢기를 좋아함.
- 편식이 심하여 교사의 식사지도가 필요하고 아토피 증상이 심함.

상황이야기 중재의 적용

	<p>교수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이야기를 이용하여 대상학생에게 환경(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 •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사물, 주변사람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함 • 상황이야기와 그림카드를 통하여 미리 정보를 알아 대상학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p>교수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단어의 읽고 쓰기가 가능한 대상학생에게 TEACCH 프로그램(양문봉·신석호 지음. 2011. 자폐스펙트럼장애 A to Z. 시그마프레스)의 핵심인 구조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 • 관련 있는 활동그림의 순서를 정렬하여 상황을 반복 시행 • 새로운 상황, 새로운 단어를 그림카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
	<p>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회, 매 회기 당 10분
	<p>실행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표지판과 단어를 관련지어 익히고 그 중 약국 표지판과 관련 있는 주변상황을 그림카드를 제시하며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상황이야기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미리 적응하도록 함 • 사전지도 후 실제상황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역할놀이 형식을 통해 처음 회기에는 대상학생과 함께 활동그림의 순서를 정렬하고 모의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활동그림을 보이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이 때 상호작용을 위한 발화를 함께 지도하고 차츰 활동그림의 수를 줄이면서 상황에 맞는 자발적인 발화와 긍정적인 행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함

❸ 결과 및 제언

- 사전지도 8회기의 교육이후 모의상황에서 약국의 주변 환경과 문제 상황에서 정보를 미리 알고 상황에 접하여 자발적 상호작용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듦.
- 스스로의 발화는 어려웠지만 약 처방을 하도록 한 결과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 회기를 거듭한다면 자발적인 상호작용과 환경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문제 상황에서도 관련 있는 사전지도와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여 정보 미리주기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기대됨.

❹ 교수 자료

약국에서 - 약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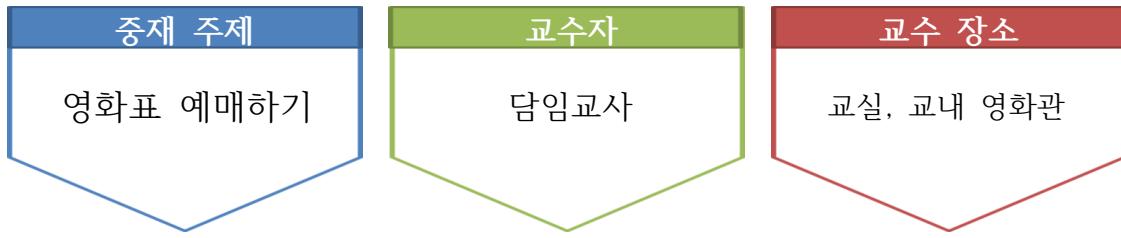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다.
처방전을 보여줍니다.
약을 조제하는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약국 안에는 여러 가지 약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만져보고 싶지만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약값을 내고 약을 받습니다.
약 먹을 때의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 상황이야기 -
- 집화 -

참 고 문 헌

- 양문봉, 신석호(2011). **자폐스펙트럼장애 A to Z.**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승희(2015).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2016).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 방안** 직무연수 자료집.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3



학생 정보

- 고등학교 1학년 자폐성 장애 남학생(윤○정).
- 글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지시 따르기가 가능함.
- 교사의 질문에 70% 이상을 반향어로 대답하는 특성을 가짐('이것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 시 '무엇일까요?'라고 대답).
-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발화를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임.
- 관찰력이 좋고 모방능력이 뛰어남.

상황이야기 중재의 적용

교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이야기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황(영화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 • 영화표 예매하기 기술을 지도하여 졸업 후 독립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발화를 먼저 시작하고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링(modeling) 기법 • 교사가 상황이야기를 읽어 주고 따라 읽도록 함 • 스스로 수립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그 과정을 점검하는 자기 지시(self-direction) 기법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영화관을 이용하기 전 10회기 (2주간에 걸쳐 실시함)
실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영화표 예매하기에 대한 상황이야기 자료를 읽어줌 • 학생 스스로 영화표 예매하기 상황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함 • 교사의 모델링을 보고 따라하며 수행정도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함

❸ 결과 및 제언

- 10회기 교수 후 교내 영화관을 활용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영화표를 예매하도록 한 결과 ‘영화 주세요.’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발화를 먼저 시도함.
-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직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반향어가 아닌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함.
- 10회기 이상 진행 시 실제 영화관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발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함.

❹ 교수 자료

영화관에서 -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예매합니다.

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왔습니다.
먼저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사야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내 차례를 기다립니다.
내 차례가 되면 매표소로 갑니다.
직원에게 예매할 영화제목, 상영시각, 인원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매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상영하는 영화나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표를 받으면 상영관과 좌석을 확인합니다.
영화를 기다리는 동안 간식을 먹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합니다.

- 상황이야기 - - 집화 -

참 고 문 헌

- 이승희(2015).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수철 외(2012). **자폐장애**. 서울: 학지사.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4



학생 정보

- 고등학교 1학년 자폐성 장애 3급.
- 글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 타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편이며 흥미 있는 주제나 좋아하는 대상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학교 및 사회 생활에 필요한 규칙 및 예절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임.
- 규칙 및 예절에 관해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되묻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켜줘야 수용이 가능함.
- 식탐이 있는 편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 먹기도 하고 급하게 먹어 입가에 묻히거나 손에 묻혀 먹기도 함.
- 식사 시 씹지 않고 삼키는 버릇이 있으며 먹고 난 후 뒷정리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상황이야기 중재의 적용

교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하나임 • 적절한 식사 예절을 습득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 상황이야기 기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음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 전략 : 인지적 전략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당 10분 이하, 총 8회 진행
실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기까지 상황이야기를 함께 읽기 • 학생에게 부족한 예절 상기하기 • 지켜야 할 예절 인지하기 및 사전 체크하기 • 4회기부터는 직업실습 및 급식실 가기 전 5~10분 스스로 읽게 한 후 지켜야 할 예절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지도 • 식사 후 지켰던 예절 말하기 • 피드백 및 강화

❶ 결과 및 제언

- 8회기 교수 후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음.
- 바른 식사 예절이 습관화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왔을 경우 스스로 알아차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사고의 변화를 통해 식사 예절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술 교수 및 훈련 시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데 유연한 자세를 보임.

❷ 교수 자료

음식점에서 - 식사 예절을 지켜 음식을 먹습니다.

친구와 음식점에 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수저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어른이 계실 때는 내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지 않습니다.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은 남겨도 됩니다.
 식사 중 대화를 할 때는 입안의 음식을 다 삼킨 후 이야기합니다.
 다른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돌아다니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다 먹은 후에는 수저를 바르게 놓습니다.
 만약 친구가 다 먹지 않았으면 기다립니다.



- 상황이야기 -

- 십화 -

참 고 문 헌

- 이소현, 박은혜 공저(2015).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L. Juane Heflin, Donna Fiorino Alaimo(2015).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5



학생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자폐성장애 2급.
- 발달 수준에 적절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일과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매 시간 담임교사에게 일과를 확인받으려 함.
-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일상적 질문에 짧게 대답할 수 있으나 발음 및 표정이 부 자연스러우며 자발적 언어 사용이 거의 없음.

상황이야기 중재의 적용

교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상 학생에게 교통카드 충전할 때의 사회적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개입 교수 및 중재 중 상황이야기를 통해 대상학생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교사가 사건과 기대를 설명하고 있는 삽화가 포함된 상황이야기를 읽어주고 학생이 따라 읽도록 하였으며 역할놀이도 병행함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회기당 20분, 총 8회기로 진행함
실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학생에게 상황이야기를 읽어 주고 학생이 따라 읽는 방법을 통해 교통 카드 충전하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상황이야기에 포함된 삽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적 지원을 함 • 마지막 2회기는 역할놀이를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자발적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❸ 결과 및 제언

- 8회기의 교수 후 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학생에게 교통카드를 충전하도록 하였더니, 자발적 언어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하였으며 교통카드와 충전할 돈도 상황에 알맞게 제출함.
- 편의점 직원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였으며, 표정 및 발음 또한 많이 자연스러워짐.
- 학생이 자발적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며 상황이야기 중재를 활용한 교육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사회성 증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짐.

❹ 교수 자료

교통카드 충전하기 -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서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카드와 충전할 돈을 준비합니다.
편의점, 지하철역 매표소, 버스정류장 가판대, 은행 중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돈을 내고 충전합니다.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기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폐투입구에 넣은 돈이 나오면, 잘 퍼서 다시 넣거나 다른 지폐를 넣습니다.
직원에게 충전할 때는 ‘교통카드를 충전하려 왔어요.’라고 말하고 교통카드와 충전할 돈을 냅니다.
충전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충전이 되면 충전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 상황이야기 -

- 집화 -

참 고 문 헌

- L. Juane Heflin, Donna Fiorino Alaimo(2015).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승희(2015).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2016).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 방안** 직무연수 자료집.

상황이야기 중재 적용 사례 6



학생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자폐성 장애 남학생(이○현).
-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음.
- 새로운 환경, 미리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심하게 불안해하며 혼잣말이 많아지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함.
- 문이 열려있는 상황을 힘들어하여 주변에 열려 있는 문을 반드시 닫으려 시도하는 집착행동을 보임.
- 글, 그림에 집착하며 청각적 자료 보다 시각적 자료를 선호함.
- 교사를 포함한 성인 권위자의 지시 따르기가 양호함.
- 성인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독립적인 이동 능력 습득을 필요로 함.

상황이야기 중재의 적용

교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돋립적인 성인기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돋립적인 이동능력임 • 대상학생에게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방법을 지도하고, 지하철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황이야기 기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음 • 상황이야기 기법은 대상학생의 선호 정보인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과 또는 기능을 교수하거나 해당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강박행동 및 공포감 등 다양한 행동을 다루는데 효과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개입 교수 및 중재 전략(AMII) • 정보 미리주기, 글과 그림 등 시각적 자원 활용을 위해 상황이야기 기법 적용 • 과제를 완수하는 과정과 행동에 대해 자기기록방법을 병행하도록 함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이용하기 현장학습 실시 전 10회기(2주간에 걸쳐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지하철 이용하기에 대한 상황이야기 자료를 읽어 줌 • 학생 스스로 지하철 이용하기 상황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함 • 지하철 이용방법과 지켜야 할 에티켓을 노트에 글로 적도록 함

❸ 결과 및 제언

- 10회기 교수 후 지하철 이용하기 현장학습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
- 어디에, 무엇을 타고 가는지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행동, 혼잣말을 하는 행동이 많이 감소되었음. 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심리적 공포감이 상황이야기를 활용한 사전 중재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된 결과라 여겨짐.

❹ 교수 자료

지하철 이용하기-에티켓을 지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작은 목소리로 합니다.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많더라도 주변사람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노약자석은 비어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신발을 벗고 다리를 옮겨 앉지 않습니다.
집을 의자 위에 올려놓아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합니다.

지하철역마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목적지역의 이름이 방송되면 출입구 쪽으로 나가서 기다립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면 차례대로 하차합니다.

개찰구로 가서 개찰집계 기계에 승차권을 댄 후 통과합니다.
출구표지판을 확인하고 출구 밖으로 나옵니다.

- 상황이야기 -
- 집화 -

참 고 문 헌

- 신현기 외(2014).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Richard L. Simpson 외, 이소현 역(2007). **자폐 범주성 장애 중재와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승희(2009).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박승희 외(2011).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전환서비스**. 서울: 시그마프레스.



6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사례



CONTENTS

목 차

I.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사례	
활용교구 1. 무게조끼	222
활용교구 2. 그림이 보면 문장이 술술술 (문장패턴 1)	224
활용교구 3. 랄랄라 바른생활 / 나들이 동요	226
활용교구 4. 감각평균대	228
활용교구 5. 타임 타이머	230
활용교구 6. 감정표현 얼굴팻말과 카드	232
활용교구 7. 보드 중심잡기	234
활용교구 8. 빙글빙글콘	236
활용교구 9. 귀마개	238
활용교구 10. 이화-자폐아동 행동 발달 평가 도구	240
활용교구 11. 퍼즐리아 랭킹큐브	242
활용교구 12. 엄지손가락 균력운동기	244
활용교구 13. 낚시 놀이 낱말카드	246
활용교구 14. 무지개 스쿠터보드	248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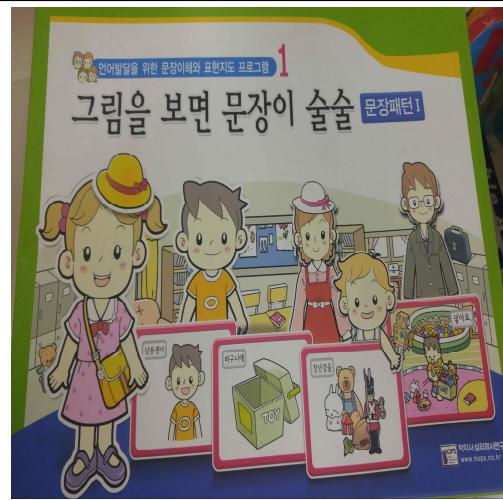
교 구 명	무게조끼	
활용 영역	심리 · 정서, 신체 · 건강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수용감각이 둔한 유아들이 무게 조끼를 착용하면 신체 압박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도록 해 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유치원 만5세 이○○ (남, 자폐성장애 2급)	
적용 빈도	1주 2~3회(회당 20분 내외)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해당 학생 혼자 2. 어디서: 복도, 실내놀이공간, 바깥놀이터 3. 언제: 유아가 장소를 이동하거나 바깥놀이를 하며 뛰어다닐 때 4. 시작 안내: “○○야, 조끼 입고 바깥놀이 하러 나가자.”라고 말하며 조끼를 보여주면 스스로 조끼를 입음 5. 종료 안내: “미끄럼틀 1번만 더 타고 교실로 가자. 교실로 가면 조끼 벗자.”라고 이야기 한 후 교실로 들어가면 조끼를 스스로 벗음 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 조끼를 입은 상황, 시간을 기록하여 누적 정리 - 포트폴리오 평가 형태로 발달 상황을 기록하고 그래프로 표시 - 학부모 상담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쓸리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줌 - 까치발을 하며 걷거나 뛰는 자세에서 바닥에 발바닥 전체를 디디는 자세로 교정하는데 도움이 됨 	

교재·교구를 활용한 자폐성장애학생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유치원 만5세 이○○ (남, 자폐성장애 2급)
적용 빈도	1주 2~3회(회당 2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느적거리며 걷거나 누워 있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무게조끼를 착용하고 움직이도록 하였음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를 조절하도록 되어있으나 어느 정도의 무게가 아이에게 적당한지 알기 어려워서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시간과 무게가 결정됨 - 가정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가격이 비싸 가정과의 연계가 어려움 - 압박을 해 줄 수 있는 무게담요나 터널 등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듯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쏠리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해 주어 걸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줌 - 까치발을 하며 걷거나 뛰는 자세에서 바닥에 발바닥 전체를 디디는 자세로 교정하는데 도움이 됨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그림이 보면 문장이 술술술 문장패턴 I
활용 영역	인지, 말하기, 듣기, 쓰기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내용이 낱장의 그림으로 나타나있음 - 문장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그림을 보고 문장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초등 6학년 한○○ (남, 지적장애 2급 & 자폐성장애) 초등 5학년 최○○ (여, 지적장애 3급) 초등 1학년 임○○ (여, 지적장애 미등록)
적용 빈도	1주일 1회(국어 교과)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학생 소그룹 2. 어디서: 학습지원실 3. 언 제: 월요일 국어 교과 학습 시 4. 방 법: 먼저 그림카드의 내용을 그림과 문장으로 파악(언제, 누가, 무엇)하여 말로 표현하는 활동 후 자신이 주말에 한 일을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함 5. 평가 방법: 친구들과 나눈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일기장에 쓰고 평가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이해력을 향상시킴 -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 쓰기 능력을 향상시킴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초등 6학년 한○○ (남, 지적장애 2급)
적용 빈도	1주 3~4회(회당 2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에 있었던 일로 일기를 작성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그림카드를 보고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에 집중하였음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카드를 보고 ‘누가 / 무엇을’ 보다 ‘어떻게 한다.’에 해당되는 단어를 익히는 것이 문장으로 말하는데 더 중요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콜라를’ 까지는 스스로 말할 수 있으나 ‘마셔요.’에 해당하는 카드를 보고 “엄마 콜라”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한다.’에 해당되는 단어를 익히는 연습이 더 필요함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랄랄라 바른생활 동요 랄랄라 나들이 동요	
활용 영역	심리·정서, 의사표현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고 다니기에 편하게 가방 모양으로 생긴 사운드 북 - 각각 총 8곡의 유아대표 동요가 들어 있음 - 2단계로 볼륨 조절이 가능함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초등 6학년 한○○ (남, 지적장애 2급 & 자폐성장애)
적용 빈도	1일 2~3회(회당 10분 이내)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해당 학생 혼자 2. 어디서: 학생 자리 3. 언 제: 아침자습시간, 쉬는 시간 4. 시작 안내: “○○아, 동요 듣고 싶어? 쉬는 시간이니까 ○○이가 동요 듣고 싶으면 동요 들어도 되요. 수업 시작 종 칠 때까지 동요 듣자.” 5. 종료 안내: “수업시간 종 쳤네. 정리하고 수업할 준비 합시다.” 6. 평가 방법: 자발적으로 “동요 듣고 싶어요.”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빈도를 기록하여 평가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자습시간, 쉬는 시간에 책상을 치거나 무의미한 특정 소리를 내며 교사 얼굴 앞에서 말하는 행동 감소 - “~하고 싶어요.” 하는 의사표현 연습 - 동요를 들으며 심리적 정서적 안정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초등 6학년 한○○ (남, 지적장애 2급)
적용 빈도	1주 3~4회(회당 1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 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수업 시작할 때 ‘동기 유발’ 자료로 활용하였음 - 대상 학생보다 다른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쉬는 시간에 놀이로 활용하였음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과 글과 동요가 같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됨 - 학생들의 수준과 취향에 알맞은 동요가 더 수록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건전지를 교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아주 작은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는 시간에 ‘몸 흔들기’, 무의미한 소리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었음 - 대상 학생 외의 학생들도 동요 듣기를 즐거워하여 학급 분위기가 좋아졌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감각평균대	
활용 영역	심리·정서, 신체·건강(대근육), 사회성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조각을 연결하여 평균대처럼 활용할 수 있음 - 감각 조각을 따로 두고 유니 바처럼 활용 할 수 있음 - 발바닥 감각 뿐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유치원 만4세 안○○ (여, 발달장애 2급)	
적용 빈도	1일 3회(회당 5분 이내)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이나 또래와 함께 2. 어디서: 유치원 교실 및 유원장 3.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감각평균대 일자로 걷기 - 아침모임 전에 음악에 맞추어 감각평균대 일자로 걷기 - 점심시간에 감각평균대 건너뛰기 4. 시작 및 종료안내: 탬버린을 흔들기 5. 평가 방법: 감각평균대 활동 후 바르게 서 있는 시간 측정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바닥 및 신체부위 지압하기 - 신체의 긴장도를 높여 균형감각을 유지함 - 음악이나 악기 소리를 단서로 활동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유치원 만4세 안○○ (여, 발달장애 2급)
적용 빈도	1일 3회(회당 5분 이내)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감각평균대 일자로 걷기 - 아침모임 전에 음악에 맞추어 감각평균대 일자로 걷기 - 점심시간에 감각평균대 건너뛰기 - 유아가 활동에 집중할 때는 5분보다 연장하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 몸의 긴장도를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일자로 걷기만 하기보다 평균대를 양쪽으로 놓고 11자 걷기 형태로 걸어보기
활용 모습	 
지도 결과	처음에는 손을 잡아주고 평균대 위를 걷다가 평균대의 감각에 익숙해지면서 손을 놓고 스스로 균형을 잡고 서있거나 움직이게 하였더니 유치원 일과 중 바닥에 눕거나 다른 사람에게 몸을 기대는 등의 행동이 줄어들고, 스스로 서있는 시간이 늘어남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타임 타이머	
활용 영역	인지, 심리·정서, 신체·건강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간 디스크가 시간에 맞춰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초등 3학년 김○○ (남, 자폐성장애 1급)
적용 빈도	1일 3~5회(회당 10분 이내) 시간 늘려가기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2. 어디서: 학생 자리 3. 언 제: 국어활동 시 착석해야 할 시간 제시 4. 시작 안내: “○○야, 낱말 쓰기 10분 동안 하자, 선생님이 타이머 맞춰 줄 테니 빨간색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앉아서 하자.” 5. 종료 안내: “이제 빨간색이 다 없어져가네 빨간색이 다 없어지면 쓰기과제를 가져 갈 거야, 이제 빨간색이 다 없어졌네. 일어나도 돼.” 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시간만큼 앉아서 과제를 수행하는지 시간을 누가 기록함 - 학부모 상담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과제수행이 끝나는 시간을 아동이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 불안감이 줄어 문제행동을 감소시킴 - 자신이 해야 할 과제와 시간을 알고 더 집중하게 됨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초등 3학년 김○○ (남, 자폐성장애 1급)
적용 빈도	1일 2~3회(회당 1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 시 착석이 필요할 때마다 시간을 맞추어 제시하였음 - 컨디션에 따라 타이머 소리를 싫어할 때가 있어 의사표현하면 소리를 즉각 꺼주었음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머 끝나는 소리 '띠띠띠'에 다른 아이들의 주의가 분산됨 - 타이머 소리가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 조절이 필요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머 시간동안 착석 상태를 유지하였음 - 타이머의 시간을 보며 주어진 과제에 더 집중하였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감정표현 얼굴팻말과 카드	
활용 영역	인지, 심리 · 정서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기쁨, 즐거움, 슬픔, 화남, 놀람, 무서움) 얼굴모양 팻말과 그 감정에 맞는 상황 카드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초등 4학년 석○○ (남, 뇌병변장애 1급)	
적용 빈도	1일 1~2회(회당 10분 이내)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2. 어디서: 학생 자리 3. 언 제: 국어교과 시 10분 4. 시작 안내: “○○야, 여기 카드에 여러 가지 표정이 있어 어떤 표정인지 살펴보고 카드 미션 게임도 해보자” 5. 종료 안내: “이제 1분 남았으니, 1분 후에는 정리하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지금은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게임 하자.” 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게 된 감정카드에 대해 회 차별로 누가 기록함 - 학부모 상담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억압된 감정으로 인한 반복적인 혼잣말이 줄어듦 - 팻말과 카드 미션 수행을 통해 소근육 조작능력이 좋아짐 -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추측하는 연습을 통해 대인관계기술이 발달함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초등 4학년 석○○ (남, 뇌병변장애 1급)
적용 빈도	1일 1~2회(회당 1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표지의 감정에 대해 인지하기 - 상황카드의 그림 상황에 대해 인지하기 - 상황카드와 감정표지 짹짓기 순으로 활동 제시함 - 동화책의 그림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인지하도록 제시 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책 읽기와 연계해 간단한 역할극을 수행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감정을 찾아 말하였음 -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서 반복적인 혼잣말이 줄어들었음 - 상황카드 미션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추측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보드 중심잡기	
활용 영역	신체 · 건강(대근육, 전정감각 자극)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의 균형감각과 협응능력을 높이면서 다양한 자세를 표현함 - 서있기, 흔들면서 앞으로 걷기, 360도 돌기 등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초등 6학년 한○○ (남, 지적장애 2급)	
적용 빈도	1일 2~3회(회당 10분 이내)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2. 어디서: 특정 영역 3. 언 제: 국어, 수학교과 시작 전 쉬는 시간 4. 시작 안내: “○○야, 공부시작하기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 운동을 하자.” 5. 종료 안내: “이제 1분 남았으니, 1분 후에는 정리하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지금은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운동하자.” 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있기, 흔들면서 앞으로 걷기, 360도 돌기 등의 단독수행 시간을 누가 기록함 - 학부모 상담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정감각을 깨우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교과시간 더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함 - 전정감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긴 문장을 유창하게 말함 - 밸런스운동감각과 근육을 발달시킴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초등 6학년 한○○ (남, 지적장애 2급)
적용 빈도	1일 2~3회(회당 1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활동을 시작하기 전 15~20분 활동 시간을 줌 - 전정감각 활성화를 위해 보드중심잡기 활동과 더불어 짐 볼을 이용한 손수레 걷기 활동도 함께 제시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정감각 활성화를 위한 다른 활동들과 함께 제시하도록 함 -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정감각을 깨우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행동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수업시간 점차 더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하게 되었음 - 전정감각의 활성화로 조금 더 긴 문장을 말하려고 시도하였음 - 밸런스감각과 근육의 발달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빙글빙글콘	
활용 영역	심리·정서(전정계) 안정 신체·건강(대근육)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 안에서 회전 및 균형잡기 놀이를 할 수 있어 균형감각 및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물놀이 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유치원 만4세 박○○ (남, 자폐성장애 2급)
적용 빈도	매일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회당 5분 이내)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해당 학생 혼자 / 2인 1조 / / 교사-학생 1:1 2. 어디서: 교실 신체활동 영역 3. 언 제: 자유선택활동 (원할 때 자유롭게) 4. 시작 안내: “○○야, 빙글빙글 하고 싶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할까요? ○○이 혼자해도 되고, 친구랑 같이해도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도 돼요.” 5. 종료 안내: “이제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갖고 놀자.” 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구 활용 전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행동의 빈도와 시간을 기록 - 교구 사용 후,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행동과 교구를 사용하는 행동의 빈도와 시간을 기록 - 학부모 상담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자리에서 몸을 흔들거나 회전하는 등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행동 대신에 교구(콘)를 사용하여 놀이하여 의미 있는 놀이 및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 균형력, 회전감각, 신경반사기능, 신체근육의 통합조정력이 발달될 것으로 기대함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유치원 만4세 박○○ (남, 자폐성장애 2급) 유치원 만4세 고○○ (여, 지체장애 2급)
적용 빈도	매일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감각추구행동(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하면 교구를 사용하도록 함 - 자폐성장애 유아 외에도 지체장애 유아에게도 사용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글빙글 돌지 않더라도 교구 안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함 - 교구 크기가 커서 비치 및 보관 시 유의하도록 함 - 지체장애 유아에게 사용할 경우 유아의 운동능력(균형) 향상에 도움이 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놀이를 통하여 제자리에서 몸을 흔들거나 회전하는 등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줄어들었음 - 심리 ·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균형력, 신체근육의 통합조정력이 향상되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귀마개	
활용 영역	심리·정서, 예술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반응에 민감한 아동에게 소리 자극을 줄여 주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가격이 저렴하고 착용이 간단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아동 스스로 쉽게 착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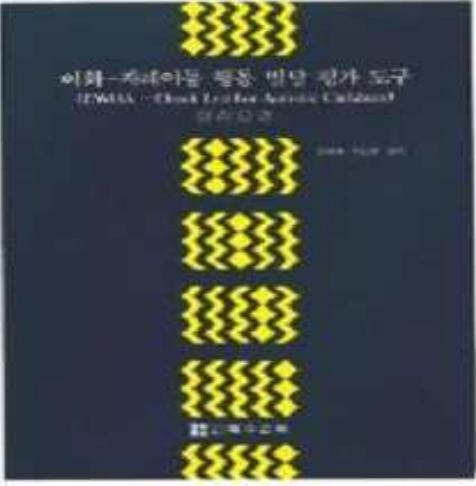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유치원 만 5세 김○○ (남, 발달장애 2급)
적용 빈도	1주 2~3회(회당 20분 내외)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2. 어디서: 식당 및 강당 또는 1:1 수업 상황에서 활용 3. 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싫어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 착용 - 1:1 수업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소음을 제시하고 아동이 싫어 하는 소리가 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4. 시작 안내: “이 소리가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귀마개를 쓰면 소리가 작게 들릴 거야. 한 번 써 보자” 또는 큰 소음이 나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 “강당에 가면 마이크 소리가 들려서 힘들지? 귀마개 하고 들어갈까?” 5. 종료 안내: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네. 귀마개를 빼 볼까? 네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 귀마개를 쓰면 돼” 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반응을 살피고 기록함 - 학부모 상담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강당 등 큰 소리가 나는 곳에 들어가는 거부감을 줄임 - 소리자극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느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유치원 만 5세 김○○ (남, 발달장애 2급)
적용 빈도	1주 2~3회(회당 2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관람 현장학습 상황에서도 활용하였음 - 스폰지 귀마개 사용도 병행하였음 - 스폰지 귀마개와 인형 모양 귀마개 중에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 - 벗겠다고 의사표현 하면 즉시 벗을 수 있게 하였음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이들 속에서 너무 눈에 띈다는 점이 염려됨 - 양털 인형 모양에 만족하는 것인지 소리의 크기가 약화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인지 좀 더 주의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함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드셋이나 귀마개는 착용감이 싫어서인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친숙해 지도록 유아가 보는 곳에 귀마개를 항상 비치해 두었더니 가끔씩 스스로 끼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또래와 컴퓨터 동요를 듣는 동안 싫어하는 노래가 나와 울려고 할 때 귀마개를 씌워 주니 울지 않고 가만히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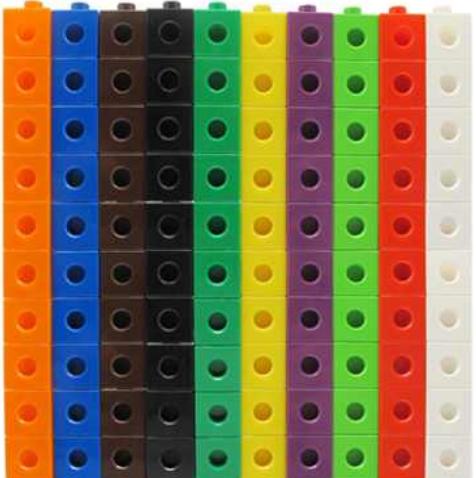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이화-자폐아동 행동 발달 평가 도구 (E-CLAC)	활용 영역 아동의 행동 발달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단계를 척도 상에 확대시켜 1~5 단계로 구성 - 1~24문항까지 각 척도영역을 원그래프상에 나타내어 psychogram을 만들어 개개인의 행동발달과 기능 발달을 관찰 비교할 수 있음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초등 2학년 최○○ (남, 자폐성장애 2급) 초등 2학년 김○○ (여, 자폐성장애 2급)	
적용 빈도	1회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학부모, 특수교사 2. 어디서: 가정, 학교 3.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평가를 실시 - 학부모와 교사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활용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행동발달 수준을 알 수 있음 - 학생의 행동발달 수준을 통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음 - 학부모와 교사의 관점을 비교해볼 수 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초등 2학년 최○○ (남, 자폐성장애 2급) 초등 2학년 김○○ (여, 자폐성장애 2급)
적용 빈도	1회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평가를 실시 - 학부모와 교사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 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의 현행수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 목표 설정 시 참고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진단평가 도구(예: 적응행동 검사)도 교사와 학부모 각각 실시하여 학부모와 교사의 관점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학생의 현행수준 파악 및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설정 시 활용하면 좋겠음
활용 모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교사 평가 결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학부모 평가 결과]</p> </div> </div>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행동발달 수준을 알 수 있음 - 학부모와 교사의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개별화교육협의 시 목표 설정이나 교육방법들에 대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퍼즐리아 랭킹큐브	
활용 영역	인지(수학적 사고력), 신체·건강(소근육, 눈·손 협응), 창의성, 예술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와 연산, 도형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음 - 큐브를 연결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음 - 보드판을 활용하여 고정 시킬 수 있음 - 공간지각력, 수리적 사고력, 추리력, 소근육 조작력의 발달을 촉진함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초등 4학년 김○○ (남, 자폐성장애 3급)	
적용 빈도	1주 2~3회(회당 40분 내외)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2. 어디서: 특수학급 3. 언 제: 수학교과 및 쉬는 시간 10분 4. 시작 안내: “○○야, 수학시간이네. 이번시간은 덧셈 하니까 큐브세트 가지고 오세요.” 5. 종료 안내: “큐브세트로 덧셈 해보니 어떤가요? 쉬는 시간에 가지고 놀아도록 됩니다.” 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활동 장면과 놀이 장면과 작품들을 사진을 찍어서 정리 - 포트폴리오 평가 형태로 발달 상황을 기록함 - 학부모 상담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흥미를 높임 - 구체물 활용 조작을 통하여 양감을 획득하고 수리적 사고력을 키움 - 조작활동을 통하여 소근육을 발달시킴 - 큐브활용 놀이를 통하여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초등 2학년 김○○ (남, 자폐성장애 2급) 초등 4학년 박○○ (남, 자폐성장애 3급)
적용 빈도	수업 활용 - 1주 2~3회(회당 20분 내외) 놀이 활용 - 매일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과 학습 : 수세기, 자릿수, 토막 쌓기, 사칙 연산 뿐만 아니라 소수와 분수, 막대그래프, 분류하기 등에도 활용 - 색깔 이름 알기, 큐브로 글자쓰기 등 국어과에도 활용 - 똑같이 만들기, 꾸미기, 쌓기 등 미술활동에도 활용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큐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브를 더 많이 구입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큐브함을 준비하여 분실을 최소함 - 다른 블록에 비해 크기가 작아서 학생들이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물 활용 조작을 통하여 양감을 획득하고 수학과 학습에 효과적임 - 끼우고 빼는 조작활동이 편리하며 소근육 활동에 도움 - 국어, 미술, 수학 등 다양한 교과에 활용도가 높음 - 큐브활용 놀이를 통하여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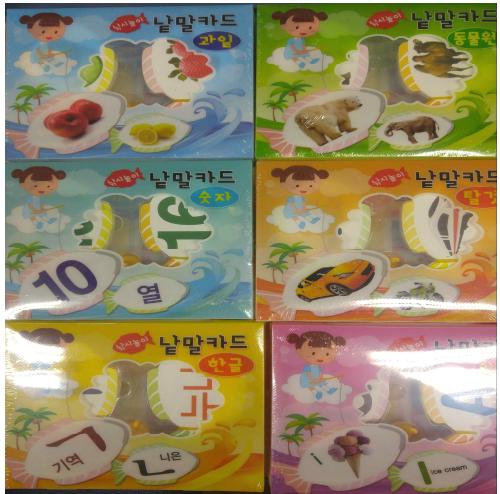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엄지손가락 근력운동기	
활용 영역	건강(쓰기, 대근육, 소근육 활용)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도구를 잡는 기초 활동이 될 수 있음 - 필기도구를 쥐는 손가락의 힘이 들어갈 수 있음. - 엄지손가락의 첫째 마디 운동향상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중학교 2학년 윤○○ (남, 자폐성장애 1급)	
적용 빈도	1주 1~2회(회당 40분 내외)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그룹 활동 2. 어디서: ○○학교 교실 3. 언 제: 국어교과 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4. 시작 안내: “필기도구 잡기 운동을 시작해봅시다.” 5. 종료 안내: “○○이의 손가락에 어떤 기분이 드나요?” 6. 평가 방법: 손가락을 누르고 펴는 운동성에 향상이 있으므로 필기도구를 줘는 방법을 인지하는지 평가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흥미를 높임 - 필기도구를 쥐고 글씨를 쓰거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중학교 2학년 윤○○ (남, 자폐성장애 1급)
적용 빈도	1주 1~2회(회당 4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작 전 엄지손가락 근력 운동기를 사용하겠다는 인지를 주었음 - 운동기를 사용 전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였음 - 쉬는 시간에도 운동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 - 벗겠다고 의사표현 하면 즉시 벗을 수 있게 하였음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병변장애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있어 협응 능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 것 같지만 추후에도 필요로 함 - 초등학교 시절에 필기도구를 잡던 버릇이 있어서 안타까웠지만 손에 힘이 생겼음
활용 모습	  <p>[학습을 시작 전 엄지에 힘을 주어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도록 함]</p> <p>[엄지손가락 근력 운동기 사용 후 연필을 잡는 모습]</p>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도구를 잡으면서 학습에 관심을 두고 흥미를 가질 수 있음 - 친구들과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워 함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낚시 놀이 낱말카드	
활용 영역	의사소통 (인지, 말하기, 언어, 표현)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표현의 기초 목표를 정할 수 있음 - 쉽고 재미나게 놀이 활동으로 언어 표현을 할 수 있음 - 낚시 놀이 활동으로 친구들과 협동학습을 기름 -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언어를 다양하게 발화함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중학교 2학년 죄○○ (남, 자폐성장애 1급)
적용 빈도	1주 1~2회(회당 40분 내외)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그룹 활동 2. 어디서: ○○학교 교실 3. 언 제: 국어교과 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4. 시작 안내: “○○아, 친구들과 함께 낚시 낱말카드 놀이를 해 봅시다.” 5. 종료 안내: “○○이가 기억나는 단어를 한 번 말해볼까요?” 6. 평가 방법: 친구들과 낱말 낚시 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낱말의 단어를 말하거나 선택을 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흥미를 높임 - 언어의 발화를 시작하는 기초를 형성 할 수 있음 - 친구들과의 협동학습을 증진할 수 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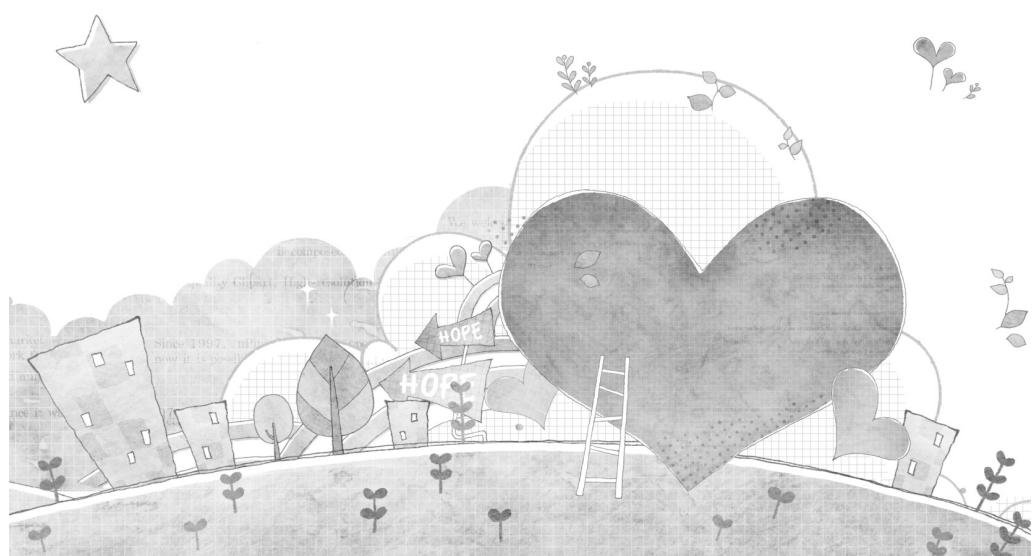
대상 학생	중학교 2학년 최○○ (남, 자폐성장애 1급)
적용 빈도	1주 1~2회(회당 4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카드 학습 전에 오늘 배울 낱말을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였음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와 함께 짹을 지어 또래 수업을 진행하였음 - 낚시 활동 외에도 다른 게임 방법(스피드 퀴즈)으로도 익힐 수 있게 진행함 - 대상 학생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학급 친구들에게 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카드 안에 제한되어 있는 단어들은 숙지를 하였지만 그 외에 단어는 숙지하기가 힘들었음 - 낚시 놀이 외에도 다른 게임을 병행하며 낱말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겠음 -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낱말을 다양하게 발화하기는 짧았음
활용 모습	  <p>[대상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p> <p>[스스로 낚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p>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서로 협동 하며 게임을 할 수 있었으며 표현하는 언어가 다양해짐 - 제한된 낱말 카드로 학습을 하여 다양한 언어 표현을 하기는 힘들었음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계획서

교 구 명	무지개 스쿠터보드	
활용 영역	고유수용계 감각 통합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드를 한쪽 방향으로 수회 돌리고 일어나서 교사와 손뼉 치기 - 유아가 스스로 스쿠터 보드를 고정한 끈을 잡고 이동할 수 있음 - 앉거나 엎드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대근육 운동 및 균형감각의 발달을 촉진함 	
지도 계획		
대상 학생	유치원 만 4세 신○○ (여, 자폐성장애)	
적용 빈도	1일 2회(회당 10분 이내)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와: 교사-학생 1:1 2. 어디서: 교실 3. 언제: 오전 대그룹 이야기 나누기 전, 오후시간 4. 시작 안내: 놀이동요를 틀어주고 활동시작을 준비하게 함 5. 종료 안내: 정리음악을 틀어주고 활동종료를 준비하게 함 6. 평가 방법: 스쿠터보드 활동 후 대그룹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착석유지 시간을 체크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수용계 감각 통합으로 흐느적거리지 않고 걷기 - 고유수용계 감각 통합으로 의자에서 늘어지지 않고 착석하기 	

자폐성장애학생 교재·교구 활용 지도 결과

대상 학생	유치원 만 4세 신○○ (여, 자폐성장애)
적용 빈도	1주 2~3회(회당 10분 내외)
지도 과정의 수정·변경 사항 및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	<p>1. 수정·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조 및 읊동을 병행하였음 - 손수레 걷기활동도 병행하였음 - 스쿠터보드 활동을 거부할 경우 위의 두 개 활동을 해보도록 유도함 <p>2. 향후 지도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체를 스스로 움직이며 활동을 해야 효과적이므로 스쿠터 보드를 스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경험의 빈도를 늘림
활용 모습	 
지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체를 스스로 움직이며 활동을 해야 효과적임 - 착석 시 시간 증가 보다는 앉는 자세의 질적 발달(늘어지지 않기)을 보임 - 스쿠터 보드를 다른 활동(교사가 끌어주기)으로 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7 연수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CONTENTS

목 차

I.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 방안』 교사 직무연수	255
II. 자폐성장애 유아 감각통합 훈련 가족지원 프로그램	258
III. 자폐성장애학생 가족지원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	261
IV. 청소년기 자폐성장애학생 전환교육 역량강화 학부모 연수	265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 방안』 연수 계획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I

추진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62호, 2013.07.15., 일부개정)
- 2016 교육부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1351 (2016.03.29.))
- 2016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 -11300(2016.05.30.))

II

목 적

- 자폐성장애의 장애특성 및 개념모델의 변화에 대한 이해 확산
- 자폐성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및 수업참여 지원 전문성 신장
-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지원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 및 수업연구 분위기 조성

III

추진 방침

- 인천광역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 교원 및 교육전문직(특수교육)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실시
- 자폐성장애의 장애특성 이해 및 지도사례 중심 연수로 증거 기반 실제의 현장 적용 분위기 조성
- 주제에 따른 분임토론 진행으로 자폐성장애 지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 공유

1. 연수 개요

- 연수종별: 직무연수(*15시간, 연수이수증 발급)
- 연수명: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 방안』 연수
- 일시
 - 2016. 7. 16. (토) 09:00~18:00 (8시간)
 - 2016. 7. 23. (토) 09:00~17:00 (7시간)
- 대상 및 인원 : 인천광역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 교육 교원, 교육전문직(특수교육), 총 55명 내외
 - 자폐성장애 이해에 관심이 있는 특수교육 교원
 - 자폐성장애 대상의 교수자료 개발 참여 희망 교사
 - 교육전문직(특수교육)
- 연수 장소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소회의실, Wee센터 그린나래실

2. 연수 일정 및 내용

일자	운영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7월 16일	09:00~09:10	등록, 개강식	담당 장학사	
	09:10~12:10 (3.0)	자폐성장애의 개념 변화 및 장애특성 이해	외부강사	
	12:10~13:00	중 식		
	13:00~16:00 (3.0)	자폐성장애의 행동지원 방안	외부강사	
	16:00~18:00 (2.0)	자폐성장애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	초등 교사 중등 교사	8개 분과로 나누어 분임토론
7월 23일	09:00~12:00 (3.0)	자폐성장애 교수의 실제	외부강사	
	12:00~13:00	중 식		
	13:00~15:00 (2.0)	자폐성장애 학생의 감각통합 훈련	외부강사	
	15:00~17:00 (2.0)	자폐성장애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	초등 교사 중등 교사	8개 분과로 나누어 분임토론
	17:00~17:20	설문조사, 폐회	담당 장학사	

※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3. 연수 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회

- 일시: 2016. 7. 7. (목), 16:00
- 대상: 연수 실시일 분임토론 운영을 위한 진행요원 10명
- 장소: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 내용: 분임별 컨설팅 지원 내용 및 토의·토론 진행방법



기대 효과

- 자폐성장애학생의 개별적 교육 요구 충족 및 교육의 질 제고
- 자폐성장애학생이 포함된 특수학교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 자폐성장애학생이 포함된 특수학교 교원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 특수교사 붙임토론을 통한 자폐성장애학생 대상의 수업 실천 방안 상호 교류 및 실천 의지 확산



행정 사항

1. 참가 신청서 제출

- 제출 기한: 2016. 00. 00.(월)
- 제출처: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전자문서 제출
- 제출자료: 연수 신청서(붙임)

2. 제출 서식

연번	학교 번호	학교명	직위	이름	연수지명번호	소속 학교급(○ 표시)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교감, 교장, 전문직 등)
1	북나00	인천00 초등학교	교사	○○○						

※ 소속 학교급(○표시)은 자폐성장애학생 대상의 교수·학습설계 및 적용에 대한 분임토론 활동의 그룹 편성에 반영할 예정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 유아 감각통합 훈련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I

추진 근거

- 2016 교육부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1351(2016.03.29.))
- 2016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11300 (2016.05.30.))
- 2016 자폐성장애학교 운영 모델 개발·보급 계획(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12372(2016.07.29.))

II

목 적

- 자폐성장애 유치원생 자녀의 감각 발달 기제와 행동 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통해 자녀 지원 수준을 높임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감각통합 신체활동을 통하여 가족 간의 공감·소통 능력을 높임
-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족 간 화합과 가족역량을 강화함

III

추진 방침

- 인천 관내 유치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자녀)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지원 연수 실시

- 장애 유아의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한 감각통합 신체활동 중심으로 운영
-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및 실제 지도사례를 통해 연수 효과의 지속 및 일반화 유도

IV**세부운영 계획****1. 연수 개요**

- 연수성격: 자폐성장애 유치원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 연수명: ‘감각 깨움, 사랑 키움, 행복 나눔’ 의 부모-자녀 기족역량 강화 연수
- 일시: 2016. 11. 25. (금) 15:00~17:00 (2시간)
- 대상 및 인원 : 인천 관내 유치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자녀)과 학부모, 총 15가족(30명) 내외
- 연수 장소 : 인천삼산유치원 강당

2. 연수 일정 및 내용

일자	운영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11월 25일	14:40~15:00	등록, 개강식	담당 장학사	
	15:00~15:20	감각 발달 기제의 이해 및 준비 활동	감각통합 훈련 전문 강사 박새롬	SISO감각통합연구소 객원 치료사
	15:20~16:00	감감통합의 원리와 신체활동	감감각통합 훈련 전문 강사 박새롬 보조강사 홍민경	SISO감각통합연구소 객원 치료사
	16:00~16:10		휴식	
	16:10~16:50	감감통합 일상생활훈련 실천 방안	감감각통합 훈련 전문 강사 박새롬 보조강사 홍민경	SISO감각통합연구소 객원 치료사
	16:50~17:00	소감 공유 및 연수 평가	담당 장학사	설문지 활용

※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V**기대 효과**

- 가족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촉진

- 장애학생의 가족지원에 대한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 장애학생 가족지원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VI

행정 사항

1. 참가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	제출처	제출기한	제출양식
초등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강화는 미래교육지원센터)	2016. 11. 17.(목)	(붙임) <u>※ 비공개 6호</u>
특수학교	시교육청 학교교육과		<u>처리</u>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담당 장학사(ICE 메신저 쪽지)	2016. 11. 18.(금)	

2. 제출 서식

2016학년도 『일상생활 감각통합 훈련을 통한 자폐성장애 유치원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연 번	학교 번호	유치원명	유아 이름	연령 학급	학부모 이름	학부모 연락처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선정된 장애유형	복지카드 장애인등급	주요행동특성 (간략히 기재)
1	북나00	00유치원	ooo	5세반		010-777- 7777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학생 가족지원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 운영계획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I

추진 근거

- 2016 교육부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1351 (2016.03.29.))
- 2016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11300(2016.05.30.))
- 2016 자폐성장애학교 운영 모델 개발·보급 계획(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12372(2016.07.29.))

II

목적

- 자폐성장애학생을 형제자매로 두고 있는 초등 3, 4학년 비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인식을 높임
- 자폐성장애학생 가족의 상호 친밀도 및 신뢰도 증진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함
-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가족지원을 확대함

III

추진 방침

- 인천 관내 자폐성장애학생의 형제자매인 초등 3, 4학년 비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 3학년 일정과 초등 4학년 일정을 나누어 2회에 걸쳐 운영
- 가족 간 심리·정서적 교류를 촉진하는 심리운동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IV

세부운영 계획**1. 연수 개요**

- 연수명: 자폐성장애학생 가족지원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
- 일시: 2016. 10. 26.(수), 28(금) 15:00~17:00 (2일간)
 - 10/26(수)은 초등 3학년 대상, 10/28(금)은 초등 4학년 대상임
 - 14:40부터 등록하며, 시작 5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람
- 장소: 부평아트센터(부평구 십정동 186-411, 1호선 백운역 2번 출구)
- 대상 및 인원
 - 인천 관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폐성장애학생(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을 형제자매로 둔 초등 3, 4학년 비장애학생과 학부모
 - 선정된 장애유형이 자폐성장애(발달장애)가 아니어도 동반 장애로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장애형제자매도 해당함
 - 회차별 10가족, 총 20가족(40명) 내외

2. 연수 일정 및 내용

일자	운영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초등 3학년 대상 10월 26일(수) <1회차>	14:50~15:00	등록, 개강식	담당 장학사	
	15:00~15:40	부모-자녀 친밀도 및 신뢰도 증진 활동	강사 안덕근	성민복지관 특수교사
	15:40~16:00	휴식		
초등 4학년 대상 <2회차> 10월 28일(금)	16:00~16:40	가족 간 감정 표현과 이해 증진 활동	강사 안덕근	성민복지관 특수교사
	16:40~17:00	공감과 치유의 가족 응집력 증진 활동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기대 효과

- 비장애형제자매 학생의 장애이해 및 가족친밀도를 증진함
- 장애학생의 가족지원에 대한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 장애학생 가족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행정 사항

1. 참가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	제출처	제출기한	제출양식
일반 초등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강화는 미래교육지원센터)	2016. 10. 14(금)	(불임) <u>※ 비공개 6호</u> <u>처리</u>
특수학교	시교육청 학교교육과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2016. 10. 17.(월)	

2. 제출 서식

2016 '자폐성장애학생 가족지원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연번	학교 번호	학교명	비장애 학생이름	학년반	학부모 이름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 연락처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소속 학교	학년반	장애유형(등급)
1	북나00	00초	ooo	4-3	홍길동	아버지	010-777-7777	00중	2-1	자폐성장애(3)



2016학년도

청소년기 자폐성장애학생 전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 운영계획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I

추진 근거

- 2016 교육부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1351 (2016.03.29.))
- 2016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지원강화 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 -11300(2016.05.30.))
- 2016 자폐성장애학교 운영 모델 개발·보급 계획(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12372(2016.07.29.))

II

목 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폐성장애학생의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인식을 높임
- 자폐성장애학생의 학령기 이후 전환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함
- 중·고등 자폐성장애학생 학부모 대상의 연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하여 특수교육의 가족지원을 확대함

III

추진 방침

-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과정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폐성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청소년기 자폐성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 학부모의 질의 및 토의 · 토론 시간 운영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의 참여형 연수로 진행

IV

세부운영 계획**1. 연수 개요**

- 연수성격: 중·고등 자폐성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 연수명: 청소년기 자폐성장애학생 전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
- 일시: 2016. 10. 20.(목), 21(금) 10:00~12:00 (2일간, 총 4시간)
 - 등록은 09:40부터 시작함
 - 연수 시작 5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람
- 장소: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실
- 대상 및 인원: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과정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성장애학생의 학부모, 총 50명 내외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형이 자폐성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아니어도 동반 장애로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해당함

2. 연수 일정 및 내용

일자	운영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10월 20일(목)	09:50~10:00	등록, 개강식	담당 장학사	
	10:00~10:50	청소년기 자폐성장애학생의 발달 특성	자폐성장애 전공 박사 윤선아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특수교사
	10:50~11:00	휴식		
	11:00~11:40	자폐성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지도 방안	자폐성장애 전공 박사 윤선아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특수교사
	11:40~12:00	학부모 질의응답		
10월 21일(금)	10:00~10:50	자폐성장애 자녀의 청소년기 일상생활 지도	학부모 강사 류영미	장애인 단기보호 센터 원장
	10:50~11:00	휴식		
	11:00~11:30	자폐성장애 자녀의 성인기 준비 방안	학부모 강사 류영미	장애인 단기보호 센터 원장
	11:30~12:00	학부모 토의·토론	담당 장학사	
	12:00~12:10	강의 만족도 조사	담당 장학사	설문지 활용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기대 효과

- 자폐성장애학생의 청소년기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
- 장애학생의 가족지원에 대한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 장애학생 가족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행정 사항

1. 참가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	제출처	제출기한	제출양식
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강화는 미래교육지원센터)	2016. 10. 11.(화)	(붙임) <u>* 각 교육지원청</u> <u>(본청 포함)별로</u>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교육청 학교교육과		<u>10명 내외로 신청</u>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2016. 10. 12.(수)	<u>접수 바랍니다.</u>

2. 제출 서식

2016 '청소년기 자폐성장애학생 전환교육 역량강화 학부모 연수'
참가 신청서

연번	학교 번호	학교명	학생 이름	학년반	학부모 이름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 연락처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선정된 장애유형	복지카드 장애등급	비고(중복장애 등의 기타 특성)
1	북나00	00초	ooo	4-3	홍길동	아버지	010-777 -7777	자폐성 장애	3급	우측상지편마비



참고문헌

- 고동희, 이소현(2003). 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학생의 수업시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학습장애연구*, 제19권 제2호. 1-21.
- 교육과학기술부(2013).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국어 교사용 지도서.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국립특수교육원(2013).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 세상.
- 김경미, 지석연, 노종수 역(2003). 아이들을 이해하고 돋기 위한 감각통합 Q&A, 서울: 정담미디어.
- 김수연, 정경미(2016).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편식 치료에 대한 고찰. 한국응용행동분석학회.
- 김일명(2006). 자폐성아동을 위한 감각통합훈련. 제31회 행동치료사 자격연수, 1-16.
- 김진호, 박재국 외 역(2008). 최신톤수교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한경 박용숙(2005).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서울: 나눔의 집.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2003). 감각통합 Q&A.
- 박랑규, 안동현(2013). 내일을 기다리는 아이. 서울: 도서출판 이랑.
- 박계신, 이상복(2000). 사회이야기를 통한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재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59-87.
- 박민정(2012). 감각통합 프로그램 중재연구에 관한 분석 및 고찰. *자폐성장애연구*, 12(2). 177-193.
- 박승희 외(2011).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전환서비스.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현옥(2005). 나의 학교이야기.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사이 몽고베리(공경희 역). 템플 그랜든. 파주: 작은길.
- 신현기, 전옥경, 권오윤, 김애란, 김재영(2013). 특수아를 위한 활동하며 배우는 성교육. 서울: 학지사.
- 신현기, 이성봉 외 역(2014).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양문봉, 신석호(2011). 자폐스펙트럼장애 A to Z. 서울: 시그마프레스.
- 오세림(2016). 자폐성장애학생의 행동지원 방안.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 방안 직무연수, 21-46.
- 이명화, 양윤경(2014).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 고양: 가나출판사.
- 이성봉 외(2014). 정서 및 행동장애(2판). 서울: 학지사.
- 이소현, 박은혜 공저(2015).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승희(2009).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인천시교육청(2010).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건강한 성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장학자료 2010-0038).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2016). 2016학년도 자폐성장애 이해와 지도 방안 직무연수 자료집
- 이현혜(2013).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엘런 노트봄, 신흥민 역(2008).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서울: 한울림스페셜.

장은진, 김향자(2016). 태블릿PC를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5권 제1호. 247-268.

전지은(2008). **Why 사춘기와 성(초등과학학습만화 13)**. 서울: 예림당.

정진옥, 신현기(2006). 자폐인들의 성적행동특성과 그 지원 교육 탐색.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Vol.16. 1-24.

제드 베이커, 이정미 역(2008).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성 이야기 그림책**. 서울: 시그마프레스.

조수철 외 공저(2012). **자폐장애**. 서울: 학지사.

진권장, 손영수(2007). 사춘기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들을 위한 올바른 성 교육 방안에 관한 고찰.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Vol.5, No.1. 5-21.

토베 케이코, 주정은 역(2003).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파주: (주)자음과 모음.

홍주란, 김경옥, 진화숙 역(2009). **자폐아동을 돋기 위한 10가지 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히가시다 나오카(2015).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서울: 흐름출판.

Brenda K. Scheuermann(2009). **긍정적 행동지원**. 서울: 시그마프레스.

E.Amanda Boutot, Brenda Smith Myles((2012). **자폐스펙트럼장애**. 서울: 자폐연구.

Julia Moor, 금천아이존 역(2008).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L. Juane Heflin, Donna Fiorino(2015).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Richard L. Simpson외, 이소현 역(2007). **자폐 범주성 장애 :중재와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Richard L. Simpson외, 이소현 역(2010). **자폐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에듀꿈터. **양성평등 성 고정관념**.

한국경제. "싱글맘이 무슨 버스 운전…" 시내버스 채용 차별 논란. 2014.09.17. A33면.

아스퍼거 가족 모임방, <http://cafe.naver.com/asperger/51793>, 26280.

한국자폐인사랑협회(2012). 건강한 성, <http://www.autismkorea.kr/> 공개 게시물.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

자폐성장애학교 운영 모델 개발에 따른
자폐성장애 교수-학습 자료

자문위원

교육지원국장
초등교육과장

이순근(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이혜경(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기획

장학사

진미영(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편집위원

교사	고지영(인천연일학교)
교사	김미중(인천연일학교)
교사	김성순(인천예림학교)
교사	김윤미(부개고등학교)
교사	김진자(미추홀학교)
교사	김희영(인천청천초등학교)
교사	노은주(인천인수초등학교)
교사	문영수(인천굴포초 병설유치원)
교사	박현숙(인천연일학교)
교사	반성희(미추홀학교)
교사	배은영(인천신흥초등학교)
교사	백경주(인천예림학교)
교사	송혜미(연수중학교)
교사	신새롬(인천정각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소영(미추홀학교)
교사	유승연(인천상정중학교)
교사	유환미(인천부현초등학교)
교사	이귀동(인천예림학교)
교사	이현임(인천인혜학교)
교사	이혜선(인천인혜학교)
교사	최진묵(인천연일학교)
교사	하유진(인천계수중학교)
교사	하정은(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사	하정화(인천영선고등학교)
교사	한성희(인천남중학교)
교사	홍덕임(미추홀학교)
교사	홍정숙(인천인혜학교)
교사	황민령(인천성지초 병설유치원)

5장. 고등학교 “상황이야기”(social story)■ 활용한 지역사회적응교육
- 뉴욕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 -

은행에서 -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현금인출기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값을 냄 돈을 찾으려 은행에 갑니다.

현금인출기를 이용해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조용히 차례를 기다립니다.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바르게 넣습니다.

예금 인출 버튼을 누릅니다. 찾을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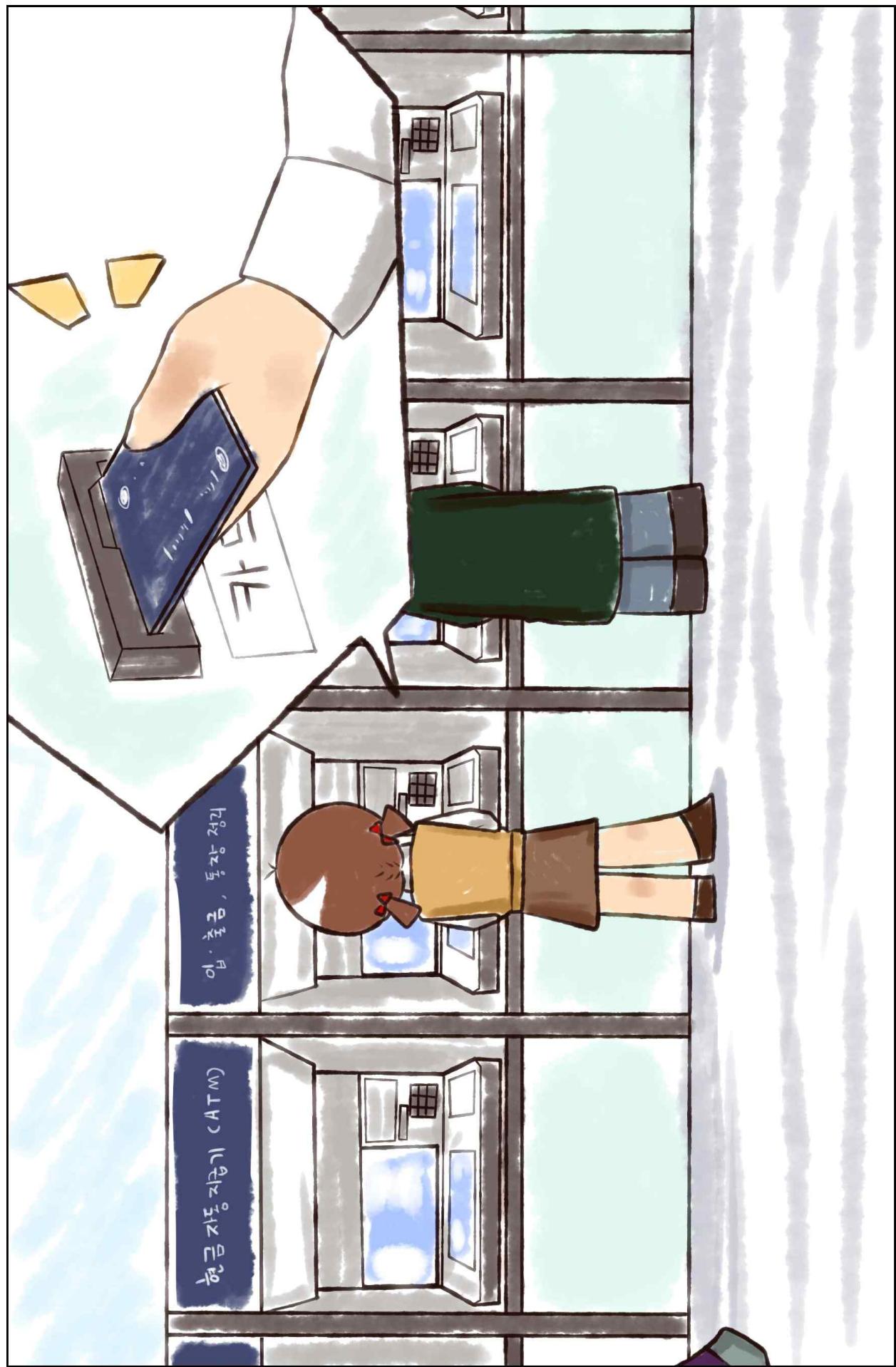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소리 내어 부르면서 누르지 않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카드와 현금을 꺼냅니다.

카드가 나오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비상 전화나 직원 호출 번호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고 오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갑니다.

주민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큰소리를 내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전광판에 내 번호가 쳐지는지 확인합니다.

번호가 쳐지면 창구로 갑니다.

직원에게 '등본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잘 모르는 것은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물어봅니다.

신분증과 수수료도 냅니다.

직원이 등본을 발급할 때까지 창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립니다.

등본과 신분증을 돌려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 주민등록증을 만듭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센터로 갑니다.
학생증과 사진을 준비해서 갑니다.

학생증이 없으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려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청서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씁니다.

신청서 아래 칸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을 찍습니다.

검은색 인주가 묻어 걱정되지만 다행으면 깨끗해집니다.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찍고 나서 물티슈로 손을 닦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증을 돌려받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자치센터에는 여러 가지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우쿨렐레 강좌를 신청하려 갑니다.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우쿨렐레를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직원이 주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와 프로그램명을 쓸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이용료를 내고 영수증과 회원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병원에서 - 진료를 받으려 병원에 갑니다.

열이 끓시] 나서 병원에 갑니다.

진료 접수증에 이름, 생년월일을 씁니다.

간호사에게 접수증을 제출하고 열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므로 조용히 치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돌아다니거나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내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진료실로 갑니다.

의사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청진기나 여러 가지 도구로 진찰합니다.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의사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아픈 곳과 어떻게 아픈지 이야기합니다. 아픈 곳을 손으로 가리켜도 됩니다.

의사선생님께 주의 사항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옵니다.



약국에서 - 약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다.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여줍니다.
약을 조제하는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약국 안에는 여러 가지 약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만져보고 싶지만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약값을 내고 약을 받습니다.
약 먹을 때의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대형마트에서 –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에 갑니다.

마트에는 많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써서 가면 편리합니다.
장바구니나 카트를 사용합니다.

마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합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만 카트에 담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트 직원에게 ‘○○을 찾아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계산하기 전에는 물건을 뜯거나 먹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모두 담아 계산대로 갑니다.



대형마트에서 - 계산대에서 차례를 지켜 물건값을 계산합니다.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로 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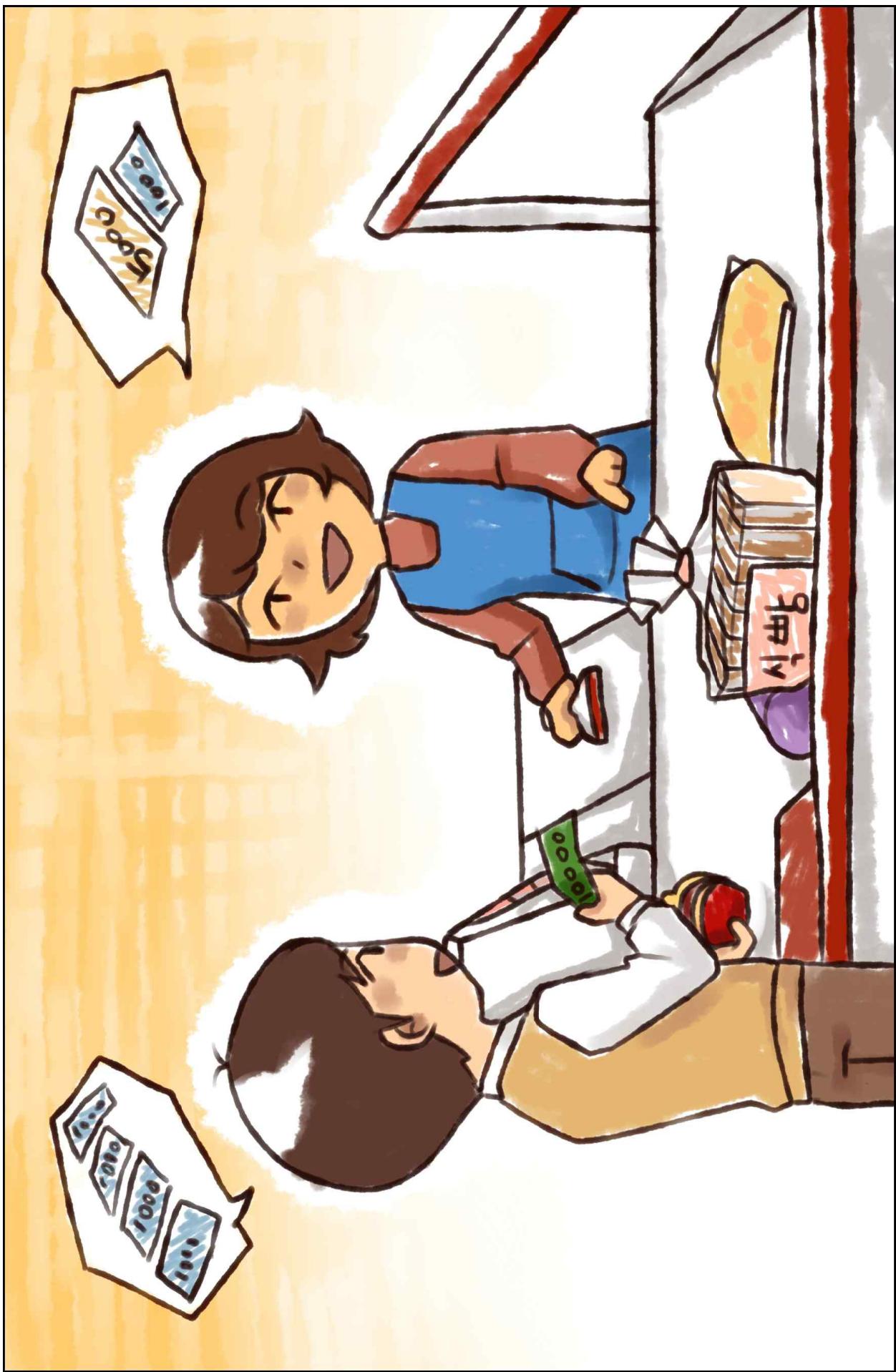
계산은 줄을 선 차례대로 합니다.

만일 내가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차례가 되면 카트에 있는 물건을 모두 계산대에 올립니다.

돈을 내고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빠짐없이 담습니다.



영화관에서 -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예매합니다.

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왔습니다.

먼저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사야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내 치례를 기다립니다.

내 치례가 되면 매표소로 갑니다.

직원에게 예매할 영화제목, 상영시각, 인원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매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상영하는 영화나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표를 받으면 상영관과 좌석을 확인합니다.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간식을 먹거나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관에서 - 관람 에티켓을 지키며 영화를 관람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10분 전이 되면 상영관으로 갑니다.
상영관으로 들어가면 내 좌석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지나갈 때는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온 휴대폰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꿉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상영관의 불이 꺼져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곧 익숙해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하게 합니다.



음식점에서 -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합니다.

친구와 함께 음식점에 갑니다.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습니다.

만약 앉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종업원에게 말합니다.

빈 좌석이 없으면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메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친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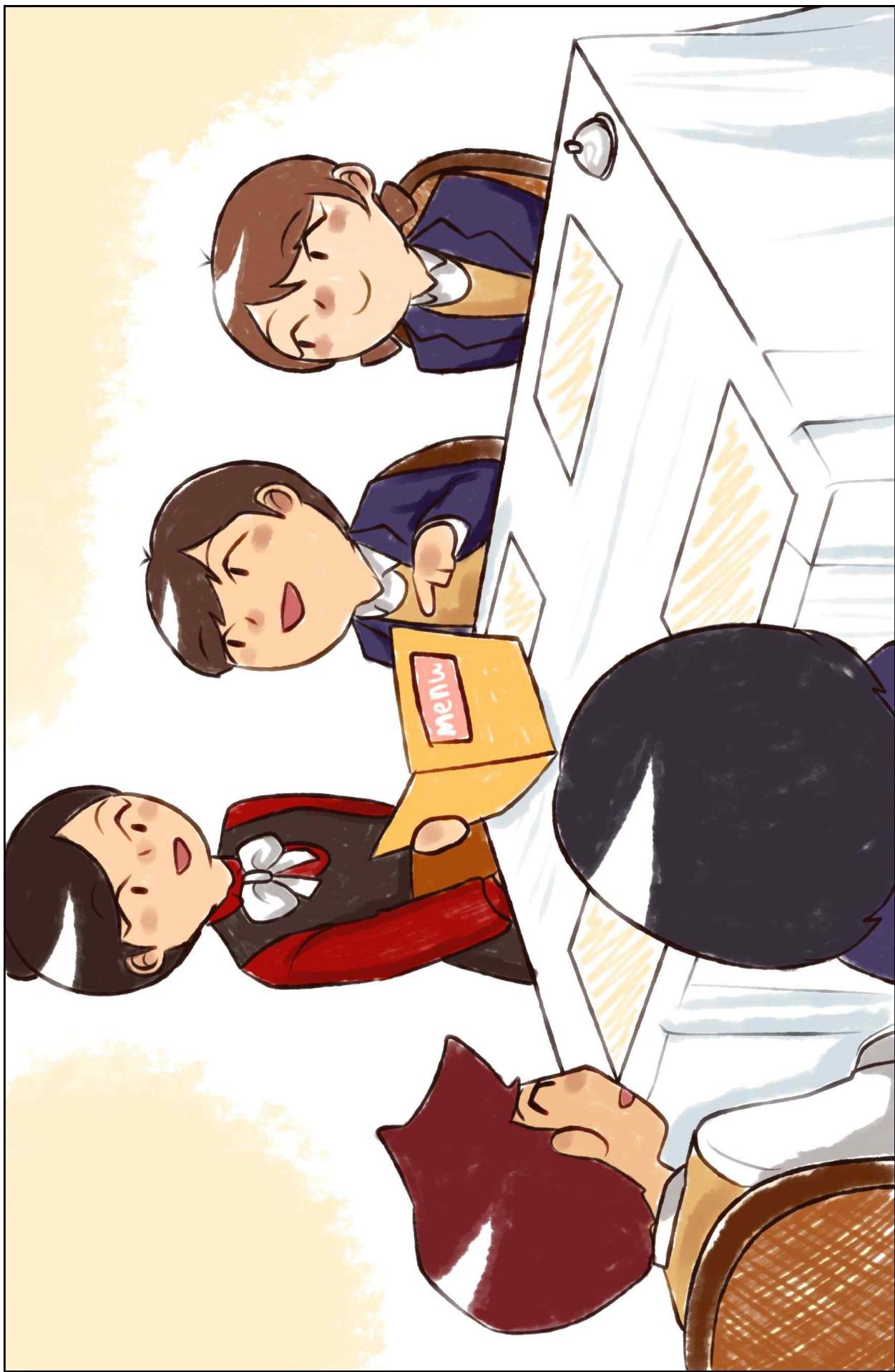
음식을 다 고르면 벨을 누르거나 종업원을 부릅니다.

종업원이 오면 선택한 음식을 말합니다.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벨을 다시 누르거나 종업원을 부릅니다.

종업원이 오면 추가로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음식점에서 - 식사 예절을 지켜 음식을 먹습니다.

친구와 음식점에 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수저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어른이 계실 때는 내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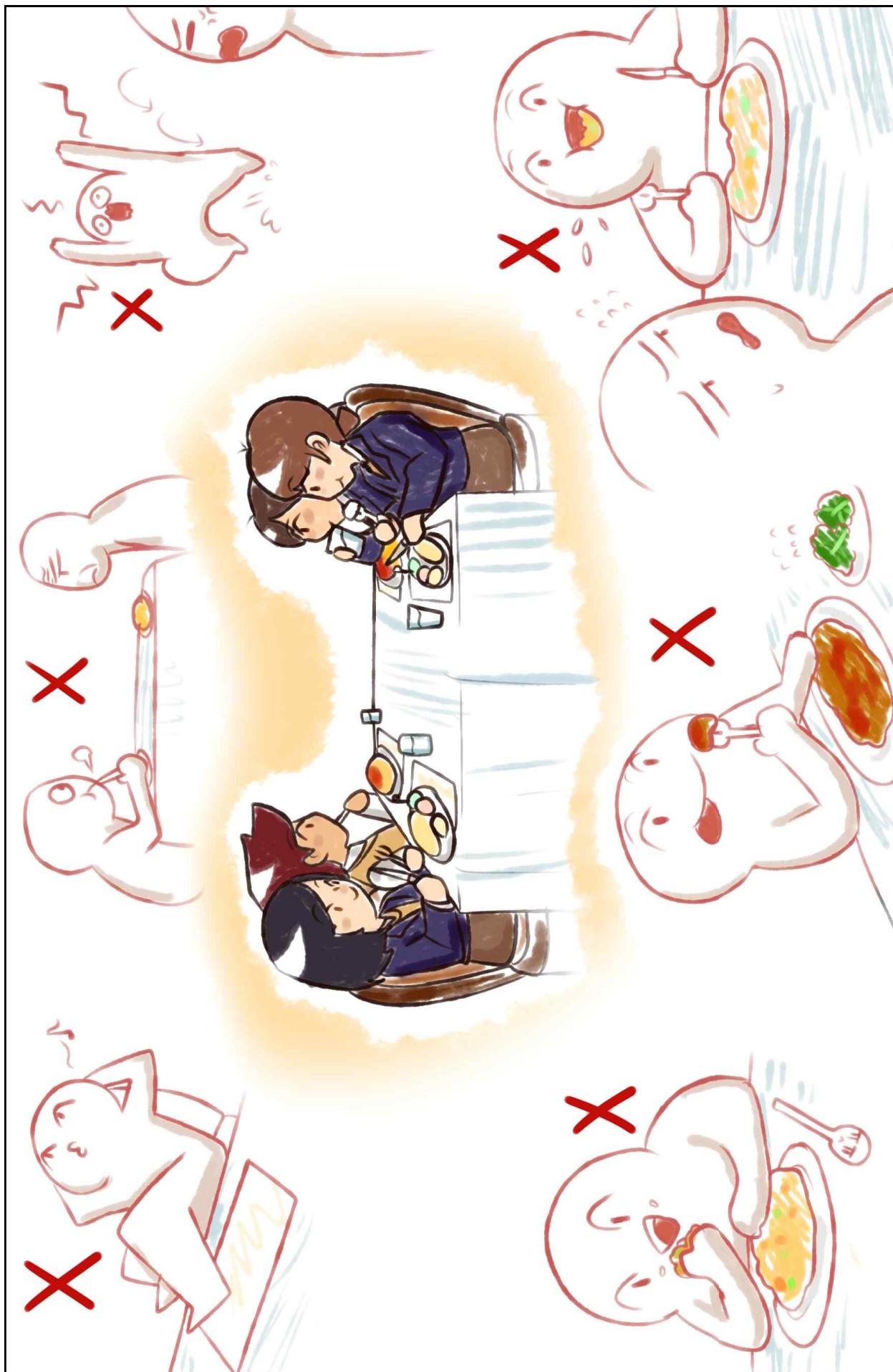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은 남겨도 됩니다.

식사 중 대화를 할 때는 입안의 음식을 다 삼킨 후 이야기 합니다.

다른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돌아다니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다 먹은 후에는 수저를 바르게 놓습니다.

만약 친구가 다 먹지 않았으면 기다립니다.



파스트푸드점에서 -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합니다.

친구와 햄버거를 먹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 갑니다.

메뉴판을 보고 햄버거와 음료수를 고릅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면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고 계산을 합니다.

직원이 ‘드시고 가실 건가요? 포장인가요?’라고 물으면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진동별을 받아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진동별이 울리면 주문한 음식을 가지러 갑니다.

주문한 음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옵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파스트푸드점에서 - 예절을 지켜 음식을 먹고 뒷정리를 합니다.

자리에 앉아 햄버거를 먹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 허락 받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먹은 후에는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버리는 곳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면 남은 음료수와 컵은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이때 얼음이나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남은 햄버거와 쓰레기는 쓰레기 투입구에 함께 넣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버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교통카드 충전하기 -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서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카드와 충전할 돈을 준비합니다.

편의점, 지하철역 매표소, 버스정류장 가판대, 은행 중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돈을 내고 충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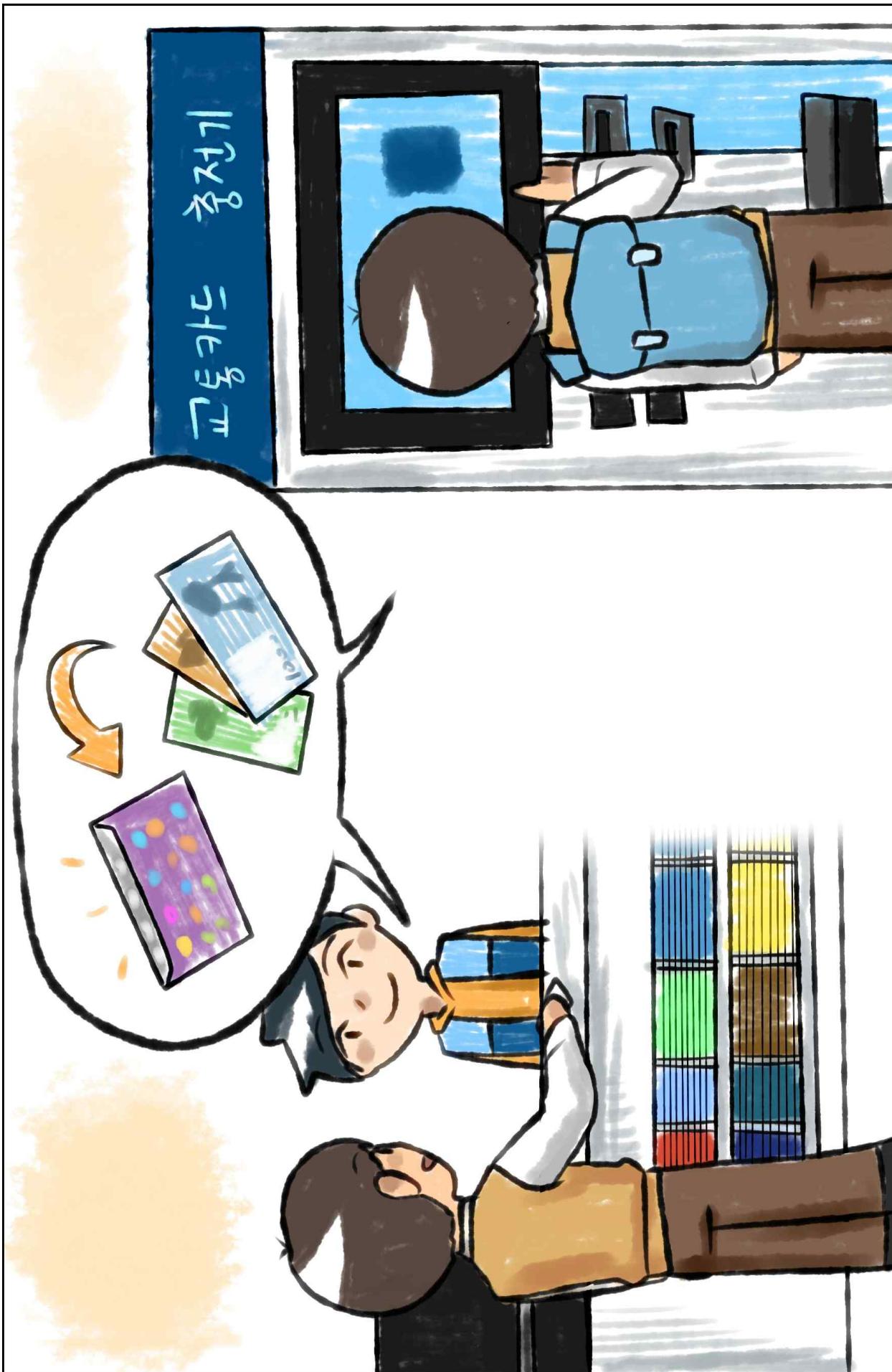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기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폐투입구에 넣은 돈이 나오면, 잘 퍼서 다시 넣거나 다른 지폐를 넣습니다.

직원에게 충전할 때는 '교통카드를 충전하러 왔어요.'라고 말하고 교통카드와 충전할 돈을 냅니다.

충전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충전이 되면 충전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버스 이용하기 - 차례를 지켜 안전하게 버스에 승차합니다.

친구 집에 가려고 버스정류장에 갑니다.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때로는 내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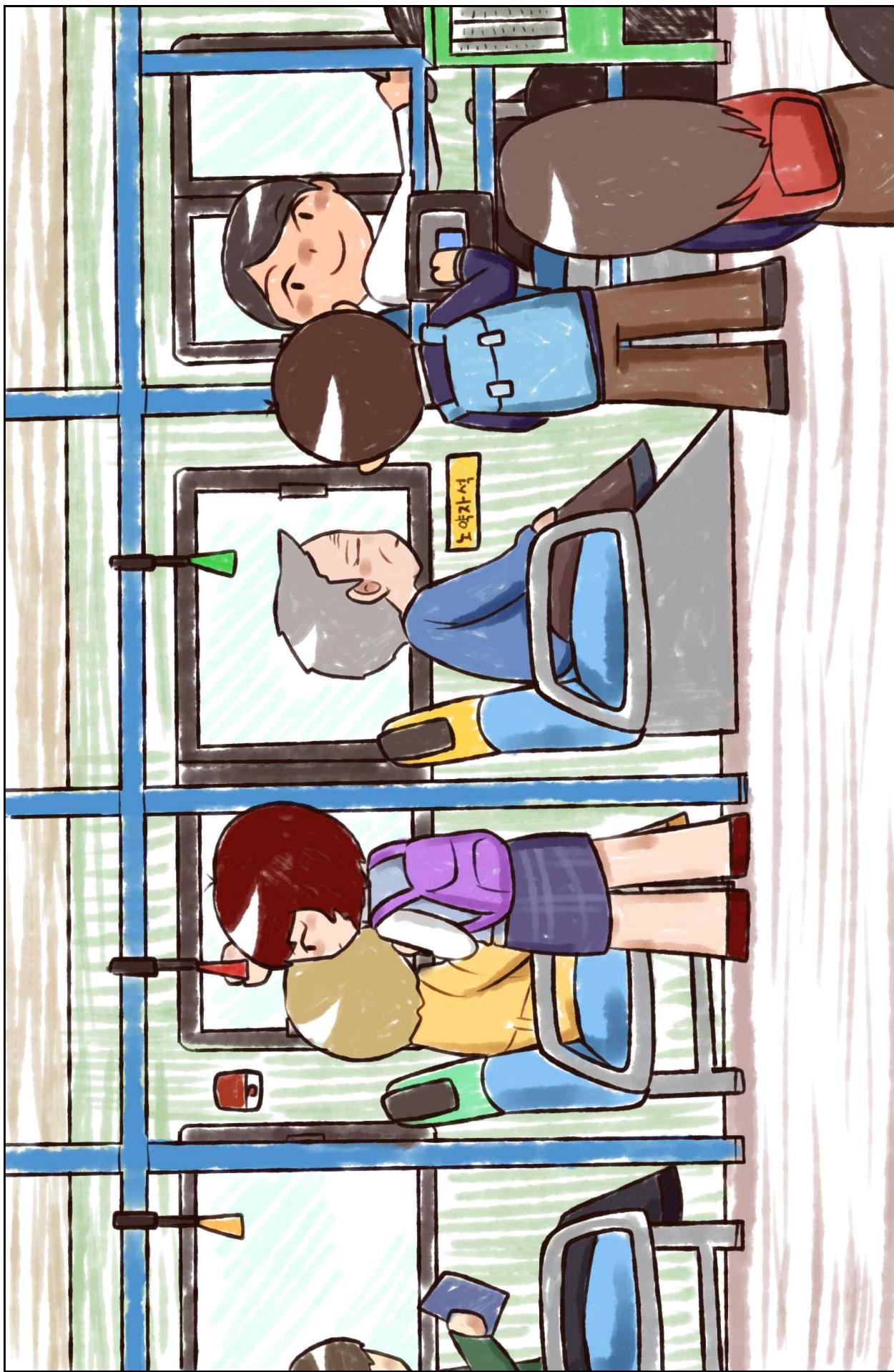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땅니다.

단말기에서 ‘삑-’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거나 카드를 다시 대라는 안내가 나오면 카드를 단말기에 다시 땅니다.

버스가 움직이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거나 비어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을 위해 노약자석은 비워 둡니다.



버스 이용하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 정류장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벨을 누릅니다.

내리기 전 교통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땅니다.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리기 전 버스에 놓고 온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면 좌우를 살피 후 안전하게 내립니다.

빨리 내리기 위해 앞사람을 미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나치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지하철 이용하기 - 안전하게 지하철에 승차합니다.

영화관에 가기 위해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지하철 우대 승차권을 이용하려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프리패스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으려면 발매기를 이용합니다.

발매기의 우대권 발매버튼을 누른 후 복지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보증금 오백 원 동전을 넣으면 승차권이 발급됩니다.

우대승차권 또는 장애인프리패스카드를 가지고 개찰구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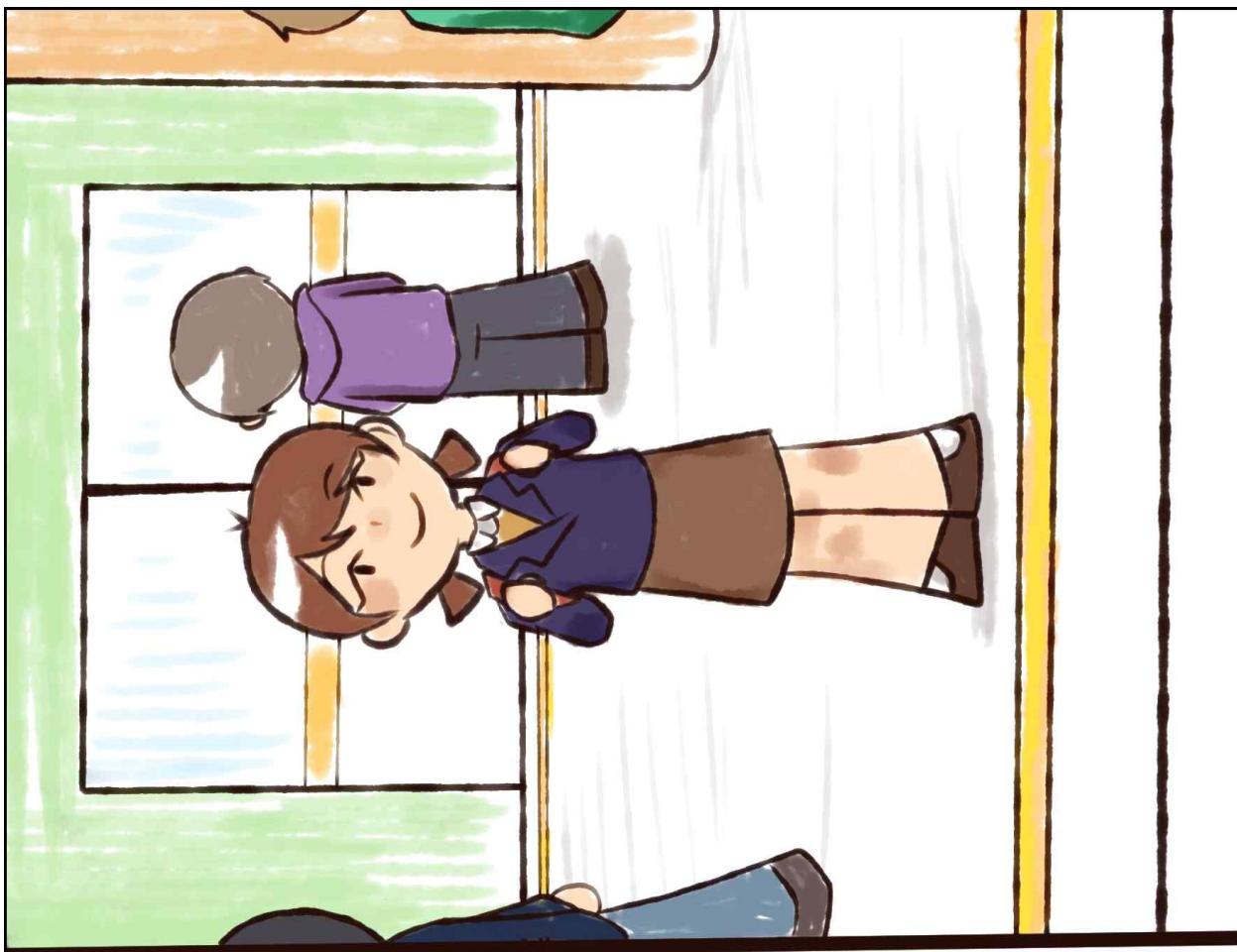
개찰집계 기계에 승차권을 대면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한 후 목적지의 열차방향 표지판을 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중인데 지하철이 벌써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뛰어가 문이 닫히는 순간 지하철에 오르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노란 안전선 밖에서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신호음이 울리며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 차례대로 안전하게 승차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기 – 에티켓을 지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합니다.

승객들이 많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노약자석은 비어 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다리를 올려 앉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옆 자리는 비어 있어도 짐을 올려두지 않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목적지역 이름이 방송되면 출입구 쪽으로 나가서 기다립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면 차례대로 하차합니다.

개찰구로 가서 개찰집계 기계에 승차권을 댄 후 통과합니다.

출구 표지판을 확인하고 출구 밖으로 나옵니다.



택시 이용하기 - 안전하게 택시에 승차합니다.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할 때 택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택시비를 충분하게 준비한 후 택시 승강장이나 택시가 많이 다니는 큰길가로 나집니다.

빈차 등에 불이 켜있는 택시가 가까이 오면 손을 흔듭니다.

빈차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손을 흔들어도 택시가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마구 손을 흔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택시가 멈춰서면 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로 가주세요.'라고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택시를 탔을 때에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맙니다.

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답답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전한 승차를 위해 꼭 지켜야 합니다.



택시 이용하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전하게 택시에서 하차합니다.

약속시간에 늦을까봐 택시를 탔습니다.

다행히 길이 막히지 않아 여유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반가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통화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나머지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앞 쪽에 있는 미터기에 적힌 택시요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택시요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계산합니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후 안전하게 택시에서 내립니다.

택시 문을 열 때에는 옆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